

'89년 한국 대표선수 1 차 선발대회

5.9~11, 국기원

◆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장은 역대 국가대표코치의 모임 같이 쟁쟁한 코치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원식 전무이사는 인사말에서 「경기단체의 생명은 경기장에 있고, 명량한 경기장 분위기는 심판원의 능력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정한 심판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전무이사·사무국장·기술심의회회장·상임지도위원·심판위원장 등 5명의 '심판위촉심의 기구'를 두어 공정한 판정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코치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박현섭 심판위원장이 심판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등 그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됨을 알 수 있었다.

김봉기 경기분과위원장은 개체일정과 경기진행 과정에서 준수결인 8강까지는 경기시간 2분 중간휴식 1분으로 주시시키는 등 국가대표를 추천하는 분위기다웠다.

참가자격은 1989년도 본 회 선수등록을 필하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로서 본 회에서 주최 및 승인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본 대회의 각 체급 1·2위 입상한 선수는 88년도 국가대표 1·2진과 최우수 선수권대회 각 체급 1위 자와 함께 최종 평가전에 참가하게 된다.

총 348명이 출전하여 국기원에서 3일간 진행된 본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개체에서 발견되었다(46명의 개체실격자가 나와 14%가 경기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출전자격 상실함).

또한 경기가 9시 정각에 시작되지 못하고 11

분이 지연돼 시작되었다. 이는 1급심판원들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발생하였으며 경기장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행동으로 앞으로는 자각하여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심판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새로운 경기장 풍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해졌다.

경기내용 면에서 체급별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편급

출전선수 49명중 고등부 선수 31명, 대학부 14명, 일반 4명으로 작년에는 경량급에서 고등부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대학부 선수들의 기량이 일반적으로 돋보였고 일반부는 숫자도 적고 특출한 선수도 눈에 띄는 정도로 적었다.

경남체고 황몽환선수는 경량급에서 보기도물게 키가 커 기대를 했는데 경향부족으로 2회전에서 탈락했고 준준결에서 동성고 김진홍선수와 동아대 양현석 선수의 대전은 1R말 같은 동성고출신인 양현석선수에게 기권함으로써 양현석선수는 준결진출이 용이하였고 동아대 지재기 선수를 판정으로 이기고 올라온 한국체대 서성교선수를 맞아 근소한 차로 결승에 진출하였다.

실업팀 지하철의 전동준을 준준결에서 물리친 한국체대의 서보훈선수는, 풍생고 조영국 선수를 제압하고 준결에 진출한 상무의 신재현을 맞아 우세를 주고 받다가 경고 하나로 결승에 어렵게 진출했다. 결승에서 양현석 선수를 맞아 신재현은 판정승하여 우승을 안았다.

◇플라이급

고교생 13명, 대학생 19명, 일반 6명 등 38명이 출전하였다.

8강에 진출한 A조의 전용환(경기도협회) 권영수(성동고) 김영수(동아대), 정동현(서울체고)과 B조의 장종원(경상대), 김태환(한국체대), 송인환(경희대), 인해진(지하철공사)의 대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백전노장 전용환 선수가 권영수 선수에게 판정패당하고 김영주 선수가 정동현에게 패함으로 4강에서는 A조 준결승에서 고교생들끼리 맞섰고 B조에서는 장종원 선수가 김태환에게 패하고 송인환 선수가 백전노장 인해진 선수에게 패해 대학과 실업팀의 한판이 되었다. 준결승에서 승리한 정동현과 인해진 선수의 대전은 인해진 선수의 부상으로 정동현 선수가 결승에 가깝게 안착하였다.

정동현 선수는 대진운도 좋아 계명대 임성욱 선수의 체계실격으로 1차전은 부전승, 2차전에서는 이종선 선수를 제압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3차전은 김영주 선수를 3:1로 제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고 4차전에서는 1회전에 2득점을 올려 승세를 굳히는 듯 2회에서 원발뒤돌려차기로 상대를 다운시켜 2득점을 얻었으며 3회에서는 기권승으로 결승에 오르는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다.

◇밴텀급

고교생 25, 대학생 31, 일반 6명 등 62명이 출전한 밴텀급에서는 8강에 진출한 선수 중 4조에 조정현(풍생고), 김유창(송실고), 전대식(인천전문대), 김성진(송곡고), B조에 이안호(부산체고), 하태경(한국체대), 심우현(동아대), 권오철(청주대)의 대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A조에서 조정현이 김유창을 제압했고 김성진이 전대식을 제압 조정현과 김성진이 준결승전에서 겨루어 김성진이 결승에 먼저 진입했다. B조에서는 하태경이 이안호를 심우현이 권오철을 제압했다 결승에서 신인 김성진 선수가 하태경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하였다.

◇페더급

고교생 25명, 대학 37명, 일반 5명 등 67명으로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체급으로써 8강에

진출한 선수중 A조에는 민태남(한국체대), 장혁(한국체대), 강창모(동아대), 최효석(성균관대) 선수가, B조에는 정홍주(성균관대), 오상명(서울체고), 김태형(경희대), 임석섭(상무) 선수가 진출하였다.

A조에서 민태남대 장혁의 대전은 같은 대학의 선후배로 코치없이 2학년에게 양보한 듯한 경기로 장혁 선수가 승리 최효석 선수를 제압하고 준결에 오른 강창모 선수와 준결승에서 신장이 8cm나 적은 강선수가 1회 우세를 보여 선전하였으나 2-3회전에 밀려 판정패 하였다.

B조에서는 오상명이 정홍주를, 김태형이 임석섭을 제압하였고, 준결승에서 김태형이 오상명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장혁 선수에게 패해 2위에 머물렀다.

◇라이트급

고교생 17명, 대학생 24명, 일반 5명 등 46명의 선수가 출전한 라이트급 8강진출선수중 A조에는 박진석(성동고), 김관석(경상대), 한재구(현대자동차), 박호상(상무) 선수가, B조에는 김광수(풍생고), 김찬구(화랑체육관), 박세진(서울체고), 김홍철(상무) 선수가 진출하였다.

A조에서 박호상을 제압하고 올라온 한재구가 박진석을 제압한 김관석을 준결승에서 만나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하였고, B조에서 김광수를 제압하고 김찬구가 4강에 올라, 김홍철을 제압하고 4강에 오른 박세진을 맞아 이겨 김찬구가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백전노장 한재구는 28才의 나이를 뛰어넘어 김찬구를 제압 라이트급 정상에 안착하였고, 이번대회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된 박세진 선수(서울체고)는 178cm 신장에 기본기가 갖춰져 유망 선수로 부각되었다.

◇웰터급

고교생 11명, 대학생 20명, 일반 2명 등 33명이 출전한 라이트급에서는 8강에 진출한 선수중 A조에는 이현석(동성고), 강철규(계명대), 김태형(한국체대), 차광재(유도대) 선수가 진입했고, B조에는 박세홍(경희대), 진정우(상무), 박종상(경상대), 최충복(동의대) 선수가 진입했다.

A조에서는 신예 이현석선수가 강철규를 제치고 준결에서 강호 김태형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섰고, B조에서는 진정우가 박세홍을 제치고 박종상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이현석에게 2R 마치고 기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신예 이현석(동성고) 선수는 193cm의 큰 키에 품은 엉성하지만 리치가 길어 밀어차기등 유리한 점이 많고 코치(김세혁)와 호흡이 잘 맞아 마치 컴퓨터로 원격조정하는 듯 매경기마다 3~4점을 얻어 승리해 국가대표 유망주로 꼽혔다.

◇미들급

고등부 7명, 대학부 12명, 일반 3명 등 전체 22명이 출전한 미들급에는 8강에 A조에서 김제경(동아대), 공두환(경희대), 박은석(상무), 박종범(한국체대) 등이 진입했고 B조에서는 정주석(한국체대), 김형태(전남체고), 구기정(대전체고), 황현달(관악고) 등이 진입하였다.

A조에서는 공두환 선수가 김제경을 제압하고 4강에 올라, 박은석을 제압하고 4강에 오른 박종범을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B조에서는 김형태를 제압한 정주석이 4강에 올라, 구기정을 제압하고 올라온 황현달 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정주석 선수가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이미 최종선발에 오른 선수들의 대전이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유감스러웠다.

◇헤비급

고등부 7명, 대학부 16명, 일반 8명 등 31명이 출전해 8강에 A조에서 이계행(광주시협회), 박진범(동성고), 이건원(한국체대), 노신(경기도 협회) 선수가 B조에서는 도한진(유도대), 김정태(경기대), 김재옥(동아대), 최상진(상무) 선수 등이 진출하였다.

A조에서 이계행이 박진범을 제압, 노신을 제압하고 올라온 이건원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B조는 노신을 제압하고 김정태가 김재옥을 제압한 최상진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김정태는 이계행을 판정승으로 누르고 우승을 하였다.

이번 1차선발전을 통해 대학부 선수들의 기량이 고등부, 일반부, 실업팀에 비해서 우월하였

으며 실업팀소속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별참가 현황을 보면 고교 136명, 대학 173명, 일반 39명으로 일반부의 참가율이 대학부에 비해 약 22%로 다른 운동에 비해 조노(早老)하는 결과를 나타내 실업팀의 수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돼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실업팀 육성을 활성화하여야 된다는 숙제를 남겼다 하겠다. *

입상선수명단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급	1	신재현	상무
	2	양현석	동아대
	3	서보훈	한국체대
플라이급	3	서성교	한국체대
	1	정동현	서울체고
	2	인해진	지하철공사
밴텀급	3	권영수	성동고
	3	김태완	한국체대
	1	김성진	송곡고
페더급	2	하태경	한국체대
	3	조정현	풍생고
	3	심우현	동아대
라이트급	1	장혁	한국체대
	2	김태형	경희대
	3	강창모	동아대
웰터급	3	오상명	서울체고
	1	한재구	현대자동차(주)
	2	김찬구	화랑체
미들급	3	김관석	경상대
	3	박세진	서울체고
	1	이현석	동성고
헤비급	2	진정우	상무
	3	김태형	한국체대
	3	박종상	경상대
미들급	1	정주석	한국체대
	2	공두환	경희대
	3	박종범	한국체대
헤비급	3	황현달	관악고
	1	김정태	경기대
	2	이계행	조선대 대학원
헤비급	3	이건원	한국체대
	3	최상진	상무

'89년 한국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

5.23~24, 국기원



김 봉 기
경기분과위원장



여성심판원들

- 참가자격 : 중등부이상 유품 유단자로서 '89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특전 : 본대회 우승자는 제2회 여자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2위자 중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은 제3회 월드컵에 파견된다.

23일 11시에 거행된 개회식에서 홍중수부회장이 대독한 대회사에서 세계스포츠의 흐름은 남녀가 대등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 태권도는 이에 부응하여 각종국제대회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있다며 재삼 여성태권도인의 분발을 촉구하였다.●각 체급별 경기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 가 팀	44개팀
참가인원	182명
참가부별 현황	
중 등 부	19명
고 등 부	131명
대 학 부	28명
일 반 부	2명

△핀급 (43kg 까지)



김지향 선수
핀급 1위

중등부 6명, 고등부 14명, 대학부 2명을 포함한 22명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는데, 권은주(광명상고), 김지향(철산여중), 장이숙(상명여대), 이화진(영신여고)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A조는 득점이 눈에 떨 정도로 좋은 권은주 선수가 김지향 선수를 만나 게임을 풀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고 B조의 이화진 선수대 장이숙 선수의 대전에서는 이화진 선수의 판정승으로 결승에서 김지향 선수와 이화진 선수가 겨루어 중학3년생인 김지향 선수가 1:0으로 우승, 영예의 국가대표선수로 선발, 화제를 모았다.

한편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에서 원선진 선수를 물리쳐 두각을 나타냈던 유수진(오산 여중고) 선수는 강호 이화진 선수를 만나 3:3 동점을 이루어 라운드시스템에 의해 아깝게 판정패, 8강에 머물고 말았다.

△플라이급 (43kg 초과-47kg 까지)



원선진 선수 플라이급 1위

중등부 5명, 고등부 18명, 대학부 2명을 포함 25명이 출전한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배은정(성신여대), 박은미(여주중앙여고), 원선진(수성여중), 강경숙(상명여대)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A조의 배은정 선수 대 박은미 선수의 대전은 박은미가 득점없이 우세로 결승에 안착했다. B조의 원선진 선수와 강경숙 선수의 대전은 2:2 우세로 원선진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여 박은미 선수와 겨루었다.

1회전에서 선취득점한 원선진 선수는 2-3회전에 점수를 지키며 우세를 보여 1:0 판정승했다. 원선진 선수는 핀급에서 한체급 올려 출전하여 승리한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하겠다.

△밴텀급 (47kg-51kg)



정남숙 선수 밴텀급 1위

중등부 3명, 고등부 26명, 대학부 4명 등 33명이 출전하여 체급중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 자웅을 가렸다. 박현숙(유도대), 정남숙(천안여고), 박동선(성신여대), 이희정(은광여고) 선수 등이 4강에 진입, A조에 박현숙 선수 대 정남숙 선수 대전은 정남숙 선수가 2:1로 결승에 올랐고, B조에서는 박동선 선수와 이희정 선수가 겨루어 3:0으로 박동선 선수가 승리하였다.

결승에서 정남숙 선수와 박동선 선수가 만나 1회 우세를 박선수가 빼앗고, 2회 1:0에 두선수 모두 경고를 받으며 분전, 3회에서 우세를 뽑아낸 박선수가 아깝게 분패, 정남숙 선수에게 국가대표의 영광이 돌아갔다.

△페더급 (51kg-55kg)



김소영 선수
페더급 1위

중등부 3명, 고등부 21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명이 출전했다.

권혁실(문성여상), 박경숙(제주중앙여중), 김윤희(영신여상), 김소영(경기도협회) 선수가 4강에 진입, A조 권혁실선수 대 박경숙선수의 경기는 박경숙선수가 1:1 우세로 결승에 진입했고, B조에서는 김윤희선수 대 김소영선수가 겨루어 3:0으로 백전노장 김소영선수가 결승에 안착했다. 박경숙선수 대 김소영선수의 경기는 김소영선수가 1:0으로 판정승하여 관록을 과시하였다.

△라이트급 (55kg-60kg)



이은영 선수
라이트급 1위

중등부 1명, 고등부 21명, 대학부 4명을 포함 26명이 출전하였다.

이은영(경희대), 남정동(성신여대), 조항미(인천체고), 정은옥(상명여대) 선수들이 4강에 진입했다. A조 이은영선수는 화려한 경력답게 3:1로 남정동선수를 제압 결승에 진입했다. B조는 정은옥선수가 조항미선수를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노련한 이은영선수가 정은옥선

수를 제압하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에 복귀하는 영광을 안았다.

△웰터급 (60kg-65kg)



김지숙 선수
웰터급 1위

중등부 1명, 고등부 12명, 대학부 4명, 일반부 1명을 포함, 18명이 출전하였다.

노경미(경희대), 박경희(고양종고), 김지숙(경기도협회), 이선희(문성여상)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A조는 노경미선수와 박경희선수의 대전으로 박경희선수가 3:2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B조에서는 김지숙선수가 이선희선수를 1:0으로 제치고 다시 국가대표에 복귀하였다.

△미들급 (65kg-70kg)



김현희 선수
미들급 1위

고등부 12명, 대학부 3명을 포함 15명이 출전했다.

박혜영(인천체고), 양인덕(상명여대), 김기옥(영신여고), 김현희(경희대) 선수가 4강에 진입하였다. A조에서 양인덕선수를 박혜영선수가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백전노장 김현희선수가 김기옥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 신에 박혜영

선수를 제압하고 다시한번 국가대표에 복귀하였다.

△헤비급(70kg 이상)



정완숙선수
헤비급 1위

고등부 9명, 대학부 4명 등 모두 13명이 출전했다. A조에는 강팀들이 초반전부터 불꽃튀기는 열전을 벌였다.

이성미선수가 박은주선수(영신여고, 개인선수권 1위·중고연맹 1위)를 6:1로 물리치고, 다음 백영미선수를 제압 4강에 올랐으나 정완숙선수(성신여대)에게 패해 3위에 머물렀다. B조에서는 무병의 장철(영신여고)선수가 문성여상의 김태희선수를 제치고 결승에서 백전노장 정완숙선수와 싸워 판정패해 2위에 머물러 정완숙선수가 헤비급의 정상에 차지하였다.

■경기평가

이번대회에는 44개팀에 182명이 지방별로 고루 출전하여 전국체전 여자종목채택의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부 131명에 비해 대학부는 28명으로 21%에 해당되고 여자고등부선수들의 대학진학이 좁아짐을 뜻한다고 볼 때 태권도 특기를 가지고 입학한 대학선수들의 실력이 저조함은 기량연마에 게을리했다는 결과로 보이며, 이는 후배들의 대학진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대학부 선수들은 간파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량급에서 중학생 2명이 우승을 차지한 것이 고등부 선수들에게는 자각과 반성의 기회를 준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경기기량면에서는 남자선수들이 높은발 사용을 주로 하는 것에 비하면 몸통공격과 받아차기

등의 소극적인 자세가 국제대회를 목전에 두고 볼 때 걱정과 염려를 낳는다. 특히, 신장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대담하고 적극적인 공격과 스피드향상에 주력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태권도 관계자들은 말했다.

선발된 국가대표선수들은 물론, 지도자는 '88 서울 올림픽 여자부 태권도 시범경기를 거울삼아 각 자의 기량을 재점검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기량연마에 주력해야 할 줄로 본다. *

'89 한국여자대표선수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김 지 향	철 산 여 중
	2	이 화 진	영 신 여 고
	3	권 은 주	광 명 상 고
	3	장 이 숙	상 명 여 대
플라이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박 은 미	여수 중앙 여고
	3	배 은 정	성 신 여 대
	3	강 경 숙	상 명 여 대
밴 텡 급	1	정 남 숙	천 안 여 고
	2	박 동 선	성 신 여 대
	3	박 현 숙	유 도 학 교
	3	이 희 정	은 광 여 고
페 더 급	1	김 소 영	경 기도 협 회
	2	박 경 숙	서귀 중앙 여중
	3	권 혁 실	문 성 여 상
	3	김 윤 회	영 신 여 고
라이트급	1	이 은 영	경 회 대
	2	정 은 옥	상 명 여 대
	3	남 정 동	성 신 여 대
	3	조 향 미	인 천 체 고
웰 터 급	1	김 지 숙	경 기도 협 회
	2	박 경 회	고 양 종 고
	3	노 경 미	경 회 대
	3	이 선 회	문 성 여 상
미 들 급	1	김 현 회	경 회 대
	2	박 혜 영	인 천 체 고
	3	양 인 덕	상 명 여 대
	3	김 기 욱	영 신 여 고
헤 비 급	1	정 완 숙	성 신 여 대
	2	장 철	영 신 여 고
	3	이 성 미	상 명 여 대
	3	김 태 희	문 성 여 상

'89년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5.25~26, 국기원

◇ 개요

1. 참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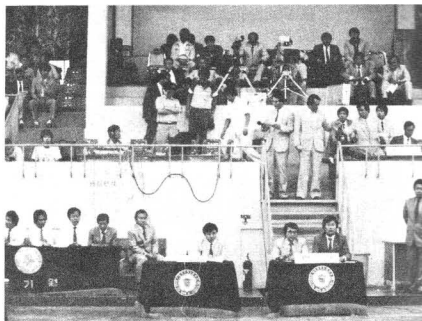
- 1) 88년도 국가대표 각 체급 1, 2위 자
- 2) 88년도 우수선수선발대회 각 체급 1위 자
- 3) 89년도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 각 체급 1·2위자 등이며 체급변경 은퇴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체급은 89년도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 3위자(2명) 중 기량우수자를 협회 선수 강화분과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2. 경기방식 : 각 체급 5명이 풀리그방식에 승자승원칙을 적용하되 3명이 동률인 경우 재경기를 실시한다.

3. 기타 1) 각 체급 1위자는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89. 10. 9~14. 서울) 출전

2) 각 체급 2위자는 제3회 월드게임(89. 7. 21~23. 서독 칼스루헤) 파견

이번 대회 고등부에서는 서울체고 2명, 동성고 1명, 송곡고 1명, 상동고 1명 등 4개교에서 5명과 대학부에서 한국체대 9명, 경희대 4명, 동아대 3명, 경기대 3명, 경상대 2명 등 5개교에서 21명, 실업팀으로 현대자동차 3명, 지하철공사 1명 등 2개팀에서 4명이 출전했고, 기타



MBC T.V에서 국가대표최종선발전을 중계방송해 태권도 홍보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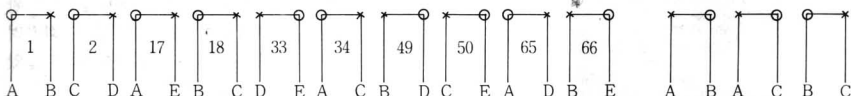
국군체육부대 7명, 광주직할시협회 1명, 전북협회 1명, 대구지성체육관 1명 등 각 체급 5명씩 8체급에 40명이 자웅을 가렸다.

▲핀급

첫 경기는 권태호(경희대)대 임창섭(경기대)의 경기로 시작되었는데 뛰어 몸돌려 뒷차기, 받아차기 등 빠른 몸 놀림으로 득점을 주고 받아 3:2로 권태호가 판정승하였고 두번째(17번) 대전에서 신재현(상무)을 맞아 1R 1득점, 2R

핀 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권 태 호			○	○	○	○	4		1	경 회 대
B	임 창 섭	×			○	×	×	1	3	3	경 기 대
C	이 경 호	×	×			○	×	1	3	5	경 회 대
D	양 현 석	×	○	×			×	1	3	4	동 아 대
E	신 재 현	×	○	○	○			3	1	2	상 무



권태호
핀급 1위

경고를 하나씩 받으며 1점씩도 받아내며 우세를 빼앗기고, 3R 1득점씩 뽑아내 3:2로 2승을 올렸고, 3번째(34번) 경기에서는 이경호(경희대) 선수가 1회 11초경에 기권을 함으로 3승에 안착했고 4번째(65번)는 양현석을 맞아 1R 1

득점, 2회 우세, 3회 1분20초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공격해 다운을 시켰으며 4승으로 핀급의 왕자가 되었다.

한편 신재호(상무)는 임창섭, 이경호, 양현석을 제압하고 3승 1패로 2위에 입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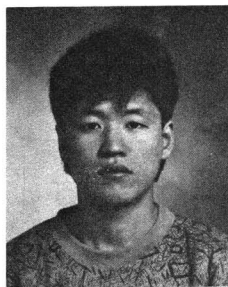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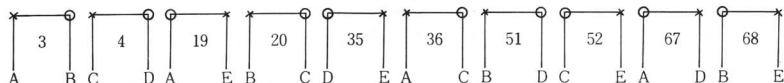
▲플라이급

플라이급경기는 어느 체급보다도 상대적임을 보여준 경기이었다. 고등부강호 정동현은 정재정을 이기고 김철호(한체대)는 정재정(대구지명체)에게 패했으나, 정동현을 이겨서 정동현과 김철호가 동률 3승 1패였으나, 승자승 원칙에 의해 김철호에게 1위를 내주고 정동현은 2위에 머물러야 했다. 신에 정동현의 점프뒷차기와 공격해 들어오는 선수발들어 내려차기는 가히 일품이라고 관중들은 입을 모았다.

백전노장 인해진과의 경기에서는 2회에 무려 4득점을 올리는 등 선전하였다.

플라이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정 재 정			×	×	○	○	2	2	4	대구지성체육관
B	권 영 수	○			×	×	○	2	2	3	성 동 고
C	정 동 현	○	○			×	○	3	1	2	서 울 체 고
D	김 철 호	×	○	○			○	3	1	1	한 국 체 대
E	인 해 진	×	×	×	×				4	5	지 하 철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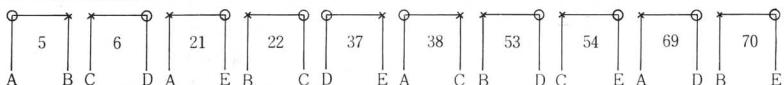
김철호
플라이급 1위

▲밴텀급

·함준 (한국체대) 선수가 4승으로 밴텀급의 왕

밴텀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하태경			○	○	×	×	2	2	3	한국체대
B	지용석		×		×	×			4	5	상무
C	김성진		×	○		×	×	1	3	4	송곡고
D	함준		○	○	○		○	4		1	한국체대
E	조영남		○	○	○	×		3	1	2	동아대



함준
밴텀급 1위

자가 되었다. 김성진(송곡고)과의 대전은 3회전 모두 우세로 우세승을 한 함준선수는 두번째(37번) 대전에서 조영남(동아대) 선수와의 불꽃튀는 접전을 벌렸다. 1회 2:1, 2회 1:1에서 우세를 빼앗겼고 3회 1득점을 하여 4:2로 완승을 하였으나 패기로 2·3회 실점을 만회하려는 조영남의 선전도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으나 높이 살만한 기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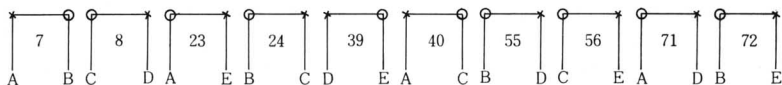
한편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지용석(상무)선수가 슬럼프기간인듯 계임을 풀지 못하고 4패를 했고 조영남선수가 3승1패로 2위에 입상하여 월드게임 출전티켓에 머물렀고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하태경은 한체급 올려 도전을 하였으나 2승2패로 3위에 그치고 말았다.

▲페더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등의 전국대회규모에서 3체급을 석권하며 승승장구 하던 강창모(동아대)가 첫번째로 만난 장혁(한체대)을 맞아 1:1 우세를 내주고 2회 1득점을 내주며 계임을 풀지 못하고 라인밖 경고를 받으며 3회에서도 만회를 못하고 2:1로 패했고 장혁선수는 두번째 경기에서 같은 대학의 김병철을 맞아 3회초 주심직권승을 거두고, 김태형(경희대)과의 경기에서는 5:3 완승을 하고 이제범을 판정

페 더 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강 창 모			×	×	○	○	2	2	3	동 아 대
B	장 혁		○		○	○	○	4		1	한 국 체 대
C	김 병 철		○	×		○	○	3	1	2	한 국 체 대
D	김 태 형		×	×	×		×		4	5	경 회 대
E	이 제 범		×	×	×	○		1	3	4	경 기 대



장 혁
페더급 1위

경상대 김관석은 4패로 5위에 그쳤고 박세진(서울체고) 김찬구(현대자동차), 이창건(상무) 등 세선수는 2승2패 동률로 재경기를 치루어 2승을 한 박세진이 2위 입상했고 서울체고는 2명이 출전하여 모두 2위에 입상 서독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대승
라이트급 1위

승으로 가볍게 제치고 4승으로 페더급의 새로운 왕자의 자리에 올랐고 김병철(한체대) 강창모·김태형·이제범(경기대)을 차례로 제압하고 2위에 입상을 하여 한체대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하였다.

▲라이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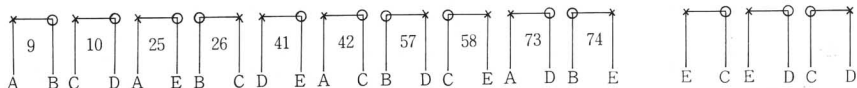
한국체대의 양대승선수가 4승으로 8회 세계 대회에 이어 9회 세계 대회의 출전 티켓을 따냈다.

▲웰터급

최종전 전경기를 통해 가장 관심을 끈 경기였다.

라이트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김 관 석			×	×	×	×		4	5	경 상 대
B	양 대 승		○		○	○	○	4		1	한 국 체 대
C	박 세 진		○	×		×	○	2	2	2	서 울 체 고
D	김 찬 구		○	×	○		×	2	2	3	현 대 자 동 차
E	이 창 건		○	×	×	○		2	2	4	상 무



김용수(현대자동차)와 이현석(동성고)의 대전은 1회 2:1, 2회 1:2, 3회 1:1 우세로 4점씩을 주고 받으며 신에 이현석의 우세승, 간발의 차로 진 김용수선수는 첫경기 실패이후 슬럼프에 빠져 4패로 5위에 머물렀고 이현석·진정우(상무) 박봉권(한체대) 등 세 선수가 3승 1패로 동률. 재경기 1차전에서 박봉권 선수에게 패했던 것을 역승시키고 5:3으로 진정우를 제압해 이현석 선수가 웰터급 왕좌에 올랐고 재경기에서 1승을 한 진정우선수가 2위에 안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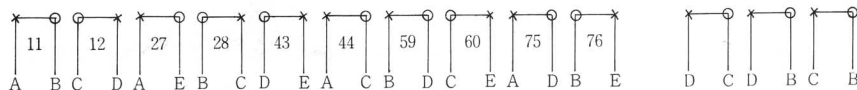
경기번호 59번 이현석과 박봉권의 대전은 같은 동성고 4년선후배 사이. 코치 김세혁 선생의 지도를 받고 한국체대에 진학한후 옛제자에게

새로 가리킨 제자를 데리고 나와서 도전하는 아 이러니컬한 상황이었다. 코치와 선수가 호흡이 잘 맞고, 이현석 선수는 신인이라 경기스타일이 분석되지 않아 거의 모든 선수가 고전을 하였으나 동성고 출신인 백전도장 박봉권은 2:0으로 이현석을 물리쳤다.

그러나 재경기에서는 전력을 가다듬어 이현석 선수가 우세승으로 박봉권을 물리쳐 화제를 만들기도 했다. 경기진행시 코치와 호흡이 일치되어 코치의 싸인에도 움직여 승리를 한 이현석 선수는 김세혁 코치없이도 홀로설 수 있을까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엉성해 보이면서도 득점력이 좋고 키가 커 잘 다듬으면 훌륭한 재목이라고 태권도인들은 입을 모았다.

웰터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김 용 수			×	×	×	×		4	5	동 아 대
B	이 현 석		○		○	×	○	3	1	1	동 성 고
C	진 정 우		○	×		○	○	3	1	2	상 무
D	박 봉 권		○	○	×		○	3	1	3	한 국 체 대
E	박 종 상		○	×	×	×		1	3	4	경 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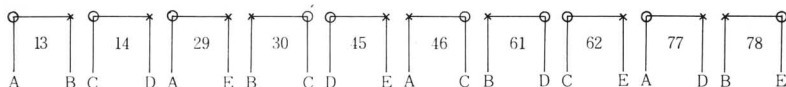
이현석
웰터급 1위

▲미들급

공두환(경희대)대 김현곤(전북협회)의 경기는 중량급답지 않게 몸놀림도 빠르고 격렬해 경고·감전 등을 주고 받으며 4:2로 공두환이 첫 승리를 잡았고, 정용석과의 대전은 1회전 1:1 공두환이 경고를 받았고, 2회전은 2:1 공두환이 승리, 3회전 1:2로 정용석이 경고를 받으며 승리해 4:4 동률이었으나 라운드시스템을 적용 정용석이 판정승하고 공두환 선수는 실

미 들 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공 두 환			○	×	○	○	3	1	2	경 회 대
B	김 현 곤		×		×	×	×		4	5	전 북 협 회
C	정 용 석		○	○		○	○	4		1	현 대 자 동 차
D	박 종 범		×	○	×		○	2	2	3	한 국 체 대
E	정 주 석		×	○	×	×		1	3	4	-



패. 실업팀인 현대자동차에 첫번째 국가대표 선수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화이트 넘치는 경기로 우승후보로 꼽히던 공두환은 정선수와와 1패로, 3승1패의 결과로 2위에 머물고 말았다.



정용석
미들급 1위

▲헤비급

헤비급 5명중 가장 화려한 전적을 보유한 이계행선수가 첫경기에서 이정진(상무)을 제압하고 순항을 하는가 하였으나 3명의 상무 팀 선수를 헤쳐나가는데는 역부족이어서 첫경기부터 무릎부상을 입어 최상진(상무)과의 대전에서 감점을 두개씩 주고받는 격렬한 경기로 3:4로 패한 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 못해 아깝게 중도 탈락했다. 인해전술이랄까..... 남은 경기대의 김정태선수도 우승을 한 최상진 선수를 이기고도 이정진(상무) 김현일(상무) 선수에게 패

해 2승 2패로 3위에 머무었고, 김현일선수가 최상진선수에게 기권함으로 3승 1패의 동률이나 승자승 룰에 의해 최상진 선수가 1위 김현일 선수보다 2위로 상무팀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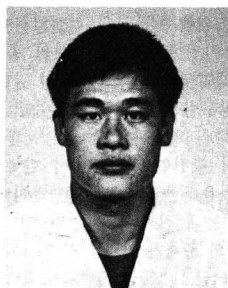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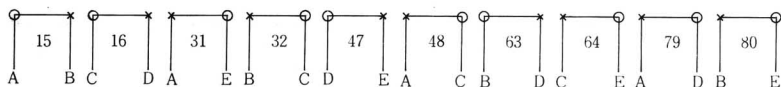
선수가 많이 출전한 리그전에서 한국체육대학, 상무 등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진짜 우수한 기량의 선수를 뽑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밴텀급, 페더급, 미들급 등에는 한국체대가 2명씩 포진되어 있어 같은 학교끼리 대전 때는 경기가 당연스럽게 맥이 빠지고, 양보(?) 내지는 기권을 하였고, 헤비급에는 상무팀 선수가 3명이나 포진해 다른 두 선수는 3:1의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국제무대에 내보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될까 염려스럽다는 시각도 있었다.

대회의 홍보면에서는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M.B.C. TV에서 최종전 경기실황을 생중계하여 중계를 하는 동안 심판원이 회전을 마치고 배심석에 갈 때 숨가빠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이며 심판을 보았고 선수들 역시 승패에 구애없이 경기운명에 임하였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5월 24일에는 동아일보의 5개 매체가 여자국가대표 선발전을 보도했고 25일에는 한국일보의 6개매체, 5월 27일에는 조선일보의 11개매체가 각각 최종선발전의 기사를 실어 홍보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

헤비급

기호	성명	기호	A	B	C	D	E	승	패	등위	비 고
A	이 계 행			○	×	×	×	1	3	4	조 선 대 학 원
B	이 정 진		×		×	○	×	1	3	5	상 무
C	김 현 일		○	○		○	×	3	1	2	
D	김 정 태		○	×	×		○	2	2	3	경 기 대
E	최 상 진		○	○	○	×		3	1	1	상 무



최상진
헤비급 1위

늘 경기장에서 심판판정문제로 경기장질서가 어수선하였으나 경기장에는 선수·코치, 심판원과, 계시원 외는 출입이 통제되고 경기위원 및 각종 행사요원도 경기장 밖에서 업무수행을 해 경기장도 질서가 있었고, 심판원 배정도 본회 강원식 전무이사, 임춘길 사무국장, 황춘성 기술심의회의장, 권경우 지도위원, 박현섭 심판위원장 등의 5인의 심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심판위원들의 판정이 공정해 코치의 반발이나 항의 등이 적어 바람직한 풍토 조성이 되고 있다고 각 팀의 지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의 지도자는 습관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자로서 자숙해야 할 문제라 여긴다.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권 태 호	경 회 대
	2	신 재 현	상 무
	3	임 창 섭	경 기 대
플라이급	1	김철호	한 국 체 대
	2	정 동 현	서 울 체 고
	3	권 영 수	성 동 고
밴 텀 급	1	함 준	한 국 체 대
	2	조 영 남	동 아 대
	3	하 태 경	한 국 체 대
페 더 급	1	장 혁	한 국 체 대
	2	강병철	한 국 체 대
	3	강창모	동 아 대
라이트급	1	양대승	한 국 체 대
	2	박세진	서 울 체 고
	3	김찬구	현대자동차✓
웰 터 급	1	이현석	동 성 고
	2	진정우	상 무
	3	박봉권	한 국 체 대
미 들 급	1	정용석	현대자동차✓
	2	공두환	경 회 대
	3	박종범	한 국 체 대
헤 비 급	1	최 상 진	상 무
	2	김 현 일	상 무
	3	김 정 태	경 기 대

특집 II

제 24 회 대통령기 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 1989. 6. 27~30 강릉상고 체육관 —



개회식 지휘를 한 강원도협회
김광빈 사범은 지휘도 잘했지만
대회기간중 곳곳에 앞장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개회식 모습)

1966년 10월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일반부 경기를 시작으로 89년6월 지금의 대회까지 한 해도 거름이 없이 태권도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통령기 타기 대회를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강릉상고체육관에서 4일간 개최하였다. 강릉상고 밴드부의 주악에 맞추어 국민의례,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반환등의 순서에 이어 강원식전무이사의 대회선언, 김운용회장을 대신한 홍종수부회장의 대회사 대독, 강원도 도지사를 대신해 임정섭 동해출장소장

의 축사, 안재현 강릉시장의 환영사, 김재영(설악케이블카)선수와 박현섭 심판위원장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보겠다는 선언 등으로 개회식을 마쳤다.

고등부 61개팀 393명, 대학부 18개팀 133명, 일반부 13개팀 75명 등 총 92개팀에서 601명이 출전한 이번대회는 첫날 고등부 170게임, 둘째날인 6월28일엔 고등부 90게임, 대학부 69게임, 일반부 16게임 등, 175게임을 치루고 대회 3일째는 부별 4강전만을 남겨두고 3일째 경기를 마쳤다.

6월 29일 각부 경기전적

◇고등부경기

▲핀급

57명의 선수가 출전한 핀급에서는 8강에 오른 민경필(대전체고) 유주현(전주공고) 유성호(예산고) 맹성재(동성고) 이상호(리라공고) 김인경(성동고) 정현섭(송곡고) 박석근(금천고) 선수 등 8명이 겨루어 A조에서는 민경필선수가 유주현을 제치고, 유성호선수가 3연패를 향해 돌진하는 강호 동성고 맹성재를 제압하고 4강 A조 선수그룹에 안착했고, B조에서는 이상호선수가 김인경선수에게 패해 8강에 머물렀고, 정현섭선수는 박석근선수를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플라이급

55명의 선수가 출전한 플라이급에서는 이원준(진광고) 강동범(남주고) 채우병(강원사대부고) 장용준(영천고) 박재성(부산체고) 박은식(대성고) 권영수(성동고) 이강희(예산고) 선수 등이 8강에 올랐다. 4강진입전 A조에서는 강동범선수가 이원준선수를 제압했고, 채우병선수가 장용준선수를 제치고 4강에 올랐고, B조에서는 박재성선수가 박은식선수를 제압했고, 이강희선수가 강팀인 성동고 권영수를 물리치고 4강에 진입하였다.

▲밴텀급

본대회에 출전한 체급중 가장 많은 선수인 58명이 참가한 밴텀급에서는 8강에 이호범(동명공고) 정태호(남주고) 박재석(송림고) 김경우(풍생고) 성대중(강원사대부고) 윤남식(전주공고) 이안호(부산체고) 김수(동성고) 선수 등이 8강에 올랐다. 4강진입전에서 정태호선수가 이호범선수를 제압했고, 박재석선수가 김경우선수를 제압하여 A조에서 4강에 선착했고, B조에서는 성대중선수가 윤남식선수를, 김수선수가 이안호선수를 제압하여 4강에 올랐다.

▲페더급

57명의 선수가 출전한 페더급에서는 김삼용(포항수고) 국찬호(동성고) 채영식(인천광성고) 안정근(청주신흥고) 강재구(경상공고) 김상수(전주공고) 김병곤(대전체고) 권혁훈(제주오현

고) 선수가 8강에 진입했다. 4강진입전에서 국찬호선수가 포항수고 김삼용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었고, 안정근선수가 채영식선수를 제압하고 A조 4강에 올랐고, B조에서는 강재구선수가 김상수선수를, 김병곤선수가 권혁훈선수를 제압하고 4강에 진입했다.

▲라이트급

55명이 출전한 라이트급에서는 이동희(부평기술고) 백천만(승실고) 박의성(청주신흥고) 이시용(송공고) 김공배(동명공고) 정일권(부산체고) 성봉훈(한일고) 김광수(풍생고) 선수가 8강에 진입했다.

4강 진입전에서 A조에 백천만선수가 이동희선수를 제압했고, 박의성선수가 이시용선수를 제치고 4강에 진입했고, B조에서는 정일권선수가 김공배선수를 제압했고, 김광수선수가 성봉훈선수를 제치고 4강에 진입하였다.

▲웰터급

46명이 출전한 웰터급에서는 신경수(대전체고) 신원덕(경남체고) 용삼원(목포고) 유웅조(인천체고) 김득영(포항수산고) 김정구(선인고) 최정복(동성고) 남양우(환일고) 선수가 8강에 올랐다.

4강진입전에서 신원덕선수가 강호 대전체고 신경수선수에게 1회종료 기권승을 얻어내는 행운을 안았고, 유웅조선수가 용삼원선수를 제압해 A조에서 4강에 올랐다. B조에서는 김득영선수가 김정구선수를 제압했고, 최정복선수가 남양우선수를 제치고 4강에 안착했다.

▲미들급

34명이 출전한 미들급에서는 8강에 오른 이상근(정명고) 선수가 황일선(대전체고) 선수를, 이현석(동성고) 선수가 강승수(제주오현고) 선수를 제압하고 A조에서 4강에 진입했고, B조에서는 모진석(풍생고) 선수가 김현주(제원고) 선수를, 주의홍(리라공고) 선수가 안금호(인천광성고) 선수를 제압하고 4강에 진입했다.

▲헤비급

26명이 출전한 헤비급에서는 이호근(경남체고) 선수가 송근백(전남체고) 선수를, 구기정(대전체고) 선수가 이광섭(경상공고) 선수를



대회장 모습 (강릉상고 체육관)

제압하고 A조에서 4강에 올랐고 B조에서는 이승준(성동고) 선수가 김병윤(명륜고) 선수를, 이재영(한성고) 선수가 김도형(제원고) 선수를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50여명이상 출전한 편, 플라이, 밴, 페더, 라이트급의 선수들은 6회 정도의 경기를 치루어야 정상에 오르나 26명이 출전한 헤비급에서는 3~4회 경기를 치르고 정상에 올라서는 차이가 있어, 태권도선수가 고등부 경량급, 중(中)량급에서 얼마나 입상하기가 어려운가를 실감나게 했다.

◇대학부경기

15명이 출전한 편급에서는 서보훈(한국체대) 지재기(동아대) 강철우(경희대) 박진(광운대) 선수가 4강에 올랐고,

16명이 출전한 플라이급에서는 김성일(인천전문대) 이종선(한국체대) 신장준(청주대) 권태호(경희대) 선수가 4강에 올랐다.

17명이 출전한 밴텀급에서는 이희영(계명대) 양정식(성균관대) 심우현(동아대) 최재우(유도학교) 선수가 4강에 올랐고,

페더급에서는 17명이 출전하여 정홍주(성균관대) 강창모(동아대) 하태경(한국체대) 임성욱(계명대) 선수가 4강에 올랐다.

17명이 출전한 라이트급에서는 신흥재(유도학교) 최종국(동아대) 조광천(경희대) 송원기(계명대) 선수가 4강에 진입했고,

18명이 출전한 웰터급에서는 이종학(경희대) 김성택(조선대) 박종상(경상대) 임태규(청주

대)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중량급인 미들, 헤비급에서도 17명, 16명이 출전해 미들급에서는 송병철(성균관대) 윤순철(경희대) 김제경(동아대) 지성환(인천전문대) 선수가 4강에 올랐고,

헤비급에서는 정택주(조선대) 이진원(한국체대) 김재욱(동아대) 최정주(경상대) 선수 등이 4강에 진입했다.

◇일반부경기

10명이 출전한 편급에서는 전동준(지하철) 김현천(일산체) 이승욱(현대자동차) 선수가 준결승에 올랐고,

12명이 출전한 플라이급에서는 오진근(평택체) 인혜진(지하철) 송영협(설악케블카) 오영주(국군체육부대)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일반부체급중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밴텀급(13명)에서는 창단준비를 하고 있는 실업팀에서 조직된(현대정공) 함식(전남협회) 권기문(지하철공사) 유명식(현대자동차) 선수가 4강에 올랐고,

10명이 출전한 페더급에서는 장명삼(설악케이블) 정승환(지하철공사) 허현배(현대자동차) 임석섭(국군체육부대) 선수가 4강에 진입했다.

11명이 출전한 라이트급에서는 김상곤(삼천포체) 한승원(성균체) 고정호(지하철공사) 선수가 준결승에 올랐고,

6명이 출전한 웰터급에는 연기호(국군체육부대) 김용수(현대자동차) 정국현(지하철) 선수가 준결승에 올랐다.

7명이 출전한 미들급에서는 김진기(경기도협회) 정용석(현대자동차) 김병삼(현대정공) 김재건(성균체) 선수가 4강에 올랐고,

6명이 출전한 헤비급에서는 노신(경기도협회) 임재익(현대자동차) 이정진(국군체육부대) 김재영(설악케이블카)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일반부에서는 팀출전 인원인 5명의 선수를 채우기 위해 출전선수 이름만 올린 경향이 있어 계체에서 실격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경기 한번 치루지 않고 준결승, 결승에 오르는 행운을 잡는 선수도 있어, 이것은 문제점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이번 경기가 남겨주었다 하겠다.

6월 30일 준결 및 결승전

결승전을 치르는 6월30일에는 고등부에서는 동성고와 대전체고가 단체우승을 놓고 한판거루었고 대학부에서는 동아대와 경희대로 압축되었고, 일반부에서는 지하철공사와 현대자동차가 우승기를 놓고 겨루었다.

◇ 고등부



고등부 단체우승의 주역들 (동성고 태권도부)

▲핀급

A조에서 우승을 바라보는 대전체고의 민경필선수는 예산고의 유성호선수를 맞아 1회득점을 주고 받으며 우세, 2회 득점없이 우세 3회 열세를 만회하려는 유선수의 공격에 밀렸으나 경고를 얻어내며 1:1로 결승에 올랐다. 두 선수의 경기는 경량급 특유의 빠른 몸놀림과 대등한 기량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한 판이었다.

B조에서는 성동고의 김인경선수와 송곡고의

정현섭선수가 겨루었는데 같은 서울선수로 상대를 너무 잘 알아 공격을 하지 않고 탐색으로 1~2회전을 보내 감점을 받는 등 접전이 없다가 다시 정선수가 경고를 받아 3회에서 우세를 얻은 정선수가 준결에 머물고 말았다.

결승전에서 민경필(대전체고) 선수대 김인경(성동고) 선수의 대전은 1~2회 팽팽한 접전으로 각선수 경고하나씩으로 받아가며 날카롭고 빠른 몸놀림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이렇다할 득점이 없다가 3회2분40초경 김인경선수의 뒷차기에 이은 돌려차기로 2득점 뽑아내 이번 대회의 핀급의 고등부왕자가 되었다.

▲플라이트급

A조에서 신에 제주 남주고의 강동범선수와 강원사대부고의 신에 채우병선수의 대전은 득점없이 우세를 주고 받으며 1~3회전에서 우세를 뽑아낸 채우병선수가 결승에 올랐고 B조에서는 부산체고의 박재성선수가 예산고의 이강희선수를 맞아 1회전 우세, 2회전 우세 3회전 1득점으로 결승에 안착하였다.

결승전에서는 홈그라운드인 강점을 안고 맹공을 퍼붓는 채선수의 공격을 노련한 박선수 선방, 1회전을 우세로 이긴 박선수는 2회전에서도 깨끗한 득점을 뽑아 냈고 3회전에서는 강원도 임원 선수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을 얻은 듯 2득점을 뽑아 3:2로 강원사대부고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부산체고 코치의 심정에 동정을 보내는 이들은 홈그라운드의 잊점을 계산한 착각일까(?)

▲밴텀급

A조에서 남주고의 정태호선수를 맞은 송림고의 박재석선수는 착실하게 경기를 운영해 1회우세, 2~3회 1득점씩을 얻어내 판정승하였고, B조에서 강원사대부고 성대중은 강호 동성고의 김수선수를 맞아 1회우세, 2회1득점 3회우세를 빼앗겨 판정승, 이번을 낚으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박재석(송림고) 선수를 맞은 성대중(강원사대부고) 선수는, 1~2회 서로 경고를 주고받으며, 2회전에서 1득점으로 기선을 잡은 후 3회전에서 뒷차기로 얼굴공격 후 이어 왼반

들어 내려차기로 R.S.C 승을 거두어, 플라이급에서의 시원하지 않은 동료의 판정에 대해 진짜를 보여주는듯 당당하게 두번째로 강원사대부고에 금메달을 선사해 우승을 다투던 대전체고에 썩기를 막았다.

▲페더급 결승

A조에서는 우승을 바라보는 동성고의 국찬호선수와 청주신흥고의 안정근선수의 대전에서 1회우세를 뽑아낸 국선수는 2회전에서 우세를 빼앗겨 대등한 상황에서 3회 계속 공격한 국선수가 1득점하여 2:1로 결승에 올랐고, B조에서는 경상공고의 강재구와 대전체고의 김병곤의 대전에서 김병곤선수의 일방적인 우세로 3:0판정승으로 김병곤선수가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3연패를 노리는 동성고의 국찬호선수와 우승을 바라보던 대전체고의 김병곤선수의 대전은 태권도 경기는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경기였다. 준결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던 김선수는 국선수를 맞아 1회 경고를 받고, 2회 왼발내려차기에 다운을 당하여, 3회에서도 1득점을 빼앗겨, 3연패의 야심 그득한 동성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라이트급

A조에서 송실고의 백천만선수의 청주신흥고의 박의성선수의 대전에서 1회전은 탐색이 지나쳐 두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 박선수가 2회전은 우세로, 3회전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백선수의 공격은 득점에 연결되지 못하고 우세로 판정으로 패하고 말았다. B조의 부산체고 정일권선수와 풍생고의 김광수선수는 큰 키를 이용하여 1회 우세를 뽑아내고, 2회 우세, 3회 우세를 빼앗겼으나 판정승하였다.

결승에서도 김광수선수는 1회 우세, 2회 두 선수 경고받으며 김선수가 1득점뽑고, 3회에서 1실점하여 김광수선수는 풍생고교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웰터급

신장면에서 중(重)량급임을 느끼며 경기기량면에서도 둔해 보이는 웰터급 준결에서는 A조에서 대전체고의 강호 신경수선수를 1회 기권승으로 이기고 올라온 신원덕(경남체고) 선수

는, 인천체고 유용조선수를 맞아 1회 1실점 2회 우세, 3회 1실점으로 3위에 머물렀고, 유용조선수는 결승에 진출했다. B조에서는 포항수산고의 김득영선수와 강호 동성고의 최정복선수의 대전은 신장 기량면에서 최선수가 우세해 0:3으로 완봉승하였다.

결승전은 3연패를 노리는 동성고의 최선수가 1회 우세, 2회 1득점, 3회 1실점으로 유용조선수를 우세하나로 제치고 동성고에 두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미들급

89년도에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국가대표 일진에 선발된 동성고의 이현석선수는 정명고의 이상근선수를 맞아 1회 경고를 뽑아내고, 2회 2:1, 3회 1득점으로 가법게 결승에 올랐고, B조의 풍생고의 모진석선수는 리라공고의 주의홍선수를 맞아 1:1 우세, 2회 우세, 3회 1:1 우세를 빼앗겨 힘겹게 결승에 도착하였다.

결승에서 모진석선수는 이현석선수를 맞아 3실점에 우세 빼앗기는 일방적인 패배로 2위에 머물며, 반대로 이선수의 주가를 높여주었음은 물론,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본지 편집위원이 경기기록을 하고 있다.
(광주협회 윤웅석 사범)

▲헤비급

A조에 속한 경남체고의 이호근선수는 대전체고의 구기정선수에게 웰터급의 빛을 갚는 듯 기권하여 기권승으로 구선수는 결승에 올랐고, B조에서는 성동고의 이승준선수와 한성고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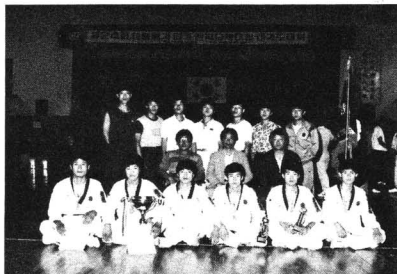
재영선수와의 대전에서 이승준선수는 190Cm의 장신을 살려 1회우세, 2회 1득점, 3회 득점주고 받으며 결승에 안착하였다.

결승에서 대전체고의 구기정선수와 성동고의 이승준선수는 1회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쳐 1:1 우세가 되었고, 2회1득점으로 구기정선수가 기선을 잡았고, 3회에 다시 이승준선수가 1득점을 뽑아내 2:2동점에서 1회우세를 뽑았던 구기정선수에게 승리의 영광이 안겨졌다.

고등부입상자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급	1	김인경	성동고
	2	민경필	대전체고
	3	유성호	예산고
	3	정현섭	송곡고
플라이급	1	채우병	강원 사대 부고
	2	박재성	부산체고
	3	강동범	남주고
	3	이강희	예산고
밴텀급	1	성대중	강원 사대 부고
	2	박재석	송림고
	3	정태호	남주고
	3	김수	동성고
페더급	1	국관호	동성고
	2	김병곤	대전체고
	3	안정근	청주신흥고
	3	김재구	경상공고
라이트급	1	김광수	풍생고
	2	박의성	청주신흥고
	3	백천만	송실고
	3	정일권	부산체육고
웰터급	1	최정복	동성고
	2	유용조	인천체고
	3	인원덕	경남체고
	3	김현영	포항수산고
미들급	1	이현석	동성고
	2	모진석	풍생고
	3	이상근	정명고
	3	주의홍	리라공고
헤비급	1	구기정	대전체고
	2	이승준	성동고
	3	이호준	경남체고
	3	이재영	한성고

◇대학부



대학부 단체우승의 주역들
(동아대 태권도부원들)

▲편급

서보훈(한국체대) 선수를 2:4 경고승으로 어렵게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동아대 지재기 선수는 관동대 박진선수를 1:0으로 이긴 경희대 강철우선수와 결승에서 만났다.

지재기(동아대) 선수와 박진(경희대) 선수의 대전은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주는 참모습이었다. 1회 탐색을 하며 1득점을 선취한 지선수, 2회 강선수의 뒷차기에 실점한 지선은 밀어차기로 강선수를 다운시키고, 이어 받아차기로 득점을 뽑아 2:1로 승세를 굳히며, 3회전에서 맹공을 가하는 강선수를 뒷차기로 득점후, 돌려차기에 실점당하는 등 1:1 우세빼앗겨 4:2로 완봉승하며 동아대에 첫금메달을 안겨주며 대통령기사상 첫 우승의 문을 노크하는데 청신호를 장식하였다.

▲플라이급

한국체대의 이종선선수는 인천전문대의 김성일선수를 1:0으로 판정승하였고, 국가대표 1진인 경희대 권태호선수는 청주대 선강준선수를 2: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 노련한 이종선(한체대) 선수를 맞은 권태호(경희대) 선수는 1회 1:1 우세를 빼앗겼으나, 2회에서 오른발 돌려차기 등으로 2득점을 올렸고, 3회에서 이종선선수의 팽이차기에 1실점하여, 3:2로 노련한 이선수를 제치고 경희대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밴텀급

성균관대의 양정식선수를 시중 우세속에서 1:0으로 이기고 올라온 계명대 이희영선수는, 준결승에서 최재우(유도학교) 선수를 역시 1:0으로 제압하고 올라온 동아대 심우현선수에게 1회전에서 기권하여 동아대에게 단체우승을 도와주는듯한 인상을 풍겨, 단체전의 특징이자 모순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로써 동아대는 금메달 2개를 확보하여 단체우승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페더급

고교시절에 3체급을 석권한 바 있는 강창모(동아대) 선수는 슬럼프에서 벗어난듯 정홍주(성균관대) 선수들을 물리치며 3연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결승에서 계명대의 노련한 임성욱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한국체대의 하태경선수를 맞아 게임을 풀지 못하고 경기를 우세하게 리드하면서도 득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태경선수에게 2:1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서 한국체대는 국가대표 1진 4명을 출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체대의 저력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라이트급

유도학교의 신재홍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도착한 동아대 최종국선수는, 계명대 송원기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경희대 조광천선수를 맞아서 1~2회전을 1:1 우세를 뽑아냈고 3회 1득점 뽑아 3:2로 우승 동아대에 3개의 금메달을 선사하며 단체우승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웰터급

경희대 이종학선수는 조선대 김병기선수를 제압하여 결승에 진출하였고, 경상대 박종상선수도 청주대 임태규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이종학(경희대) 선수는 박종상(경상대) 선수를 맞아 1회 1:1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고를 얻어냈고, 2회 우세를 빼앗기고, 3회 1:1우세 빼앗겼으나 박선수의 경고하나로 어렵게 우승을 하였고, 박선수는 석패하는 불운

을 안았다. 이는 태권도경기에서 룰을 지키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되며, 한편, 주심의 경고하나가 선수에게 사활이 달려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미들급

경희대 윤순철선수는 조선대 김병기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동아대 김제경선수는 인천전문대 지성환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대학부임상자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지 재 기	동 아 대
	2	강 철 우	경 회 대
	3	서 보 훈	한 국 체 대
	3	박 진 관	동 아 대
플라이급	1	권 태 호	경 회 대
	2	이 종 선	한 국 체 대
	3	김 성 일	인 천 전문 대
	3	선 상 준	청 주 대
밴 텀 급	1	심 우 현	동 아 대
	2	이 희 영	계 명 대
	3	양 정 석	성 균 관 대
	3	최 재 우	대한 유도 학교
페 더 급	1	하 태 경	한 국 체 대
	2	강 창 모	동 아 대
	3	김 상 래	청 주 대
	3	임 성 욱	계 명 대
라이트급	1	최 종 국	동 아 대
	2	조 광 천	경 회 대
	3	신 홍 재	대한 유도 학교
	3	손 원 기	계 명 대
웰 터 급	1	이 종 학	경 회 대
	2	박 종 상	경 상 대
	3	김 병 기	조 선 대
	3	임 태 규	청 주 대 학교
미 들 급	1	김 재 경	동 아 대 학교
	2	윤 순 철	경 회 대 학교
	3	김 병 기	조 선 대 학교
	3	지 성 환	인 천 전문 대학
헤 비 급	1	정 택 주	조 선 대
	2	최 정 원	경 상 대
	3	이 건 원	한 국 체 대
	3	김 재 욱	동 아 대

결승 1회전에서 두선수는 신중한 경기운영으로 이렇다할 화이팅없이 우세를 김선수가 얻고, 2회에서는 1:1에서 윤선수가 우세, 3회에서 급격히 체력이 소모된 듯, 윤선수 두손으로 무릎 꿇으며 피로운 표정, 3회에서 김선수는 우세 빼앗아 동아대에 금메달 4개를 안겨주며 종합우승을 확정지어 주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윤선수가 이겼다면 금메달 3개로 금메달 동률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헤비급

조선대 정택주선수는 강호 한국체대의 이진원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선착했고, 경상대 최정주선수는 이번대회의 강팀인 동아대 김재욱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의 모습은 격렬하였다. 정택주(조선대) 선수가 1회 1득점하여 양선수 경고하나씩 받았고 2회전에서는 최정주(경상대) 선수가 1득점, 3회에서는 경고, 감점을 양선수 하나씩 받으며 1:1로 정선수가 우세를 뽑아내 결과는 우세로 승리를 장식하는 모습이 되었고, 조선대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며 대학부 경기의 끝을 맺었다.

◇일반부



일반부 단체우승의 주역들
(현대자동차 태권도부)

▲핀급

지하철공사의 전통준선수는 일산체육관의 김현천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현대자동차의 이승욱선수는 상무의 송명철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지하철공사와 현대자동차의 대결이 핀급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1회 2득점을 선취한 이승욱(현대자동차) 선수는 2회에서 1실점, 3회에서 우세를 내주었으나 1회 2득점으로 2:1로 일반부 첫금메달을 현대자동차팀에게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지하철공사의 백전노장 인쇄진 선수는 평택체육관의 오진근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상무의 오영주선수는 설악케이블카의 노련한 송영협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두선수는 버리기만하고 공격을 하지 않아 경고, 감점등을 받으며 1회전 인쇄진 선수 우세, 2회전에서는 두선수 경고받으며 오영주선수 우세, 3회전에서 인쇄진선수의 우세판정이 나자 상무팀 코치석에서 선수퇴장시키지 않고 판정에 항의 1분여의 경기가 중단되는 등의 소란이 있으면서 지하철공사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밴텀급

현대정공의 조희진선수는 전남협회의 함식선수를 제압하며 결승에 선착하였고, 세계대회 2연패를 한 현대자동차의 유명식선수는 지하철공사의 백전노장 권기문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서 같은 현대그룹계열팀끼리 접전하게 되었다.

1회전은 소강상태로 진행되며 주심이 화이팅을 강요하는 가운데 1:1 우세를 유선수 뽑아냈고 2회전에서는 2:1로 유선수가 이겼고 3회전도 2:1로 유명식선수가 이겨 5:3으로 유선수가 승리해 두번째 금메달을 현대자동차팀에게 안겨주어 종합우승의 고지에 한걸음 다가섰다.

▲페디급

88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설악케이블카의 장명삼선수를 제압한 지하철공사의 정승환선수는 그간의 슬럼프에서 벗어난듯 결승에 안착하였고, 현대자동차의 허현배선수는 상무의 임석섭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1회전에서 두선수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다 두선수 경고를 하나씩 받으며 1득점을 뽑아낸 허선수, 2회전에서는 감점하나씩을 받으며 우세뽑아낸 허선수, 3회전에서도 팽팽하게 맞섰으나 현대자동차 허

현배선수에게 우세가 돌아가 세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이 목전에 도래하였다.

▲라이트급

삼천포체육관의 김상곤선수는 설악케이블카의 배상오선수를 한번의 경기로 이기고 결승에 안착하는 행운을 얻었다.

B조예의 성균관체육관 한승원선수도 한번 싸우지도 않고 준결에 올랐으나, 지하철공사의 고정호선수를 맞아 1회 경기중 부상을 당해 기권 동메달에 머물렀고, 결승에서 백전노장 고정호 선수는 신예 삼천포체육관 김상곤선수의 긴리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2회 중반 기권하여 일반체육도장의 김상곤선수에게 영예의 금메달을 선사하고 말았다.

▲웰터급

현대자동차의 김용수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연기호선수는, 대진운이 좋아 한번도 싸우지 않고 결승에 오른 세계대회 4연패,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지하철공사의 정국현선수를 맞아 선전 3:4로 아깝게 판정패하였다. 은퇴선언을 하고 코치로 변신한 정선수는 팀에 공헌하기 위해 정말로 마지막선수가 되었다며 승리에 안도감을 표하며, 연선수가 안정감있고 실점해도 당황하지 않아 많이 긴장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미들급

경기도협회의 김진기선수를 제압한 현대자동차의 정용석선수는 결승에서, 성균체육관 김재건을 제치고 올라온 현대정공의 김병삼선수가 기권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국가대표 1진인 정용석선수는 쉽게 금메달을 획득하여 현대자동차의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헤비급

경기도협회의 노신선수가 경기진행시 호출 불출장으로 준결을 그냥 통과한 현대자동차의 임재익선수는 설악케이블카 김재영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상무의 이정진선수를 맞아, 1회1득점, 2회 1:1 우세를 뽐으며 선전, 3회 시작 5초경 상무팀 코치석에서 심판교체를 요구,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판중석 선수를 경기장에 집합(군 특유의 명령으로)시켜, 황춘성기술심의의 의장이

이의를 받아들여 심판을 교체한후 3회전 경기를 속행,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된 상무의 이진수, 경고받아 2:1로 임재익선수에게 패하고 말았다.

이번대회에서 5연패를 한 상무팀이 우승을 놓친 것은 주전멤버를 출전시키지 않음이다. 이는 군특유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기에 처음으로 8체급을 출전시켜서 5체급을 석권한 현대자동차의 종합우승은 태권도 실업팀 내일의 청신호임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자동차와 같이 명실상부한 실업팀이 태권도계에 많이 자리할 때, 태권도경기의 활성화를 이루어 질 것이다.

일반부임상자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 승 욱	현 대 자 동 차
	2	전 동 준	서울지하철공사
	3	김 현 천	일 산 체 육 관
플라이급	1	인 해 진	서울지하철공사
	2	오 영 주	국군 체육 부대
	3	송 영 협	설악 케이블카
밴 텀 급	1	유 명 식	현 대 자 동 차
	2	조 회 진	현 대 정 공
	3	함 식	전 남 협 회
	3	권 기 문	지 하 철 공 사
페 더 급	1	허 현 배	현 대 자 동 차
	2	정 승 환	서울지하철공사
	3	장 병 삼	설악 케이블카
	3	임 석 섭	국군 체육 부대
라이트급	1	김 상 곤	삼천포 체육관
	2	고 정 호	서울지하철공사
	3	한 승 원	성 균 체 육 관
웰 터 급	1	정 국 현	서울지하철공사
	2	연 기 호	국군 체육 부대
	3	김 용 수	현 대 자 동 차
미 들 급	1	정 용 석	현 대 자 동 차
	2	김 병 삼	현 대 정 공
	3	강 재 원	성 균 체 육 관
헤 비 급	1	임 재 익	현 대 자 동 차
	2	이 정 진	국군 체육 부대
	3	노 신	경 기 도 협 회
	3	김 재 영	설악 케이블카



지도상을 받은 김중관·김우규 김세혁(세 지도자들이 트로피를 받고 있다)

— 경기를 마치고 —

1) 4일간의 경기가 막을 내렸다.

고등부출전선수 393명에 비해 대학선수 133명은 약 34%에 해당되는 숫자로 66%의 260여명의, 고교생은 대학진학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며, 대학부 출전 133명에 일반부 출전선수 75명은, 외양상 약 58%에 해당되나 실제로는 실업팀에서 출전한 27명(실악케이블 6명, 지하철공사 7명, 현대정공 6명, 현대자동차 8명)을 비율로 보면 20%밖에 되지를 않아 대학졸업후 실업팀에 갈 수 있는 숫자가 극소수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 수치는 대강 정리해 본 것이긴 하나 태권도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번쯤 짚고 넘어야 할 과제이다.

2)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들의 판정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중평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이젠 관중의 경기 관람수준이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에 와 있고, 관중석이 심판원 머리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어느심판이 즉시 채점을 하는지, 하지않는지, 똑똑히 보임으로 즉시 점수를 주지않는 몇몇심판이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다. 어느 곳이나 경기장은 비슷한 여건이며, 많은 관중이 심판원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판정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 받을때 더더욱 공정정대한 경기진행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간 쌓인 심판원의 불신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국대회 지방원정경기사상 처음으로 여성심판원을 등장시켰다. 여성태권도 저변확대에 도움되는 요소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별한 무리가 없는한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4) 결승전을 두코트에서 실시하여 책을 편집하는 간사(한규인)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

으나, 광주협회 계간 태권도지 편집위원 윤웅석 사범이 고등부 결승전을 기록해 주어 현장감있게 결승전을 편집할 수 있었다. 두코트 혹은 세코트에서 경기를 치룰때 이번 경기처럼 지방의 편집위원이 도움을 준다면...아니 각 지방에서 거행되는 큰 대회기사도 정리하여 중앙협회로 올려보내 준다면 태권도 책이 잘 만들어지리라는 생각이다.

5) 단체전의 특징이랄까, 아니면 병폐라고 할까-승패를 주고 받는 사전의 답합같은 일들이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이루어지고 있음이-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코치나 감독이 선수를 상품 취급하는 것으로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글 보시고 앞으로는 답합같은 일은 없으시도록!

6. 국내원정경기에 일선 일간신문사 기자가 상주하며 취재한 일은 최초의 일로써 일간 서울스포츠신문사와 강기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

◎ 단체성적

고 등 부	우 승· 동성고등학교(금3, 동1)
	2 위·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금2)
	3 위· 대전체육고등학교(금1, 은2)
	감투상· 성동고등학교
	장려상· 정명고등학교
대 학 부	지도상· 김세혁(동성고 교사, 코치)
	최우수선수상· 국한호(동성고교)
	우 승· 동아대학교(금4, 동1)
	2 위· 경희대학교(금2, 은3)
	3 위· 한국체육대학(금1, 은1, 동2)
일 반 부	감투상· 조선대학교
	장려상· 판문대학교
	지도상· 김우규(동아대 감독)
	최우수선수상· 심우현(동아대)
	우 승· 현대자동차(주)(금5, 동1)
일 반 부	2 위· 지하철공사(금2, 은3, 동1)
	3 위· 삼천포체육관(금1)
	감투상· 국군체육부대
	장려상· 현대정공(주)
	지도상· 김중관(현대자동차 감독)
일 반 부	최우수선수상· 유명식(현대자동차)

태 권 도 경 기

'89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3.20~25, 국기원



최 준 배
경기분과 부위원장



경기진행에 수고를 한 경기임원들



대표선수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열띤 응원모습

전국중별선수권대회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신인 선수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격은 국기원1품(단) 이상 자로서 89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이다. 단 중등부는 88년 12월 31일 이전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한 전국 규모대회의 중등부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선수들이며, 고등부·일반부(대학부포함)도 88년 12월 31일 이전 본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한 전국규모대회의 고등부 이상에서 입상하지 아니한 선수들이 출전하므로, 명실 공히 신인선수들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선수등용문이다.

중등부는 편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L-웰터급, 웰터급, L미들급, 미들급, L헤비급 등 11체급이며 고등부 일반부는 편, 플라이,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급 등 8체급으로 구분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이번대회는 중등부 435명, 고등부 864명, 일반부(대학부포함) 148명 등 총 1447명이 참가하여 대회사상 최고의 참가를 기록하여 '88서울올림픽이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55명의 체제실격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10명에 1명꼴로 체중조절에 실패하였으며 세분해보면 중등부 435명중 38명이 체제실격, 고등·일반부는 1012명중 117명이 체제실격으로 중등부는 약 0.9%, 고등·일반부 11.4%로 나타나, 11체급으로 구분된 중등부보다는 8체급으로 구분된 고등·일반부의 체중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 측면에서는 서울중심입상에서 지방에서 고루 입상하는 경기력의 평균화가 눈에 띄었고, 일반부에서는 신에 체육선교신학교가 2명의 우승자를 내었고 유도학교, 인천전문대가 나란히 2명의 우승자를 내는 등 두각을 나타내었다.

입상자명단

■ 중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편 급	1	김 용 한	청 주 중
	2	홍 경 수	영 남 중
	3	김 영 철	성 남 서 중
	3	박 연 호	효 성 중
플라이급	1	박 주 성	구 월 중
	2	이 두 건	개 성 중
	3	성 영 준	부 천 동 중
	3	이 완 구	광 명 북
밴 텀 급	1	이 용 백	부 천 동 중
	2	문 진 수	구 월 중
	3	최 정 훈	청 주 중
	3	강 성 일	영 북 중
페 더 급	1	이 종 현	경 수 중
	2	김 준 한	영 중
	3	김 정 필	풍 생 중
	3	박 성 수	경 수 중
라이트급	1	고 동 완	완 산 중
	2	이 일 수	개 성 중
	3	윤 정 훈	경 수 중
	3	김 성 수	부 천 동 중
L-웰터급	1	나 호 동	태 성 중
	2	이 남 규	완 산 중
	3	김 동 우	동 마 중
	3	서 병 완	한 영 중
웰 터 급	1	장 덕 진	한 영 중
	2	김 형 원	구 월 중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L-미들급	3	현인성	용곡중
	3	최세민	동성중
	1	정광호	태성중
	2	이승희	한영중
	3	마상배	경수중
미들급	3	문재성	관동중
	1	이동완	서울체육중
	2	박동우	한성중
	3	박은출	기창중
	3	임재근	자양중
L-해비급	1	문창우	경수중
	2	김영호	한영중
	3	하태진	성남서중
	3	김동규	한성중
해비급	1	양성오	한영중
	2	이상억	공릉중
	3	김길곤	경서중
	3	배정호	영북중

■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김인경	성동고
	2	정현섭	송곡고
	3	서민관	풍곡고
	3	이동수	부평기술고
플라이급	1	강동범	남주고
	2	박성수	동천고
	3	정태호	남주고
	3	임춘재	송림고
밴텀급	1	이안호	부산체고
	2	조정현	풍생고
	3	김현철	풍생고
	3	윤여해	오성고
페더급	1	김삼용	포항수고
	2	박재홍	한성고
	3	서홍덕	부산체고
	3	최부신	경남체고
라이트급	1	김호	동성고
	2	김광수	풍생고
	3	조진현	영천고
	3	조재춘	덕신고
웰터급	1	최기선	송림고
	2	최승길	부평기술고
	3	홍종철	서울체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미들급	3	김태광	예산고
	1	한갑석	부산체고
	2	최대희	송곡고
	3	노승현	송림고
	3	강병삼	한성고
해비급	1	박형태	송실고
	2	이광섭	경상공고
	3	박범진	동성고
	3	한신호	한성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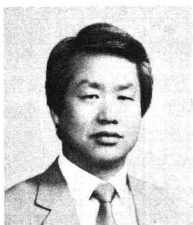
■ 일반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종득	인천전문대
	2	이성희	체육선교신학교
	3	김현천	일산체
	3	전병호	동석체
플라이급	1	남학현	유도학교
	2	김준경	체육선교신학교
	3	김정일	인천전문대
	3	박형곤	가야체
밴텀급	1	박종영	체육선교신학교
	2	이병호	성관체
	3	김기철	진관체
	3	정윤기	유도학교
페더급	1	권기현	인천전문대
	2	라광호	해룡체
	3	이성호	밀양시체육회
	3	이석환	태양체
라이트급	1	신경환	유도학교
	2	박관호	용마체
	3	이동춘	경기도협회
	3	장대홍	경희대
웰터급	1	송경민	체육선교신학교
	2	최영식	인천전문대
	3	김대산	유도학교
	3	유시현	인천전문대
미들급	1	백인석	화랑체
	2	박영기	밀양시체육회
	3	이준영	평택체
	3	유정식	중앙체
해비급	1	이성호	대구시험회
	2	최민호	동양체
	3	지수배	동우체
	3	윤호정	중앙체

태 권 도 경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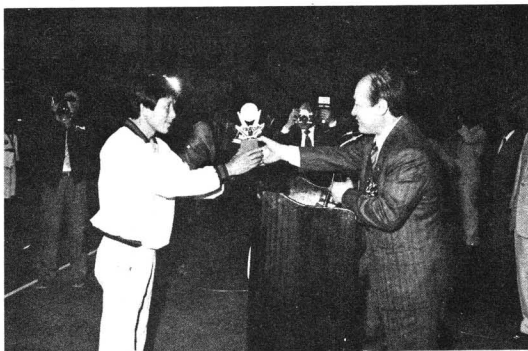
제16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타기 대회

4.10~15, 88체육관



김 부 영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홍보분과 위원장



이유생회장이 여자부우승을 차지한 영신여고 김영인코치에게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제16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기타기 대회가
지난달 4월 10일 부터 15일까
지 서울 88체육관에서 힘찬 광
파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격
려와 환영속에서 6일간 개최되

었다.

제16회라는 청년기를 맞은
이 대회는 이제는 양보다 질적
인 면에서 좀 더 알찬 수확을
걸차는 마음 가짐 아래 임원과
선수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 간

의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태권도 중추국의 태권도인답게 선전을 다짐하였다.

단일종목 경기로써는 최대규모의 대회로써 명실공히 우리 태권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본대회의 참가선수 현황을 보면 총 참가교 121개교에서 참가선수 1,360명이라는 출전선수만 보아도 대규모 대회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남자고등부 51개교

참가선수 751명, 남자중등부 20개교

참가선수 356명, 여자고등부 35개교

참가선수 192명, 여자중등부 12개교

참가선수 61명이라는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위하여 필승의 신념과 피나는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며 오늘을 기다려 왔다고 한다.

선수들의 모습은 늠름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으며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개최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본 연맹 회장의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이 태권도 가족과 온 국민의 소망이므로 더욱 더 우리 태권도인은 범국민적 운동과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대회사에 이어 김운용 협회장의 『'88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태권도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학업에도 게으름 없고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훌륭한 태권도의 여군으로서 태권도계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격려사도 있었다.

본 대회를 위하여 개회식에 참석한 이기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태권도 가족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정의롭고 당당하게 태권도의 기량과 역량을 발휘하여 체육인의 모범이 되고 사회인의 귀감이 되어 널리 국민의 정신과 생활운동의 선두에서 사회봉사 정신과 애국심 **열**의 선봉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사회에서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에 태권도 가족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본 연맹 회장에서부터 그 동안 연맹 및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연맹 권영기(부회장) 김명완(이사), 김부영(이사), 이충

구(이사)에게 공로패 수여와 정찬환(부회장), 박성민(동성고교교장), 박희운(은광여고교장), 김생수(리라공고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폐회식에서는 경기기간 중 심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김기용 (심판부위원장), 박덕규 (배심), 심병규 (배심), 임천수 (심판), 박경선 (심판), 이종관 (심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경기내용이 말하듯 각 팀의 실력은 이제 거의 평준화되어 선수들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입상선수들을 보면 지방이나 서울의 차이가 없이 각 지방 학교 선수들이 골고루 입상을 했고 지방학교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경기를 통하여 K.O나 R.S.C승이 예년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 것이 이것을 뒷받침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10일 대회 첫 날 모든 선수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그 동안 각자 연마해온 기술을 마음껏 발휘, 치열한 경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남고부 핀급에 출전한 부평 기술고 장병열 선수가 성동고 신재웅 선수를 2회9초만에 뒤후리기로 얼굴을 강타 대회 첫 K.O승을 했으며 여고부 페더급 경기에서 태원고 조경희 선수가 은광여고 전해성 선수를 1회52초만에 원발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하였으며 여고부 라이트급 영란여상 서미연 선수가 고양중고 김정란 선수를 2회30초만에 R.S.C승을 하여 3회전에 진출하였다. 11일 이틀째 경기에서는 남고부 핀급 한성고 원재희 선수가 송림고 이유선수를 1회1분 앞돌려 차기와 뒤차기로 연속 공격 R.S.C승. 여고부 라이트급 은광여고 조은실 선수가 보영여중고 남경희 선수를 2회 1분30초 앞돌려차기로 옆

구리 강타 K.O승으로 3회전에 진출하였다.

12일 대회 3일째 경기에서 남고부 페더급 서울체고 오상명 선수가 광성고 김태훈 선수를 2회20초 원발 앞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R.S.C승으로 2회전에 진출하는 등 팽팽한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경기가 판정으로 승패를 가렸다.

13일 대회 4일째 경기에서 남고부 웰터급 동성고 최종복 선수가 송림고 남기권 선수를 1회 40초 만에 원발 상단 돌려차기로 K.O승을 했고 남고부 미들급 덕신고 이한섭 선수가 경복체고 이준희 선수를 1회 15초만에 원발 앞 돌려차기로 몸통공격 K.O승을 하여 2회전에 진출했다.

14일 대회 5일째 경기는 남고부 경기로써 입상권을 눈앞에 둔 한 판승부의 경기로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다. 예측

한 대로 약간의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태권도 경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경기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

남고부 페더급 서울체고 윤병윤 선수가 성일상고 김순택 선수를 1회 15초 오른발 앞 돌려차기로 복부공격 K.O승을 하여 4회전에 진출하였다.

15일대회 마지막날 5일간의 대회 예선전을 모두 승리하고 당당하게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의 경기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불꽃튀는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며 회비가 결정되는 순간, 패배의 쓰라림을 눈물로 억제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승리의 기쁨으로 환희에 차 기쁨을 만끽하는 선수 등으로 순간순간 반복되었으며 남고부 헤비급 결승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치열했던 모든 경기가 막을 내렸다.*

입상자 명단

남자중등부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핀급	1	이영환	한영중
	2	지진성	-
	3	박명철	동성중
	3	소병관	-
플라이급	1	박종천	서원중
	2	김철민	전남체육중
	3	임진표	배명중
	3	김혁	공릉중
밴텀급	1	유광명	경수중
	2	지현	전남체육중
	3	박성호	동성중
	3	황병권	경수중
페더급	1	김영록	전남체육중
	2	최정훈	청주중
	3	서동규	-
	3	윤종일	성남동중
라이트급	1	김봉석	배명중
	2	박정우	한영중
	3	양홍석	배명중
	3	이재성	성남동중
L-웰터급	1	김남우	경수중
	2	최상동	배명중
	3	김동민	청주중
	3	이치화	한영중
웰터급	1	맹영석	한영중
	2	이상민	경수중
	3	김명일	경수중
	3	양대성	함양중
L-미들급	1	박민섭	전남체육중
	2	장용국	개성중
	3	장덕진	한영중
	3	공명락	한영중
미들급	1	천창영	동성중
	2	송환기	경수중
	3	이창훈	봉양중
	3	장형철	구의중
헤비급	1	양성오	한영중
	2	심재섭	월계중
	3	이상억	공릉중
	3	이성범	전남체육중

남자 고등부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핀급	1	김현용	서울체육고
	2	김인경	성동고
	3	진일남	관악고
	3	서민관	풍생고
플라이급	1	조현식	전남체육고
	2	양통일	동성고
	3	김성훈	성동고
	3	황몽환	경남체육고
밴텀급	1	성대중	강원사대부고
	2	윤남식	전주공고
	3	이창환	전남체육고
	3	이안호	부산체육고
페더급	1	김상일	풍생고
	2	오상명	서울체육고
	3	김삼용	포항수상고
	3	김문남	전남체육고
라이트급	1	박세진	서울체육고
	2	문효섭	관악고
	3	박춘길	인천체육고
	3	김송남	부산체육고
웰터급	1	임영호	부산체육고
	2	김종수	관악고
	3	최종복	동성고
	3	신창봉	한성고
미들급	1	이현석	동성고
	2	황일선	대전체육고
	3	모진석	풍생고
	3	안진욱	전남체육고
헤비급	1	이재영	한성고
	2	한종일	풍생고
	3	문정일	송곡고
	3	송근배	전남체육고

중등부단체성적

내용 \ 부별	남자부	여자부
우승	한영중	철산여중
준우승	경수중	천안동여중
3위	전남체육중	방화중
감투상	배명중	
장려상	용곡중	전남체육중
최우수선수상	맹영석	김지향
지도상	김진도	이재원

여자 중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안 주 영	철 산 여 중
	2	윤 영	천 안 북 여 중
플라이급	1	도혜경	천 안 동 여 중
	2	김경화	기 장 중
밴 텀 급	1	손민정	전 남 체 육 중
	2	곽포정	철 산 여 중
	3	윤영숙	방 화 중
	3	김진성	용 곡 중
페 더 급	1	김지향	철 산 여 중
	2	강수경	구 의 중
	3	이진아	전 남 체 육 중
	3	전명화	천 안 동 여 중
라이트급	1	원선진	수 성 여 중
	2	신동선	구 의 중
	3	홍지선	철 산 여 중
	3	신은정	자 양 중
L-웰터급	1	김은하	천 안 동 여 중
	2	진용순	철 산 여 중
	3	김영미	방 화 중
	3	인은순	북 인 천 여 중
웰 터 급	1	박경숙	서귀 중앙 여 중
	2	서경숙	천 안 동 여 중
	3	임경화	방 화 중
	3	박상희	구 의 중
L-미들급	1	김동숙	철 산 여 중
	2	신혜경	천 안 동 여 중
	3	이재임	구 의 중
	3	강귀정	인 화 여 중
미 들 급	1	정윤경	방 화 중
	2	조상숙	철 산 여 중
	3	유정희	방 화 중
	3	김애경	송 의 여 중
헤 비 급	1	유성림	철 산 여 중
	2	남명희	한 양 여 중

여자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화진	영 신 여 고
	2	윤계순	문 성 여 상
	3	최선미	은 광 여 고
	3	이경은	남 해 상 업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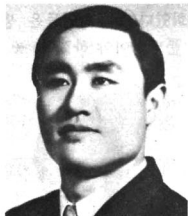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플라이급	1	박영신	문 성 여 상
	2	추난율	영 신 여 고
	3	차현영	영 신 여 고
	3	김보영	천 안 여 고
밴 텀 급	1	김천화	시 은 고
	2	김경희	은 광 여 고
	3	양은정	영 신 여 고
	3	이경남	문 성 여 상
페 더 급	1	김은숙	천 안 여 고
	2	정유경	영 신 여 고
	3	정의정	인 덕 공 고
	3	윤명숙	인 천 체 육 고
라이트급	1	진혜원	고 양 종 고
	2	정남숙	천 안 여 고
	3	김영림	구 례 고
	3	박정희	인 체 체 육 고
웰 터 급	1	박경희	고 양 종 고
	2	장철원	영 신 여 고
	3	김은영	고 양 종 고
	3	이영미	천 안 여 고
미 들 급	1	박혜영	인 천 체 육 고
	2	김기욱	영 신 여 고
	3	윤소정	문 성 여 상
	3	박소라	영 신 여 고
헤 비 급	1	박은주	영 신 여 고
	2	김태희	문 성 여 상
	3	안숙	은 광 여 고
	3	추수연	영 신 여 고

고등부 단체성적

부별		남자부	여자부
내용	우 승	서울체육고	영신여고
	준 우 승	풍 생 고	고양종고
	3 위	동 성 고	문성여상
	감 투 상	전남체육고	천안여고
장 려 상		천안중앙고	구 례 고
최우수선수상		박 세 진	박 은 주
지도 상		박 창 덕	김 영 인

'89 전국여자개인 선수권대회

4.25~26, 국기원



김 정 대
경기분과 부위원장

중학교 재학이상의 여자로 국기원 단(품)증을 소지한 자로 89년도 본 회에 선수등록을 마친 선수는 누구나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 본 대회에는 82개 팀에서 276명이 출전하여 여자 태권도경기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였다.

개회식에서 홍중수 부회장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국제적



시상식

스포츠호름은 성(性)을 초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여성이라 하여 조금도 위축됨 없이 태권도의 바른정신으로 열심히 경기에 임하여서 경험과 기량을 쌓아 남자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 종주국 여성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첫 날(25일) 128게임

을 치루었는데 RSC, 기권승 등이 18게임이나 발생해 신인선수들의 나약함과 기량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기 두번째날 8강에 진입한 선수들은 기량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른경기기술을 발휘하여 1~2년전의 특징팅의 독무대는 용납하지 않았다.



경기장면

8명의 금메달선수 소속이 모두 다른 것에서도 이는 입증되고 있다.

87년도부터 어린나이에 핀급의 우승을 하여 무서운 아이로 부각된 원선진(수성여중 3년) 선수가 1, 2차전을 가볍게 물리치고 3차전(8강 진입)에서 신에 복병 유수진(오산여중고 2년) 선수를 맞아 1·2회에서 우세를 주고 받다가 3회전에서 실점하여 원선수는 판정패하였고 유수진 선수는 새로운 강자로 부각하여 핀급의 여왕이 되었다.

입상선수 거의가 고교생이고, 여대생 소수, 중학생으로는 철산여중의 진용순(핀급) 선수가 유일하게 2위에 입상하였다.

선수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대회였다고 대학인들은 생각하고 분발하여야 하겠다. *

입상자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유 수 진	오 산 여 고
	2	진 용 순	철 산 여 중
	3	박 은 주	은 황 여 고
	3	이 남 숙	성 신 여 대
플라이급	1	서 연 화	천 안 여 고
	2	강 경 숙	상 명 여 대
	3	조 인 경	유 도 학 교
	3	차 현 영	영신여고(청산)
밴 탐 급	1	이 승 민	영 덕 여 고
	2	박 현 숙	유 도 학 교
	3	황 은 숙	고 양 여 고
	3	김 성 숙	성 신 여 대
페 더 급	1	박 진 경	상 명 여 대
	2	박 연 실	성 신 여 대
	3	윤 명 숙	인 천 체 고
	3	김 윤 희	영신여고(청산)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라이트급	1	석 소 정	유 도 학 교
	2	박 정 희	인 천 체 고
	3	정 남 숙	천 안 여 고
	3	정 현 수	영신여고(청산)
웰 터 급	1	이 선 희	문 성 여 고
	2	고 재 경	성 신 여 대
	3	이 영 미	천 안 여 고
	3	김 미 영	대 신 고
미 들 급	1	박 혜 영	인 천 체 고
	2	장 철	영신여고(청산)
	3	심 현 숙	고 양 여 고
	3	이 은 주	문 성 여 상
헤 비 급	1	박 은 주	영신여고(청산)
	2	이 성 미	상 명 여 대
	3	오 금 숙	송 덕 여 고
	3	정 완 숙	성 신 여 대

태권도경기

제 16회 전국 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9 ~ 30, 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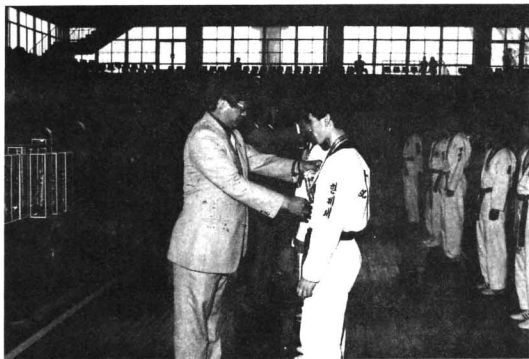


최 인 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전무이사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은 지난 4월29일~30일에 국기원에서 제16회 전국대학개인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는 8체급 토너먼트식 개



시상식에서

인전으로 실시, 302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어느해 보다도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남자부는 A·B조로 나누어서 B조는 전국규모대회의 입상경력이 없는 신인들이 참가했으며, 여자부 선수들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전 체급에서 막강한 실력들을 과시하였다.

특히, 판정에 대한 항의와 소

청심의 의뢰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심판위원들이 공정한 판정을 내린 훌륭한 경기였다는 것이 선수 및 지도자들의 뒷이야기이다.

29일 오전 11시 개회선언을 필두로 동아대학교의 김재욱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고, 대한태권도협회 박현섭 심판위원장의 심판대표 선서가 있었으며, “본 대회가 내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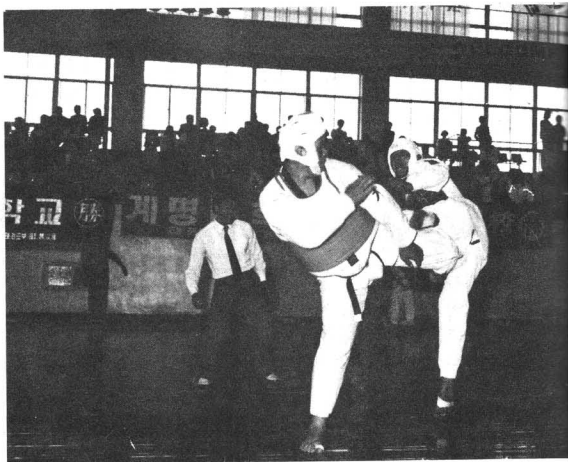
태권도 지도자로서 새로운 기량과 얼을 가꾸어 가기위한 창의와 연구의 자극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본 연맹의 김동석 회장으로 부터 대회사 가 있었다. "대학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연마한 기량을 정정당당히 겨루어 모든 태권도 경기에 귀감이 되어 달라"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대신하여 강원식 전무이사로부터 격려사가 있었다.

첫 날 경기에서 경기번호 98번 미들급의 공두환(경희대) 선수는 조기원(동명전대) 선수를 맞이하여 공중 돌려차기와 양발 앞 돌려차기 기술로 경량급 선수못지 않은 화려한 기술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하여 판정승하였으며, 38번 플라이급 이종선(한국체대) 선수는 오대환(계명대) 선수와 송인환(경희대)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으며, 165번 헤비급의 추교일(청주대) 선수는 김선각(유도대)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온 박희석(경희대)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8강에 진출하였다.

130번 페더급의 강창모(동아대) 선수는 김병철(한국체대) 선수를 맞이하여 빠른 돌려차기 기술과 체력의 우위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첫 날 경기에서는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눈에 돋보이게 선전을 하였으나 누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가는 짐작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의 막강한 실력들을 과시하였다.

이틀째 경기에서 187번 라이



트급의 박상노(한국체대) 선수는 오세운(충남대) 선수와의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가 2회 1분 10초만에 오른발 앞돌려차기 기술로 오선수에게 KO승을 거두었고, 여자부 31번 양인덕(상명여대) 선수는 전 국가대표 김현희(경희대) 선수를 판정승으로 제압하여 결승에 진출하였고, 남자부 B조의 13번 반담급의 최승민(동명전대) 선수는 결승에서 함용운(한국체대) 선수에 판정승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207번 페더급의 강창모(동아대) 선수는 장혁(한국체대) 선수에게 5개의 득점을 빼앗아 일방적인 승리를 하여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는 전 국가대표 함준(한국체대) 선수와 격돌하였다.

강선수와 함선수의 경기는

모든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막상막하의 경기로써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강선수의 돌려차기 기술에 대응하여 함선수는 돌려차기와 뒷차기 기술로 맞섰고 강선수는 앞발 돌려차기 기술로 득점을 얻어 1: 1의 득점 상황을 나타내었다. 3회전에서 강선수의 돌려차기 기술이 유효하여 강선수가 페더급의 최강자로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본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은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강창모 선수에게 돌아갔다. 금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 김동석 회장은 전년도보다 발전된 기량을 보여준 수상자들을 격려하면서 차기 대회는 질적, 양적으로 보다 훌륭한 대회를 치루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는 수도

권내 대학이 아닌 동아대학교
가 8체급중 5체급을 석권하여
태권도 명문대로써 자리를 굳
혔으며, 대학선수들의 실력이

완전히 평준화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훌륭한 대회였다고 사료
된다. 끝으로 급번 대회가 성공
리에 치뤄지도록 도와주신 대

한태권도협회 임원 여러분들과
공정한 관정으로 대회를 빛내
주신 심판위원들께 감사로
드린다.

입상선수명단

■ 남자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서성교	한국체대
	2	지재기	동아대
	3	서보훈	한국체대
	3	신재덕	동아대
플라이급	1	박기찬	동아대
	2	김양식	한국체대
	3	권혁선	한국체대
	3	임성욱	계명대
밴던급	1	조영남	동아대
	2	양춘열	한국체대
	3	박윤상	한국체대
	3	권오철	청주대
페더급	1	강창모	동아대
	2	함준	한국체대
	3	이제법	경기대
	3	안대규	유도학교
라이트급	1	이광로	한국체대
	2	조광천	경희대
	3	박대성	경희대
	3	박상로	한국체대
웰터급	1	홍문주	동아대
	2	박종상	경상대
	3	박봉권	한국체대
	3	차광채	유도학교
미들급	1	윤순철	경희대
	2	김제경	동아대
	3	이성훈	한국체대
	3	공한석	계명대
헤비급	1	김재욱	동아대
	2	김봉근	경희대
	3	최정주	경상대
	3	추교일	청주대

■ 여자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조인경	유도학교
	2	장이숙	상명여대
	3	이남숙	성신여대
	3	배은정	성신여대
플라이급	1	배은정	성신여대
	2	강경숙	상명여대
	3	신보영	한양대
	3	김성숙	성신여대
밴던급	1	김현숙	유도학교
	2	박현숙	유도학교
	3	박선영	경희대
	3	정수경	유도여대
페더급	1	박진경	상명여대
	2	박연실	성신여대
	3	김혜정	인천전문대
	3	모미라	성신여대
라이트급	1	정은옥	상명여대
	2	남정동	성신여대
	3	김현하	인천전문대
	3	김지영	성신여대
웰터급	1	김유숙	성신여대
	2	고재경	성신여대
	3	노경미	경희대
	3	이은주	한국체대
미들급	1	양인덕	상명여대
	2	이미라	성신여대
	3	김현희	경희대
	3	최귀재	인천전문대
헤비급	1	백영미	경희대
	2	정완숙	성신여대
	3	류설아	유도학교
	3	이성미	상명여대

태 권 도 경 기

제10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5.14~15, 88체육관



박 성 렬

동아일보 편집국 소년동아부 기자

청주 서원국교 팀이 겨루기 남자 단체전에서 2연패를 차지한 가운데 제10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주최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서울 남산 청년 회의소)가 지난 5월 14일 서울 88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다.

서원국교 팀은 이를 동안 열린 이 대회남자 겨루기 8개 체급에서 금 3, 은 1, 동 1개를 따내 총 26점으로 종합 우승했다.

준우승은 금 2, 은 2, 동 1개로 총 22점을 얻은 서울 면목국교 팀에, 3위는 금 1, 은 1, 동 1개로 총 15점을 획득한 경기 구리 부양국교 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는 지난해 이 대회 핀급 우승에 이어 밴텀급 챔피언이 된 김향수 군(키 152cm 청주 서원국 6년)이 뽑혔다. 김향수는 대회 마지막날 3천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겨루기 남자 밴텀급 결승전에서 이재혁(구리 부양국)을 맞아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끝에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학교 선수끼리 대결한 남자 미들급 결승전에선 선종진(서울 면목국 6년)이 1회전 시작하자마자 코피가 심하게 난 김태석에 기권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최중량급인 남자 헤비급 결승에선 공식 대회에 처음 출전한 신예 한상협(서울 강덕국 6년)이 김홍범(서울 남천국)에 판정승,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플라이급 결승에선 5학년생 한관희(서울 면목국)가 최고 라이벌인 쌍둥이 이승재(서울 보광국 5년)를 맞아 접전 끝에 판정승, 올해 3월 제9회 서울시 교육감기 대회 플라이급 결승에서 패한 상처를 말끔히 씻고 전국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국민학교 연맹이 여자 태권도 인구를 늘리고 우수 선수 조기 발굴을 위해 3년 전에 창설한 여자 겨루기 미들급 결승에선 장미정(서울 한



개회식 대표선서



입상자 시상식

강국)이 정진영(서울 광희국)을, 플라이급 결승에선 원선영(서울 면목국)이 조명실(인천 간석국)을 각각 판정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경남·북 등 7개 시·도에서 61개 학교 708명이 참가, 겨루기 남녀부 체급별 우승자와 학년별 품새 우승자를 가렸다.

이 대회는 지난 80년 순수 민간 청년 단체인 서울 남산 청년 회외소(회장 김운태)가 전국의 태권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아울러 체력과 기량을 길러주기 위해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회장 임정태)과 공동으로 창설한 대회다. 또 이 대회는 1회(80년 5월 4~5 일·국기원)부터 태권도 시합과 어린이 대잔치를 함께 펼쳐 자라나는 태권어린이들의 꿈의 잔치가 되어 왔다.

한편 이번 대회 개최를 경축하는 공개 행사에서 성남 제2국고 고적대 팀이 멋진 퍼레이드를 펼쳐 대회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고, 인천 간선국고 응원단(지도 교사 박효영) 김유진 외 60명이 율동미 있는 매스게임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단체 종합 성적(남자 겨루기 부문)

▲우승=청주 서원국고 26점 ▲준우승=서울 면목국고 22점 ▲3위=경기 구리 부양국고 15점 ▲장려=서울 강덕국고 13점 ▲감투=경기 성남 희망대국고 8점 ▲특별 장려=경북 영덕 야성국고, 경기 퇴계원국고, 경남 진해 좌천국고,

경기 성남 단대국고

◇개인상

▲최우수 선수=김향수(청주 서원국고·밴텀급 우승) ▲인기=한관희(서울 면목국고·플라이급 우승) ▲인기=권용수(구리 부양국고·핀급 우승)

◇남자 겨루기 체급별 1~3위 입상자

▲핀급=① 권용수(구리 부양) ② 박현순(청주 서원) ③ 김우균(서울 강덕)·손호형(서울 쌍문)

▲플라이급=① 한관희(서울 면목) ② 이재재(서울 보광) ③ 권경덕(구리 부양)·유병찬(서울 개포)

▲밴텀급=① 김향수(청주 서원) ② 이재혁(구리 부양) ③ 선명수(서울 금천)·김승철(청주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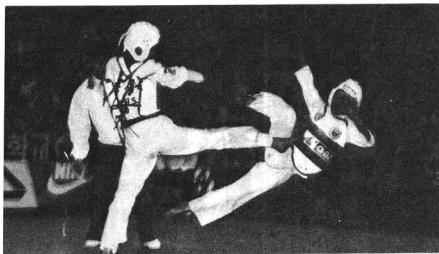
▲페더급=① 김봉환(인천 동암) ② 최은호(서울 면목) ③ 이윤섭(경기 서릉)·노현구(성남 희망대)

▲라이트급=① 김형구(청주 서원) ② 김운식(서울 쌍문) ③ 홍정진(서울 마천)·김주연(성남 단대)

▲웰터급=① 이상봉(청주 서원) ② 노현필(성남 희망대) ③ 유대형(서울 한강)·김호열(서울 면목)

▲미들급=① 선종진(서울 면목) ② 김태석(서울 면목) ③ 안정일(서울 강덕)·강선호(서울 한강)

▲헤비급=① 한상협(서울 강덕) ② 김홍범



(서울 남천) ③ 최광웅(인천 구월) · 박성근(서울 마천)

◇여자 거루기 체급별 1~3위 입상자

▲핀급=① 연선주(서울 보광) ② 조정욱(서울 마천) ③ 김소영(인천 간석) · 김윤정(서울 면목)

▲플라이급=① 원선영(서울 면목) ② 조명실(인천 간석) ③ 김미애(서울 고일) · 홍영재(서울 탑동)

▲밴텀급=① 김은미(경기 성남) ② 김의진(서울 고일) ③ 신지윤(서울 보광) · 오수미(경기 용인)

▲페더급=① 백승애(서울 탑동) ② 이선영(서울 쌍문) ③ 한주현(서울 금천) · 홍수희(서울 마천)

▲라이트급=① 박지라(경기 하원) ② 유미란(인천 간석) ③ 송채현(서울 광희) · 신은희(인천 간석)

▲웰터급=① 김진(서울 신석) ② 민무진(인천 간석) ③ 박선희(경기 상원) · 서재희(서울 마천)

▲미들급=① 장미정(서울 한강) ② 정진영(서울 광희) ③ 이은희(서울 금천) · 김수영(서울 보광)

▲헤비급=① 최민정(경기 상원) ② 김원(서울 신석) ③ 성미영(인천 간석) · 김영선(서울 옥수)

◇품새 학년별 1~3위 입상자

▲1학년=① 손재영(서울 방학) ② 정민규(서울 성산) · 남현(서울 고일) · 안상현(서울

불광) ③ 강동규(충남 금산) · 박상용(서울 면목) · 최왕진(서울 성산) · 김은희(서울 보광) 나현준(서울 신북)

▲2학년=① 이재훈(서울 마천) ② 유진화(서울 방학) · 이원상(서울 화계) · 민용현(서울 금천) ③ 장선영(서울 화계) · 정두채(경기 서릉) · 류진곤(구리 부양) · 이세중(서울 성산) · 김성룡(경남 위성)

▲3학년=① 이규경(경기 금광) ② 이성재(서울 마천) · 이상순(서울 양동) · 이현범(서울 화계) ③ 김찬호(서울 방학) · 김미애(서울 고일) · 김기진(서울 보광) · 나현웅(서울 신북) · 남연식(경기 서릉)

▲4학년=① 박희재(경남 위성) ② 김의진(서울 고일) · 노태완(서울 보광) · 김원(서울 신석) ③ 노신(경기 광릉) · 김한권(서울 화계) · 김도현(서울 불광)

▲5학년=① 이종걸(서울 미동) ② 김학구(경기 미금) · 장승만(서울 방학) · 정주영(서울 고일) ③ 임지용(서울 신석) · 최대웅(서울 불광) · 이창희(경북 영덕) · 허경훈(구리 부양) · 김주영(서울 보광)

▲6학년=① 한재영(서울 화계) ② 장성민(서울 방학) · 유동욱(서울 미동) · 김진(서울 신석) ③ 이창석(서울 불광) · 원주연(서울 보광) · 김민성(서울 강덕) · 윤종학(경기 금광) · 권경근(경남 위성)

◇제 10회 태권왕 거루기대회 참가 현황

1. 시 · 도별 참가 학교수

시 · 도별 학교수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계
	35	15	4	1	1	3	2	61

2. 거루기 부문 남녀 체급별 참가수

체급 성별	핀	플라이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계
남자	46	50	50	47	36	35	24	31	319
여자	6	9	11	7	4	7	10	11	65

3. 품새 부문 학년별 참가수

학 참가인원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33	55	52	56	65	63	324

경기 기행문

홍콩·중국 태권도 시범 여행기

현동수 / 전남협회



왼쪽부터 현동수 · 이준구사범의 딸 · 미국사범 박우수

지난 해 11월 6일 김포국제 공항에서 출국절차를 밟고 오전 9시 비행기에 탑승했다. 처음 외국나들이에 우리의 기분은 들떠 있었다. 첫번째 목적지인 홍콩 비행장에 도착한 시간은 1시 15분경이었다. 우리 일행은 홍콩 공항을 빠져나왔고 일본 무술협회 이사장이신 고 무라씨와 동경에서 태권도 사

범으로 계시는 범기철씨와 심사범님이 마중을 나와 주셨다. 우리는 홍콩의 그랜드타워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경 홍콩 시내 쇼핑을 했다. 홍콩의 밤은 우리 서울과 비슷했다.

다음날 11월 7일 우리는 범기철씨 일행, 미국의 이준구씨 일행과 일본 고무라씨와 중국

여행사를 방문했다. 우리는 이틀간의 홍콩시범을 마치고 9일날 중국으로 입국하도록 되었기에 입국절차를 밟았다.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체육관으로 향하였다. 체육관에는 대회의장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의 시범순서는 10번째였다. 주최측인 홍콩 무술협회의 입장식은 무척 성대했다. 우리는 일본과 미국팀 다음인 3번째로 입장식을 하게 되었다. 각 급 9개국 15개팀이 참가하여 각 나라 무술시범이 있는 후 밤 9시 40분경에 우리는 시범을 보였다.

본인과 박우수 일본의 심사범 3명이 품새시범(고려품새, 태백품새)을 연결동작으로 보였다. 품새시범이 끝나고 나와 박우수 선수는 겨루기 시범을 하였고, 일본의 심사범과 본인은 또 한번 겨루기 시범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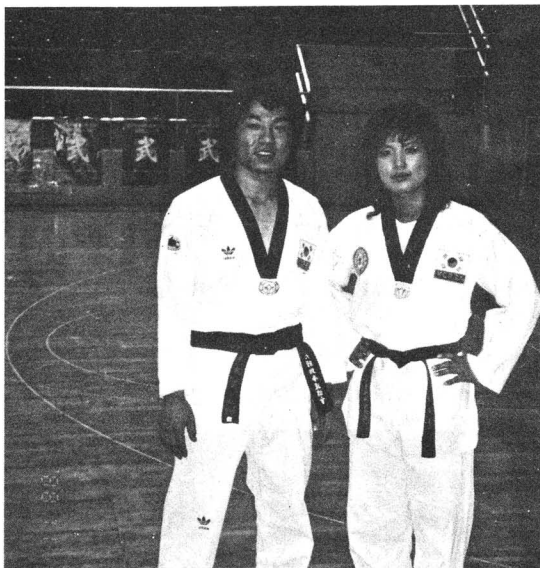
본인과 박우수의 시범은 무척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우수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멋진

시범을 보였고 범기철사범의 시범은 율동적이었고 이준구사범의 시범은 절도있는 태권무였다. 한국의 태권도가 가까운 이웃나라인 홍콩에서도 태권도 중추국답게 그 위엄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1월8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부터 전날과 같은 시범경기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두번째로 시범을 마쳤다. 관중들이 어제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 일행과 일본의 범기철씨 일행, 미국의 이준구씨 일행의 태권도 시범이 다른 무술보다도 인기가 있어 관중들의 관심을 독차지 했다. 시범을 마치고 일본 무도협회 임원들과 우리들은 “태권도인”의 만찬자리에서 경과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태권도의 수용도가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태권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월9일 아침 7시에 호텔 로비에 모였다가 일본인 몇 명의 임원과 가라데 선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범기철씨 일행과 이준구씨 일행은 우리 일행과 역으로 나갔다. 역에서 열차로 약 4시간정도 여행을 했다. 우리의 목적지인 중국 네번째 도시인 광주에 도착했다. 처음 중국에서 공기를 호흡한 우리일행은 마음이 설렘었다. 우리는 입국 수속을 밟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 9시경 서울에서 우리와 같이 떠났던 이인호 선생님(인간문화재 164호)과 중국화가와



시범을 성공리에 마치고 박우수사범과 함께

의 교류전이 있었다. 11월 10일 아침 중국 체육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시찰을 하고나서 중국의 ‘우슈’라는 무술 시범이 있는 뒤 학생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해 보였다. 본인과 박우수, 범기철씨일행, 이준구씨 일행은 태권도의 시범을 또 한번 낮은 중국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우리는 시범을 마치고 여러 도시를 관광하였다.

오후 5시30분경 중산시에 도착하여 무엇인가 잘 진행이 안되어 마카오로 입국했다. 마카오에서 저녁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홍콩으로 입국하고 이준구씨와 범기철씨 일행은 마카오에 남았다. 본인과 이인호 선생님, 박우수는 마카오에서

약 2시간 후에 홍콩에 도착하였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들었던 일행과 헤어지니 아쉬웠다.

11월12일 우리는 예약되었던 1시 비행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공산국가인 중국땅에 최초의 태권도 시범을 본인과 박우수가 보였다는데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신 김정록 부회장과 박창용 전무이사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태권도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

회장 동정

김회장, 플랑보도르상 수상

김운용 IOC 집행위원이 지난 5월3일 플랑보도르(Flambeaux d'or)상을 수상했다.

Panathlon International이 수여한 Flambeaux d'or 상은 (영어로는 Golden Torch) 4년마다 국제스포츠에 공로와 업적이 뛰어난 국제스포츠인사를 선정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Panathlon International은 Genoa의 Rapallo에 본부를 두고있는 ICO가 승인한 국제스포츠기구로 산하에 265개 단체

와 17개 국에 13,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의장은 Mr. Antonio Spallino이다.

본 상을 받은 사람은 한국의 김운용 IOC 집행위원과 이탈리아 외무부장관 Mr. Giulio Andreotti, 올림픽 소리다리리회장인 스페인 Mr. Anselmo Lopes 등 3명이다.

IOC 위원장인 스페인 Juan Antonio Samaranch의 전임 IOC위원장인 이스라엘의 Lord Killanin와 미국의 Mr. Avery

Brundage 등 2명 이외에 국제 축구 연맹회장인 바레인의 Dr. Joao Havelange 및 이태리의 체육부장관인 Dr. Franco Carraro 등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운용 IOC 집행위원이 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88서울 올림픽이 국제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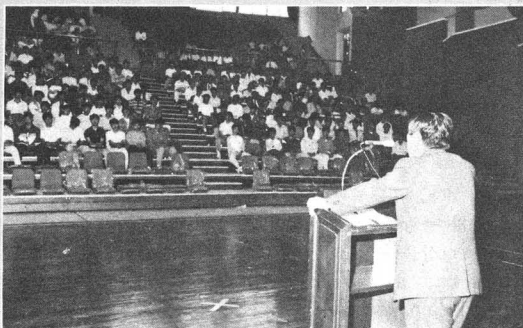
회장 동정

김운용 회장
유도대 초청 강연회 성황

본 회 김운용회장은 유도학교 총학생회 초청으로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유대 세미나실에서 1시간동안 강연을 했다.

이날 김회장은 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가 아닌 IOC 집행위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로 초청돼 세미나 형식으로 「국제 Sports와 태권도와의 관계」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Sports가 사회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Olympic의 발전과정, 올림픽운동의 중요성, 올림픽이후의 한국체육의 방향 등을 국제스포츠인사로서 객관적시각으로 유감없이 보였으며, 20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태권도가 근래에 와서 역사를 발굴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 수출하는 스포츠종목으로 되었고, 25개 올림픽 승인종목은 IOC, GAISF, FISU, NOC가입 등을 거쳐 공식승인을 받는데 100여년이 걸렸지만, 태권도는 20여년만에 같은 수준에 올랐음을 상기시키며, 태권도를 세계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룰(rule)의 보완 보호구개발 등 내실을 게



태권도 ‘올림픽정식경기종목채택’을 강조하는 김희장

속 다져나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5회 올림픽 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고 96년

올림픽의 정식경기종목채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로빙(lobbying)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태권도 시범종목 재 채택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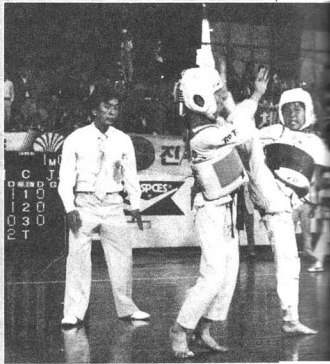
1989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I.O.C 헌장 제48조에 따르면 시범종목은 두 종목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어 추가가 불가능한 것을 IOC 사무관치 위원장과 I.O.C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특별한 양해와 협조로 태권도

를 특별히 추가하게 되었다고 I.O.C 집행위원인 본 회 김운용 회장이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경위를 설명했다.

다른 두 개의 시범종목은 롤라하키(Roller Hockey)와 펠로타 버스카(Pelota Vasca)이다.

96년 올림픽부터는 시범종목이 없어짐으로 96년도 올림픽 대회에는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



제3회 월드게임 한국대표선수단 구성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독 칼스루헤에서 개최되는 제3회 월드게임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단이 구성되었다. 선수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원

단장	김순배	본회부회장
감독	안종웅	경기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전판선	서울, 광희국민학교
남자트레이너	임윤택	관악고 코치
여자트레이너	전정우	경기, 경희대학교

남자선수

체급	성명	소속
핀급	신재현	상무
플라이급	정동현	서울체고
밴텀급	조영남	동아대
페더급	김병철	한국체대
라이트급	박세진	서울체고
웰터급	진정우	상무
미들급	공두환	경희대
헤비급	김현일	상무

여자선수

체급	성명	소속
플라이급	박은미	여수중앙여고
페더급	박경숙	서귀중앙여중
웰터급	박경희	고양중고
헤비급	장철	영신여고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실 현판식 및 임원위촉



허남각 회장



이규석 사무총장

지난달 4월 28일 오후 6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70의 5, 해남빌딩 321호에서 아시아 태권도 연맹의 현판식이 있었다.

태권도 종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연맹은 88서울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20개국이 참가해 회원국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현판식이 끝나고 다과회상에서 허남각(許南珏) 아시아 태권도연맹회장은 「1990년 베

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문제 및 최흥희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남북단일팀구성 등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태권도도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며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태권도인인 본인을 비롯 여러 태권도 동료 및 태권도 관계인들의 적극

적인 참여로 아시아연맹을 국제친선기구로써 손색이 없게 결속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말을 맺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본 회의 이금홍(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이사는 허회장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회장직을 거절했으나 아시아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천하였다고 설명을 덧붙인 뒤, 「앞으로 세계역사의 흐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며 아시아연맹이 튼튼해야 종주국인 우리의 태권도가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라며 허남각회장을 중심으로 이자리에 참석한 태권도인과 태권도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아시아태권도연맹의 발전과 세계속의 태권도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자리에는 고려대학교 태권도부 창립멤버인 박세혁(朴世赫) 사장(翰章商社 대표)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창립멤버 이금홍(李今洪) 사장(경인미술관 대표) 서울대학교 태권도부출신으로 62년 첫 전국체전선수였던 정세구(鄭世九) 서울대 교수, 성균관대학교 태권도부의 이규석(유도대) 교수 경희대 최영렬 교수 조영기(전남협회 부회장) 사범 등도 참석했다. 아시아태권도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명단

직 책	성 명	직 업
사무총장	이 규 석	유도대학 교수
사무차장	임 춘 길	대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
"	전 효 식	사업
"	김 기 선	사업
기술위원	정 세 구	서울대 교수
기 획	임 광 진	YMCA 사회개발부 부장
"	조 용 기	기자
"	온 대 봉	올림픽 조직위원회
경 기	윤 진 원	올림픽 조직위원회
심 판	김 형택	체육관 관장
"	박 정섭	체육관 관장
"	최 경 양	교사
"	강 회택	목동 청소년 회관
"	조 동	체육관 관장
교 육	김 기 주	서울 교육대학 교수
"	김 선 종	올림픽 조직위원회
상 별	김 진 길	
"	차 종 길	신영해운 과장
"	이 동 수	체육관 관장
국 민	장 기 승	치안본부 태권도 사범
"	전 판 선	코치
중 고	백 완 균	
"	유 해 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 코치
"	이 백 운	승실고 코치
"	유 수 철	리라공고 코치
대 학	안 정 수	경희대 교수
"	진 중 의	유도대 전임강사
"	이 상 현	
"	권 혁 중	유도대 조교
홍 보	이 상 편	세방여행사 부사장
"	최 기 만	뉴월드호텔 사장
"	김 부 태	세브란스 정형외과 과장
"	김 영 철	청아건설 이사
의 무	권 배 근	부산 시립병원 치과과장
"	현 대 영	세브란스 정형외과 과장
여 성	장 순 태	이태아페션 대표
"	강 의 성	세진 대표이사
"	김 광 일	사업

국기원 상임부원장에 엄운규씨



엄운규
국기원상임부원장

본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재직 하였던 엄운규 부회장이 지난 달 4월 14일 국기원 상임부원장으로 전보 되었다.

근세 태권도 역사의 증인인 엄운규부원장은 국기원을 명실

상부한 세계태권도의 「메카」가 되도록 태권도경기외에도 사회 체육의 산실로 점진적인 발전을 꾀하고 국기원을 성인태권도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기원 · 세계연맹 인사이동

국기원과 세계연맹에서는 1989년 6월 7일 인사이동이 있었다.

태권도지도자연수원 이종우 원장이 세계연맹 부총재겸 사

무총장으로, 세계연맹 김봉식 사무총장이 연수원 부원장으로,

국기원 국제부 박재욱차장이 세계연맹 차장으로 세계연맹

김병운 차장이 국기원 국제부장으로 전보되었다.



이종우
세계연맹부총재겸 사무총장



김봉식
지도자연수원부원장



박재욱
세계연맹차장



김병운
국기원국제부장

본회 사무국장에 임춘길씨



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1989년 4월 4일 본 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게된 임춘길 국장은 1971년부터 89년 현재에도 태권도장(충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1년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을 지낸바 있다.

세계연맹 사무국 임원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 2인과 3개부로 구분되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송상근
사무차장



박재욱
사무차장



강정도
운영부장



조희석
국제부장



최만식
경기부장

본회 기술심의회 위원 선임

본 회에서는 1989년 4월12 위원장단 모임을 갖고, 기술심의회 기술심의회분과위원장 및 의회 위원선임을 위원장단과 부위원장 등, 임원을 확정짓고 협의하여 위촉하였다.

본회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기술심의회 의 장 : 황춘성

기술심의회 부의장 : 전재규 김용서

지도위원 : 이교운 이응우 권경록



황춘성 의장



전재규 부의장



김용서 부의장



이교운 지도위원

직	위	성명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분과위원회	김대연	허자희	안용규	강석갑 최덕상 전만옥
		이종찬	신철수	김동수 김종명
경기분과위원회	김봉기	최준배	박형원	양정승 최영길 오수관
		김정대	진정환	황성수 유호경 한기현
			최영일	최주수 이영근 남궁윤석
심판분과위원회	박현섭	김용길	신동우	공영선 박정옥 유세종
		김기용	장명수	이규섭 이덕희
심사분과위원회	김영작	맹만호	정연주	윤태기 유석찬 김현수
		조호철	이한현	민준원 이정위
선수강화분과위원회	김경지	박창덕	이은송	정나희 김세혁 이백운
		유병호	황영갑	고영철 유수철
국제분과위원회	이승득	김강인	강성철	강세형 남상덕 송승복
		오함숙	이문희	유상철 이한규
상별분과위원회	김영삼	배성실	배석출	박수건 김갑식 권혁중
		신영억	김영운	이상연 장장영
편집분과위원회	이규정	양영모	송기화	신병현 정영근 정장열
		한상진	김석련	최유신 김기욱
연구분과위원회	이택명	박용화	조성봉	김영선 김정우 나봉순
		김영철	안정희	김경섭 이완희
여성분과위원회	장정남	서춘희	정효심	안연순 김경주 박필순
		최종숙	임신자	지영숙 신정렬



이용우
지도위원



권경옥
지도위원



김대연
기획분과위원장



김봉기
경기분과위원장



박현선
심판분과위원장



김명작
심사분과위원장



김경지
선수강화분과위원장



이승국
국제분과위원장



김영삼
상설분과 위원장



이규정
편집분과위원장



이택명
연구분과위원장



장정남
여성분과위원장

서울대학병원, 본회 지원병원으로

본 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본회 주최의 각종 태권도경기서의 지원병원으로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경기시 의사와 간호원 파견은 물론, 태권도인의 체력, 정신, 사회성등에 관해 의학논문 등을 작성하는 등의 일도 하게 된다.

본 회 의무위원회에는 조장원(인천제일의원, 일반의과) 원장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제1부원장인 고창순박사(해내과)를 고문위원으로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부교수 성상철 박사, 신경외과 부교수 조병규 박사, 해내과 부교수 이병철 박사, 생리학과 조교수 최명애 박

사 등 6명이 위촉되었다. 간사에는 제일의원 임상병리사 최성숙씨가 맡았다.

고창순 박사는 서울대의과대학 국민체력 과학연구소장으로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국기태권도가 사회체육진흥에 함수관계가 있다며 「태권도협회에 실질적인 봉사를 하게 돼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박사는 6·25동란 당시 부산에서 2년6개월간故 민은식 사범에게 태권도 수련을 받았으며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성상철 박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7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서태평양 정형외과협회(W.P.O.A)에 「태권도가 골



고창순 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홍중수 부회장

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본지에 논문게재)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앞으로 태권도 학술논문을 쓰는 지도자들에게 본 회 의무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해 보며 의무위원 위촉 수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 위촉

국기원에서는 1989년도 기술 심의회 임원을 지난달 4월7일 위촉하였다.

김순배 전 의장 후임에 김인

석 의장이 위촉되는 등 소폭의 개편이 있었으며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의 장 : 김인석

부 의 장 : 강정구 안영택

지도위원 : 이영섭 박명수



김인석 의장



강정구 부의장



안영택 부의장



이영섭 지도위원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분과위원회	박부철	이학천 최대웅	성인재 이순규 조광중 한명학 김문경 안재윤 백희열
심사분과위원회	고국환	심재익 서인중	이필재 허영희 신해용 홍광화 한용석 한기용 고명환
연구분과위원회	안해옥	강신의 김기일	차청훈 추교천 임신자 강형기 고창호 박재룡 홍재환 류용석 김형원 김명철
과학분과위원회	백운대	이덕태 이성용	안영규 이 연 윤석용 정병식 강영선 최병열 김용남
편집분과위원회	김중영	장순권 김용수	김중구 김중성 방명환 황재호 변기종 김현민 임대택
국제분과위원회	류창남	김종길 백남진	김학근 현석주 김충현 김호주 김경섭 김성배 임보순
협력분과위원회	임홍수	최석철 김장식	김영일 윤물로 이호열 장명수 장세백 김영관 김명수
시법분과위원회	이규형	박덕규 박종명	이종관 표낙선 곽종철 이승필 김현성 최봉호 최광근



박명수
지도위원



박부철
기획분과위원장



고국환
심사분과위원장



안해옥
연구분과위원장



백운대
과학분과위원장



김중영
편집분과위원장



문창남
국제분과위원장



임홍수
협력분과위원장



이규형
시범분과위원장

국 기 원 사 무 국 임 원

국기원 사무국에는 국기원 사무국 임운규 상근 부회장을 비롯, 이장원 사무국장, 이창목 사무차장 겸 총무부장, 산하에 총무과, 관리과, 홍보과, 경비과 등이 국기원 재무 및 건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천규 운영부장 산하에는 단증발급업무를 취급하는 업무과, 자료과, 전산실 등에서 단증업무를 관장하며, 김병운 국제부장 산하에는 해외심사홍보과가 있어 국제

단증발급업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기원 사무국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장원 사무국장



이창목 사무차장



김병운 국제부장



최천규 운영부장



이영래 총무과장



정준호 업무과장



손준희 자료과장



이재훈 경비과장



윤 현 관리과장

국 기 원 지 도 자 연 수 원



김복식 부원장



김호재 학감



양진방교학과장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
는 국가검정 2급 경기지도
자 교육을 9회를 실시하였
으며 태권도 지도자교육을
61회를 실시하는 등 태권도
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위
치를 확보하고 앞으로는 일
선도장 교재편찬 태권도연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메모사항

국기원 단증 발급업무안내

1. 기록자료 전산화 추진 배
경과 현 운영실태

가. '80년도에 품, 단 총응심
자가 년간 10만여명에 불
과하였으나, 그간 국기 태
권도가 국제스포츠로써 확
고히 정착함에 따라 세계
112개 가맹회원국으로 발
전함은 물론,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시범 및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국내외) 크게 힘입어 85
년도에는 응심자가 20여만
명으로 급증하는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30여만명에 육박하는 폭발

적인 증가 추세에 이르렀
다.

나. 따라서 당원의 품, 단증
발급업무 및 기록자료를
재래식 방법인 수작업으로
써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전
술한 작업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래한
현실을 민감하게 당원장이
직시하고 당시 당원의 재
정적인 여건이 미흡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전산화 업
무를 과감히 추진하도록
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 약 200만의 태권도인의
기록자료를 전산 시스템으
로 입력 운영 관리함에 따
라 아래와 같은 업무가 신
속, 정확하게 처리되며 컴
퓨터의 실용화를 기하게
된 현실에 이르렀으며 앞
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1) 각 지역 심사신청서가
당원 도착일로부터 종전에는
1~2개월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10~15일 이내 품,
단증이 발급 가능하며,

(2) 태권도인의 품, 단증 분
실로 인한 재발급 업무의
번호 확인등이 어렵고, 복

2. 전산장비 구입 및 소요 예산

가. 장비내용

구분	구입일자	장 비	비 고
1차	85. 3월	본체 (삼성 N/5200), 프린터, H/D(10MB) 각 1대	1,100만원
2차	88. 6월	본체 (삼성 N/5200-05 SUPER), 프린터, H/D(20/MB), 모뎀 (온라인용), 압인기, 제단기, 코팅기, 각 1대	1,270만원

나. 소요예산

내 용	금 액	비 고
계	₩ 43,700,000	
전산장비	₩ 23,700,000	1차 설치비 : ₩ 30,000,000
프로그램 개발비	₩ 6,000,000	2차 설치비 : ₩ 13,700,000
85. 5월 이전 기록 자료입력비	₩ 14,000,000	

3.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가. 현재 이원화 시스템운영

구분	장 비	비 고
부서		
국 기 원	P.C 컴퓨터 (삼성 N/5200)	
한국전산(주)	FACOM M360R HARD/DISK	온-라인 설치 운영

* 당원 단위 전산운용 시스템은 현재 1억원 예산소요

나. 자료전산운영요원

직 책	계	남	여	비 고
계	5	2	3	
자료과장	1	1		
전산담당	1	1		
키런치요원	3		3	자료확인 기타업무

다. 연간 전산관리운영 소요 비용

내 용	금 액(연간)	비 고
계	₩ 28,000,000	월 : ₩ 2,330,000
전산처리료	₩ 17,000,000	월 : ₩ 1,416,000
품, 단증 인쇄비	₩ 8,000,000	
코팅, 비닐	₩ 2,000,000	
기타	₩ 1,000,000	

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번호 확인이 컴퓨터에 의거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전산관리업무 내용

- (1) 개인별 고유번호에 무력자료 입력(1품, 1단을 고유번호 부여와 동시 자료입력) 및 자료전송입력 (한국전산(주) 대형 disk)
- (2) 개인별 무력 확인 조회
* 고유번호 모를 때 성명, 생년월일로 무력조회
- (3) 대, 소(품)단증 전산타자 발급

구 분	시 간 당 타자능력	비 고
대품, 단증	350매	한,영타 동시타자
소품, 단증	2,000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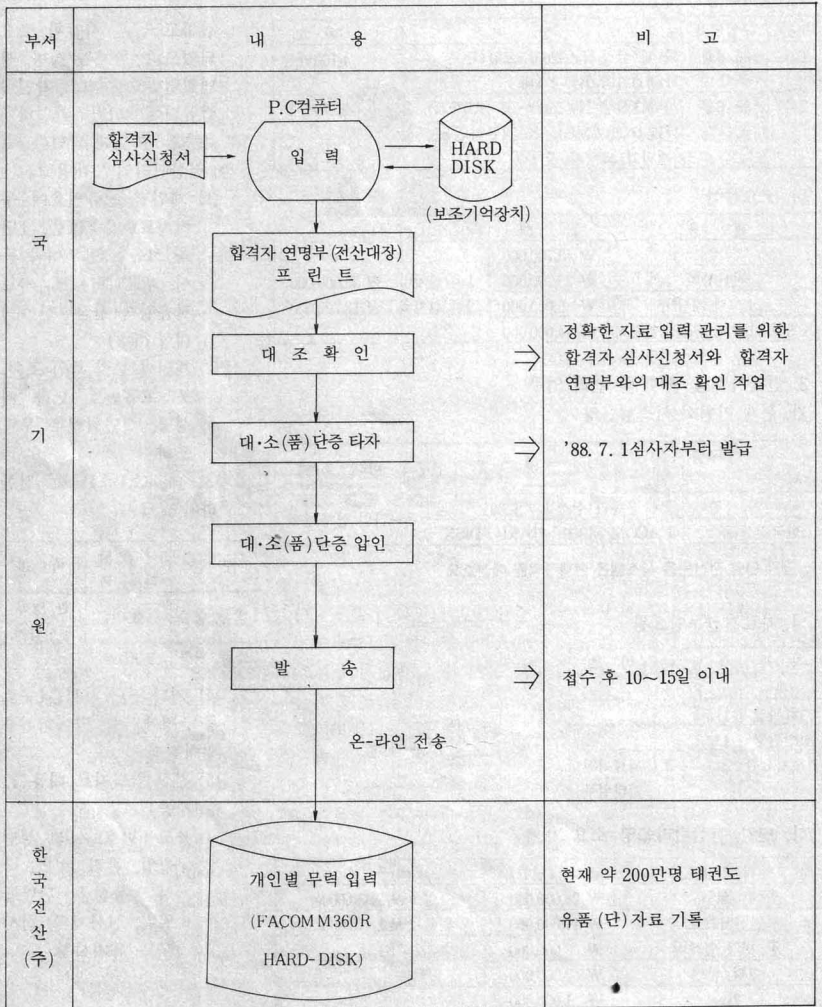
(4) 기타 사법자격증(수료증), 명예단증, 명예회원증 입력관리

(5) 전산 입력자료 내용(11개종)

*고유번호, 성명, 생년월일, 본적, 성별, 국적, 응심품·단발급일자, 심사지역, 심사구분, 특기사항

태권도 뉴스

(6) 전산업무 처리도(구성도)



4.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모든 기록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 강조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신청서 작성요령(일선 체육관장 및 사범)

(1)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은 필히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에 의거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하되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정자로 표기

(2) 차 상위(품, 단) 응심자의 고유번호는 필히 품(단)증을 확인하여 번호와 발급일자를 정확히 표기

(3) 각 품(단) 응심자의 심사신청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되 피심사자 주민등록표 여부 확인후 첨부(타인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한다)

*외국인은 심사당시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첨부

○여행 및 출장 중 국내 심사자는 입출확인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국내 거주자는 외국인 거주 확인서(동사무소발행, 직장인은 재직확인서)

○학생은 해당 학교 재학증명서

○군인은 부대장(중대장) 확인서

(4) 심사신청서 상의 각란의 기록사항은 누락없이 표기 특히 수련도장(관장명) 및 전화번호 표기(착오사항 확인하기 위함)

나. 성명 및 생년월일 정정 및 재발급 신청 요령

(1) 성명 정정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동일인 공증서 1부(합동법률사무소 발행)
· 본인 자필 이유서 1부(별첨 2양식)

· 증명사진 1매

(2) 생년월일 정정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본인 자필 이유서 1부
· 증명사진 1매

(3) 품, 단증 재발급
· 별첨 1양식에 의거한 신청서 제출

· 해당란에 기입내용 표기(성명, 생년월일, 품(단)번호 및 발급일자, 사진 1매 등)

(4) 수수료(우송료 별도)

내 용	수수료
재발급 : ●소품, 단증 ●대품, 단증	국기원 소정금액
성명, 생년월일 정정 품에서 단 전환자 (15세 이상자)	

*국기원 주소 : 우편번호 :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국기원 사무국(재발급 담당자)

라. 각 시도 협회에서는 승(품)단 심사 결과(심사신청서와 수수료)를 심사규정 제18조에 의거 10일내에 당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도 협회에서는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승(품)단 심사결과 지연제출로 인한 심사일자 승품, 단 번호부여 관리 곤란 초래

“예” 심사일자는 빠르나 번호는 늦은 번호부여로 차후 식별 혼란 초래

(2) 지연제출에 따른 품, 단증 발급이 늦어짐으로써 각 지역 피심사자(학부모 포함)문의 등원성 집중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전 태권도인의 명예손상 초래

(3) 심사수수료는 전 태권도인의 공금임으로 지체없이 계통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면 오해의 소지 발생 초래

태권도 뉴스

발 급 신 청 서

(양식 1)

성 명		본 적				사진 (1매)
생년월일		주 소				2 × 3
현 품 단	현품단번호	호	신 청 인			
발급일자			지 역			
비 고						

사 유 서

(양식 2)

본 적 :
주 소 :
성 명 :
현 품 단 :

생년월일 :
품단번호 :
발급일자 :

가. 정정내용

성 명	오(을)	정 (로)
생년월일	오(을)	정 (로)

나. 정정사유 (6하 원칙에 의거 기술)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88 서울올림픽대회 공로자

- 김대연·이덕태 체육부장관 표창장 수상 -

'88서울올림픽 태권도시범경
기본부에 소속되어 맡은바 임
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한 공로로
지난 4월20일 시상담당관 김대
연(본 회 기획본부과위원장) 사
범과 연습장담당관 이덕태(국
기원 과학기술본부 부위원장)
사범이 체육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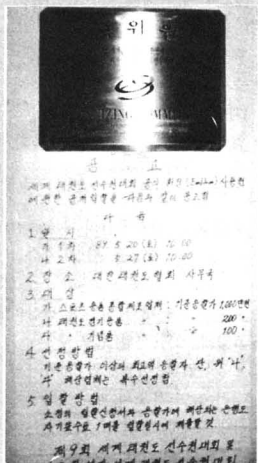


체육부장과 표창장을 홍종수 부회장이 전달하고 있다.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공식회장 공개입찰

오는 10월 9일에서 14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될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공식회장(Emblem) 사용권이 공고돼 2회(1차 '89년 5월 20일, 2차 5월 27일)의 공개입찰을 거쳐 결정됐다.

회장의 공개입찰은 대회의
경기용품 및 기념품 등의 난립
을 방지하고 경기용품 관계업
체와 조직위(본회)간의 객관적
관계정립을 위한 조치의 일환
으로 실시하였다.



제9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및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사업 운영계획확정

1. 개요

가. 대 회 명 : 제9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및

제2회 여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주 최 : 세계 태권도 연맹

•주 관 : 대한 태권도 협회
(대회 조직 위원회)

•후 원 : 체육부, 대한 체육회,
서울특별시

나. 개최목적

•세계 각 회원국간의 우호증진
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양과 국위 선양 도모

•공산권및 비동맹권 회원국의
대거 참여 유도과 체육문화교류
확대 추진

•IOC를 비롯한 국제스포츠 기

구와의 협조체계 확립

•태권도 중주국의 위치부각으
로 한국의 지위강화

다. 대회기간

•공식일정 : 89. 10. 5.~89. 10.

15.

•경기기간 : 89. 10. 9.~89. 10.

14

라. 대회장소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

마. 참가예상 규모

•제9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
회(남자)

참가국 : 60개국

참가인원 : 160명, 선수 360명,
계 520명

•제2회 여자 세계 태권도 선
수권 대회

참가국 : 40개국

참가인원 : 임원 90명, 선수

200명, 계 290명

•선수단 합계인원 : 임원 250
명, 선수 560명, 계 810명

바. 연 습 장

•명칭 : 국가원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테헤란로 변)

•사용기간 : 89. 10. 1.~13.

사. 추천및 대표자 회의

개요

일시 : 1989. 10. 8~

14 : 00~16 : 00

장소 : 본부 호텔(세라톤 위크
힐)

참석대상 : 참가팀 임원 2명, 세
계연맹 감독관, 조직
위 경기부장, 경기
담당관외 경기운영
요원

태권도 뉴스

2. 행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행 사	비 고
10. 5-7		09:00-18:00	선수단 등록	
10. 6	목	15:00-16:00	세계태권도연맹 합동기술회의	
10. 7	토	10:00-11:00 13:00-15:00 15:00-17:00	집행 위원회 총회 등록 총회	
10. 8	일	09:00-10:00 10:00-18:00 14:00-18:00 14:00-16:00 19:00-21:00	국제심판 회의 제4회 국제심판 보수교육 세계 태권도연맹 의무 위원회 회의 대표자회의및 추첨 환영연회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주최	각국임원선수단
10. 9	월	07:00-08:00 09:00-13:00 14:00-15:30 15:30-20:30	계체, 남자부-플라이, 웰터 여자부-핀, 라이트급 경기 예선전 남자부-플라이, 웰터급 여자부-핀급 개회식 경기 예선전 남자부-플라이, 웰터급 여자부-라이트급	
10. 10	화	07:00-08:30 09:00-13:00 13:00-21:00	계체, 남자부-밴텀, 미들, 핀, 라이트급 여자부-페더, 헤비, 플라이급 경기 예선전 남자부-밴텀, 미들급 여자부-페더급 경기 예선전 남자부-밴텀, 미들, 핀, 라이트급 여자부-헤비, 플라이급	
10. 11	수	07:00-08:00 09:00-13:00 13:00-20:00 20:00-20:50	계체, 남자부-핀, 플라이, 웰터급 여자부-밴텀, 핀, 라이트급 경기 예선전 남자부-핀급 여자부-밴텀급 경기 예선, 준준, 준결승 남자부-플라이, 웰터급 여자부-핀, 라이트급 경기 결승및 시상 남자부-플라이, 웰터급 여자부-핀, 라이트급	

태권도 뉴스

일 자	요일	시 간	행 사	비 고
10. 12	목	07 : 00-08 : 00	계체, 남자부-라이트, 밴텀, 미들급 여자부-미들, 페더, 헤비급	
		09 : 00-13 : 00	경기 예선전 남자부-라이트급 여자부-미들급	
		13 : 00-20 : 00	경기 예선, 준준, 준결승 남자부-밴텀, 미들급 여자부-페더, 헤비급	
		20 : 00-10 : 50	경기 결승 및 시상 남자부-밴텀, 미들급 여자부-페더, 헤비급	
10. 13	금	07 : 00-08 : 00	계체, 남자부-페더, 헤비, 핀, 라이트급 여자부-웰터, 밴텀, 미들급	
		09 : 00-13 : 00	경기 예선전 남자부-페더, 헤비급 여자부-웰터급	
		13 : 00-20 : 00	경기 예선, 준준, 준결승 남자부-핀, 라이트급 여자부-밴텀, 미들급	
		20 : 00-20 : 50	경기 결승 및 시상 남자부-핀, 라이트급 여자부-밴텀, 미들급	
10. 14	토	17 : 00-08 : 00	계체, 남자부-헤비, 페더급 여자부-플라이, 웰터급	
		09 : 00-13 : 00	경기 예선전 남자부-헤비급 여자부-플라이, 웰터급	
		13 : 00-18 : 00	경기 예선, 준준, 준결승 남자부-페더, 헤비급 여자부-플라이, 웰터급	
		18 : 00-18 : 50	경기 결승 및 시상 남자부-페더, 헤비급 여자부-플라이, 웰터급	
		19 : 00-20 : 00	폐회식	
		20 : 30-	환송연	
10. 15	일	09 : 00-18 : 00	관광	
10. 16	월	09 : 00-20 : 00	출국	

3. 시상

가. 개인시상(참가선수)

• 남자 : 8체급별

1위 : 상장및 금메달(1명)

2위 : 상장및 은메달(1명)

3위 : 상장및 동메달(2명)

• 여자 : 상동

* 체급별 개인 시상시 1위 국가연주및 메달 수상자의 국기개양

나. 단체시상(참가국)

• 남·여공동 1위국 : 상장(2), IOC 위원장배(2)및 조직위원장트로피(2)

2위국 : 상장(2), 체육부장관배

(2)및 조직위원장트로피(2)

3위국 : 상장(2), KOC위원장배(2) 및 조직위원장트로피(2)

• 남자

04~6위 : 상장및 조직 위원장

트로피(3)

○감투상 3개국, 장려상 3개국

: 상장및 조직위원장 트로피(6)

다. 참가국 별 단체 성적집계방법

1) 국별 참가 선수 1인당 1점 부여

2) 국별 체급별 토너먼트 1승당 1점 가산

3) 국별 획득 메달당

금 7점

은 3점 가산

동 1점

합산한 점수 순으로 종합등위산정

라. 연구 세미나

-일시 : 89. 10. 8.

14 : 00~18 : 00

-장소 : 세라톤 위커힐 호텔 소회의장

-참석대상 : 세계연맹 의무의원,

각국 팀 닥터 및 학계 관

련자 약 50명 예상

-내용 : 태권도에 관한 의학적 연구논문 발표 및 의견 교환

마. 연회

-환영연

• 일시 : 89. 10. 8

• 장소 : 세라톤 위커힐 볼룸

• 대상 : 참가선수단 및 국내외

내빈 약 1,500명 예상

• 주최자 :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바. 환송연

• 일시 : 1989. 10. 14

• 장소 : 미정

• 대상 : 참가선수단

• 주최자 : 미정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고등학교 태권도대회」신설

본회에서는 장차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대비하여 한국태권도의 장래를 짚어질 고교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과 더 많은 실력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고등학교 태권

도대회를 승인하였다.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고등학교 태권도대회 1회 대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는데 참가자격은 국기원 1단(품) 이상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89

년도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

본 대회의 남녀 최우수선수에게는 경희대학교 입학특전이 주어진다.

'89년도 심판보수교육

3. 3~4 국기원

본 회에서는 89년도 심판보수교육을 실시, 1급심판원 51명, 2급 49명, 3급 433명 등 533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이 실시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심판보수교육에는 사범들의 태권도경기에 대한 심판규정과 득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88서울 올림픽 대회 공로자

— 이봉·권태호·하태경·추난울·김현희 대통령 표창장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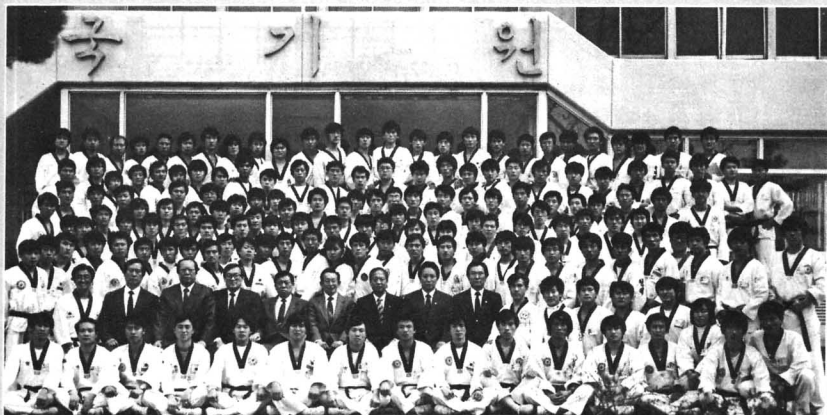


이봉(본회총무부장)은 제24회 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본부 보도담당관으로 완벽한 보도지원업무를 수행을 통해 내외신기자들에게 한국과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선수로는 금메달을 획득한 권태호(동성고3년), 하태경(한국체대1년), 추난울(청산여상2년), 김현희(경희대3년)선수가 지난 4월19일 오전 10시 잠실올림픽회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60기 지도자 교육

— 157명 수료, 최점현·조효종·손성도·김주환 우등상 수상 —



국기원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89년3월9일~18일(9일간)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여, 157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타의 모범이되는 교육생에게는 우등상을 표창하였다.

총등록자 : 169명

수강자 : 169명

합격자 : 157명

우등상(4명) :

최점현, 조효종, 손성도, 김주환

표창장(4명) :

최점현, 이상호, 이정아, 김태환
강윤원, 최태준, 신현두, 이상재,

이정아, 천정필, 장두영, 홍민표,
허광길, 임재순, 서정국, 송형달,
이병희, 엄정흠, 설태우, 이근희,
정상문, 한영훈, 김승곤, 이성천,
최점현, 서창근, 김대수, 성동표,
임태규, 최 길, 백승현, 박해근,
진병욱, 김동하, 이재규, 서주현,
김경준, 양재기, 이철중, 나민수,
김영주, 최내인, 김영근, 김동중,
김문환, 강창식, 조효종, 김재환,
전수봉, 임철현, 정재현, 장상덕,
정부철, 윤영춘, 오승재, 한기현,
김장수, 진완구, 이정열, 한기용,
이성재, 윤왕호, 정홍태, 안기호,
박정진, 김병국, 박종백, 김종진,
왕병수, 임 섭, 최한성, 김성환,

박광수, 백상민, 홍성언, 박현도,
이근호, 박익규, 김남국, 서보윤,
장두원, 손찬식, 석옥륜, 조영복,
김기웅, 탁진철, 강용구, 박경식,
구병화, 이종달, 김상우, 양선기,
이장수, 이규환, 김종우, 박용운,
김성수, 김웅진, 권영배, 전병준,
이승화, 안두영, 박삼용, 김봉용,
김영철, 유종섭, 하계수, 정인영,
김학규, 이원형, 김주환, 박수현,
윤승창, 이종연, 김수열, 김복수,
박상만, 장철인, 이정선, 한승협,
김석현, 이을호, 전석주, 송세권,
유영현, 이재호, 조진희, 김선규,
이운용, 최성식, 김 진, 구재현,
권정규, 김상열,

제9기 2급지도자교육

- 119명수로, 박병관·김복수·황동춘·최정권·김준호·시진용·김홍삼 수상 -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는 제9기 국가검정 2급 경기(태권도) 지도자연수과정교육을 지난 4월10일부터 28일까지(19일간) 실시 130명이 입소하여 119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은 16개 과목 총 128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검정자격시험을 치루어 2급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다.

교육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은 우등상과 표창장을 받았고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만우, 심재완, 이우영, 홍성구, 윤봉길, 한성원, 시진용, 홍석영, 이기익, 조용환, 김영현, 김덕철, 홍은석, 이근철, 강석갑, 이선복, 황승하, 김승곤, 최정권, 심우성, 조승우, 최승호, 이미옥, 황동춘, 이윤규, 임종범, 김창열, 김범석, 하계수, 이근호, 이영철, 김유환, 김구현, 서정천, 정이윤, 신현중, 백승현, 전홍수, 이재규, 김한주, 최찬웅, 김선대, 김홍기, 이태환, 서주현, 박수현, 김동하, 유종섭, 엄정홍, 손성도, 홍성원, 김복수, 이철중, 김규인, 황인재, 양일동, 황선영, 사영광, 조성일, 서운옥, 최승규, 노천식, 김재민, 강근혁, 권정규, 심재우, 권성희, 권종순, 박병관, 박현도, 이태희, 백상민,



황용택, 김주홍, 김숙자, 이창돈, 김준호, 박호근, 나양환, 배덕환, 김대신, 이화균, 전중철, 이인철, 오세웅, 김상우, 손상무, 권철진, 정부우, 윤왕호, 최병호, 라갑성,

김홍삼, 한재환, 천정필, 한기용, 진병옥, 이희용, 최금세, 정상용, 이승화, 장철인, 김영희, 김경윤, 윤두중, 김재봉, 김경준, 우희창, 박정진, 이현재, 최선길.

제61기 지도자교육

— 171명 수료, 오재덕·진해인·전석길·강동건 우등상 수상 —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는 제61기 태권도지도자교육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여 17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중 성적우수자 4명에게는 우등상을 행동이 타의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는 표창을 하였다.

총등록자 : 186명

수강자 : 177명

합격자 : 171명

박재수, 김병태, 권영부, 이경기, 김덕일, 양덕훈, 차진희, 박경희, 이해정, 오경연, 이종열, 전석길, 이해숙, 유해달, 허 윤, 김영규, 김승환, 공영현, 오정수, 오상훈, 김화영, 엄경범, 문도찬, 위호일, 유삼형, 서광수, 최상조, 이용혁, 김남수, 임상규, 김근호, 조환주,

김덕수, 송상현, 우하성, 서복래, 안학락, 서한석, 이대의, 이 철, 김정현, 정강현, 고연섭, 안덕기, 최한영, 이철승, 박영훈, 이강현, 한광동, 홍석규, 임재영, 박배진, 신성공, 강도영, 이창승, 김영대, 박영기, 박종목, 김대현, 공구식, 이주범, 김지홍, 정철호, 백명학, 이현섭, 정태원, 신성기, 강동진, 김동일, 임봉덕, 서성인, 이상복, 김진상, 최원호, 민관철, 김윤식, 서재환, 김두복, 남준준, 정찬우, 오만택, 임태용, 김민재, 배기철, 김명환, 정범수, 박병권, 최한수, 김종규, 고성중, 오상훈, 오재덕, 변운, 조현희, 유경동, 소청영, 박영숙, 김형섭, 김정실, 배운재, 민병기, 김춘일, 이상기, 황선영, 이병근, 소병준, 박명순, 박승만,

김동윤, 황상수, 이혁중, 오성택, 이기욱, 장길수, 유덕중, 박두순, 박병철, 이재창, 이재철, 송정호, 박창현, 이동환, 박종배, 이재명, 이진광, 김근진, 김경훈, 윤광휘, 이원규, 이현규, 김복명, 한상학, 주영협, 김광용, 전익성, 박승규, 박영목, 오희택, 구두희, 이상길, 김호성, 김낙규, 임락준, 최상호, 조재안, 강래선, 조동인, 원종섭, 백남명, 정정실, 김창영, 박진수, 조현도, 조지환, 김광수, 박성배, 안종현.

우등상 (4명) :

오재덕, 진해인, 전석길, 강동건

표창장 (4명) :

임재영, 김복명, 김덕일, 변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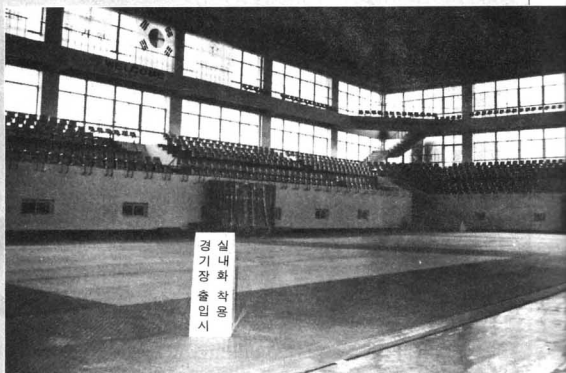
국기원 경기장 새롭게 단장

국기원은 6월 3일 경기장안의 바닥을 메트로 깔아 새롭게 단장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국내의 각 종 태권도 경기를 본격적인 국제경기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한다.

선수보호면에서는 물론, 갈라시대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메트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니 모든 태권도인이 내집같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세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국기원, 식목일날 식수

국기원은 4월5일 식목일날 전직원(45명)이 함께 나와서 식수를 했다.

식수종은 잣나무 50주 단풍나무 32주(20년생) 향나무 12주(30년생)로, 식수를 끝낸 후 역삼공원 자연보호 행사도 실시하였다.



계간 태권도지역 편집위원 위촉

본회에서는 계간 '태권도' 편집을 위한 각 시도협회의 소식을 바르고 빠르게 전달받아서 본지에 게재코저 시도협회에 편집위원추천을 의뢰하였다.

6월15일 현재 추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윤성노
부산직할시 협회 도장관리분과
위원장, 구포체육관장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김영곤
대구직할시협회 전무이사, 화
랑 영수학원 원장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윤웅석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이사,
태권도 전남체육관 5도장 관장

○대전직할시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오노균
대전직할시협회 섭외이사, 오
현체육관 관장

○강원도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최찬영
강원도협회사무직원
○경기도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김형호
경기도협회심판이사, 청도체육
관 관장

○전북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김재선
우승체육관 관장

○경남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황길성
경남태권도협회 이사, 마산합
성국민학교 교무주임
○제주도 태권도협회
편집위원 : 정한수
학사체육관 관장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도,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남도협회 등에서 9명의 편
집위원을 추천해 주었다. 많은
조언과 좋은기사를 보내줄 것
을 믿고 또 당부드린다. 그리고
편집위원을 아직 추천하지 않
은 시도는 추천을 당부드린다.



대전직할시
오노균위원



강원도
최찬영 위원



경기도
김형호 위원



전라북도
김재선 위원



경상남도
황길성 위원



제주도
정한수 위원



부산직할시
윤성노위원



대구직할시
김영곤위원



광주직할시
윤웅석위원

현대정공(주) 실업팀창단준비



유인 규부사장

국가대표 1차선발대회에 3명의 현대정공(株)의 선수가 출전하여 현대자동차에 이은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어 태권도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88년 12월5일에 태권도부발대식을 갖고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신설돼, 현재 100여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으며 89년 1월 코치겸 선수에 김병삼 코치를 비롯 3명의 선수가 스카우트 수련을 하고 있다.

팀창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



현대정공 태권도부

는 김병삼 코치는 유인규부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인규 부사장은 울산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아 울산시 태권도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태권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태권도의 원로인 이수길(오일상사대표 울산태권도협회 부회장) 사장의 적극적인 활동도 현대정공의 태권도부 창단에 큰 힘이 되었다는 후문.

윤희준(플라이급) 조희진

(밴텀급) 김선백(페더급) 선수는 현대정공 총무부의 정식직원으로 오전근무가 끝나면 오후에는 태권도부원들과 수련을 하며 선수로서의 기량을 갈고 닦으며, 팀창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실업팀이 창단되어 농구나 야구등의 종목처럼 국민대중의 사랑과 성원을 받아 실업리그전 등이 활발히 전개돼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일조를 하기를 바란다.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청운 체육관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5월에 선조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정절의 고장 남원 골에서 춘향제전 행사가 5월 11일~1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이란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전국적인 규모로써 세계적대회를 향해 비약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은 국민의 관심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남원 청운체육관 수련생 100여명과 유치부 어린이 60여명, 남원 성원고등학교 1, 2학년 전체 수련생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학부형들의 일차단결로 제59회 춘향제전의 시가행진을 했다. 이것은 태권도가 국민의 사랑과 관심속에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행사였다.

춘향제전의 시가 행진은 참다운 태권도 보급의 전진기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라



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체육향상을 위한 노력 등은,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기술보급에 많은 공헌을 했다.

투철한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인내, 예의, 기술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는 청운체육관(관장: 박광수)은 각종 전북대회에서 상위입상의 전적도 가지고 있다. 성대하게 진행된 춘향제전 전야제에는 참배, 불꽃놀이, 군악연구회, 군악대 시가행진, 낙배, 관등점화식, 12~13일에는 기념식, 고전군무 춘향뿔기, 전국국악(판소) 명창대회, 14일에는 춘향행렬, 미술대전, 그네뛰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고공비행낙하시범, 춘향창극, 글짓기 백일장, 민속씨름대회, K.B.S. 노래자랑, 농악경연대회, 사진촬영대회, 춘향날뛰기, 춘향기쟁탈 영·호남 테니스대회, 풍물시장 개장 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각종 행사가 펼쳐져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태권도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부산직할시태권도 협회

부산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1월30일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최용수부회장을 회장으로로 전무이사에 이근우, 총무이사에 최정권, 감사에

윤병갑, 정종신씨를 각각 선출하고 권오현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부산직할시 태권도 협회 임원



권오현 명예회장



최용수 회 장



이근우 전무이사



최정권 총무이사



윤병갑 감 사



정종신 감 사

강원도 협회



제1회 강원도 어린이왕 태권도 겨루기 대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6일(토)과 7일(일) 양일간 춘천실내 체육관에서 제1회 어린이왕

태권도 겨루기 대회가 열렸다.

강원도지역의 태권도 보급발전과 질적 양적의 선수 발굴 등 태권도 활성화에 목적을 둔 이날 대회에는 남자부 저학년(98명), 고학년(157명), 여자부(22명) 총 277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쌓아온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6일 오후 1시 고봉준 부회장으로부터 대회가 있는 뒤 철원 마현국민학교 이순옥 선수의 선수 대표 선서가 있었다. 이어 시작된 첫날 대회에는 관중석의 응원과 환호 등 선수들의 불꽃 튀는 열전이 벌어졌다.

이틀간의 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졌고, 제2회 대회에는 더 많은 선수와 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더 알찬 대회를 맺기를 다짐하면서 막을 내렸다.

입상선수 및 학교는 아래와 같다.

저학년 : 우· 승-근화국민학교(춘천) 준우승-부안국민학교(춘천) 3 위-우산국민학교(원주) 감투상-홍천국민학교(홍천) 장려상-영동국민학교(강릉)
고학년 : 우· 승-우산국민학교(원주) 준우승-근화국민학교(춘천) 3 위-소양국민학교(춘천) 감투상-학성국민학교(원주)

장려상-인제국민학교(인제)
여자부 : 우· 승-마현국민학교(철원) 준우승-춘천국민학교(춘천)
최우수 : 저학년-조대연(밴텀급, 근화국민학교) 선수상 고학년-최종순(웰터급, 우산국민학교) 여자부-안영은(플라이, 봉의국민학교)
지도상 : 저학년-이주복(호반체육관 사범) 고학년-양병석(효성체육관 사범) 여자부-사정옥(마현국민학교 교사)

경상남도 태권도 협회

경남협회는 지난 2월27일 대의원총회에서 회
장에게 임원구성을 위촉한 바 임원구성을 확정
하였다.



이순달 회 장



김억곤 전무이사



배용훈 총무이사



김학수 감 사



심의보 감 사

- 임 원 명 단 -

회 장	이순달	우담정대표
부 회 장	유기준	거창전신전화국
	배영석	삼미종합특수강기사
	장춘식	사업
	김선규	우성식품 총무(영)소장
	황문길	건설업
	김상수	고려시멘트 대표
	조봉래	향토발전연구소장
전무이사	김억곤	경남대 경영대학원
총무이사	배용훈	동양체육관장
이 사	이병길	함양효리국 교사
	황길성	합성국 교사
	이수길	오일상사대표
	강성환	회원1동 사무소
	류호성	김해체육관장

이 사	김 종	종약국대표
	이상증	송화은친대표
	장정설	강화체육관장
	김정이	사업
	이주환	국민체육관장
	석시용	창무체육관장
	강진홍	경상대 교수
	이윤근	윤성빌딩대표
	박용덕	태화극장대표
	홍영표	대보상사대표
	윤동식	학토정대표
	이상윤	지지패션대표
	이종호	한일여실고 교사
감 사	심의보	비봉체육관 관장
	김학수	산청종고 교사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전북협회에서는 회장이 바뀔때 따라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새 집행부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북협회 임원



이상철 회장



유병용 부회장



문창군 부회장



이건수 부회장



임동진 부회장



장한철 부회장겸
전무이사



이병화 경기이사



박영진 총무이사



백남구 감 사



이재우 감 사

광주직할시 태권도 협회

제3회 국민학교대항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 개최

오월의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며 예순일곱 돌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자라나는 태권도 꿈나무 교육에 토매이 되고자 제3회 국민학교 대항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광주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오전 9시부터 전년도 우승팀인 광주상무국민학교 선수단을 비롯하여 백운, 서산, 중앙, 중흥, 양동 등 12개팀과 개인 132명, 총 223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89년도 태권도 최고의 왕이 되고자 높은 기량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본 협회를 이끌어 가는 김주훈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광주직할시 의사회 회장인 김두원 의학박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의 힘찬 기합소리와 응원가로 경기는 시작돼 무르익어 갔다.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심판원 기록 카드를 제작, 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출전선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진번호판을 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은 물론 선수 파악과 자기 소속팀 선수들의 출전준비에도 도움을 주었다.



시상식에서 단체 입상자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상품이 꾸집하였고, 많은 관중들이 실내체육관 스탠드를 가득 메웠다.

단체 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 승 : 광주상무국민학교 선수단

준우승 : 광주백운국민학교 선수단

3 위 : 광주서산국민학교 선수단

감 투 : 광주양동국민학교 선수단

장 려 : 송정서국민학교 선수단

각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핀 급 : 광주남고 김경렬 플라이급 : 방림국교 이경석

밴텀급 : 백운국교 강무희 페 더 급 : 서산국교 이승현

라이트급 : 중흥국교 채호철 웰 터 급 : 상무국교 서진권

미 들 급 : 상무국교 김선인 헤 비 급 : 상무국교 이상학



태권왕좌에 오른 상무국교 웰터급 서진권 선수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트로피와 부상으로 받은 자전거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

여수 고등학교 태권도부

“충무공의 얼이 깃든 명문 여수고등학교”

종고산 솟은아래 터전을 잡고
오동도 푸른물결 바라보는 곳

충무공 혼이 깃든 남국의 강산
여기서 자라나는 대한의 아들
자유와 정의는 우리의 전통
겨레를 이끌어갈 여수고교
이들은 한국 최 남단 여수반도에 자리잡고 있
는 여수고등학교의 교가 일절이다. 1945년 10월
19일에 개교한 이래 금년으로 38회의 졸업생을



김용백 교장



서만수 감독교사와 현동수코치 및 여수고태권도부 선수들

배출한 44년의 전통을 가진 여수고등학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수병을 훈련시켰던 유서깊은 장대(將臺) 언덕에 자리잡은 학교로써 지·정·의·체(知·情·意·體)의 조화로운 인문계 고등학교로 36학급 2,100여명의 재학생과 김용백 교장, 김태환 교감선생님을 비롯 90여명의 교직원들이 충효(忠孝), 실력(實力), 희망(希望)의 교훈아래 자랑스런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려는 굳은 의지로 혼연일체가 되어 88년도에도 서울대 21명, 고려대 31명, 연세대 11명, 과학기술대학 3명과 전체 11명이 각 대학의 과 수석을 차지하는 등 3학년 재학생의 83%가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높은 진학율을 올렸으며 지금도 불철주야 장대(將臺) 도서관에서는 명문으로 가기 위하여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1986년 9월 7일 제17대 교장으로 부임하신 김용백 교장성생남께서는 “쉽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공부하자”

“공부 잘하는 감동이 보다 건강한 운동이가 낫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자”는 교육철학을 갖고 태권도부의 창단을 서둘러 1988년 3월 18일에 전라남도 태권도협회 김정록부회장과 박창웅 전무이사 그리고 여수협회 김태

용 회장과 학부모 내의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여수중학교 졸업생 6명으로 역사적인 창단을 하였다.

현재 서만수 감독교사와 현동수 코치의 지도 아래 知와 技를 겸비하는 훌륭한 태권도 선수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충무공의 얼이 깃든 장대 체육관에서 태권도부의 우렁찬 합성이 종고산에 메아리치고 있다.

여수고등학교의 태권도부는 6교시 정규수업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일 영어단어 5개 한문 5자를 써서 서만수 감독교사에게 검사를 받고 하루의 일과를 끝낸다.

현재 선수 6명은 여수에서 기거를 하며 야간 훈련에까지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박창웅 전무이사의 각별한 배려로 현동수 코치를 천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현동수 코치는 선수와 함께 합숙을 하면서 야간훈련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지도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하여서 창단 1년만에 전남 학도제전에서 편급 지원군이 1위 플라이트급 박형식군(주장)이 1위를 했으며 전라남도 도지사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현재 여수고등학교는 태권도부 이외에도 탁구부가 있으며, 탁구부가 역사를 깊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가 많이 배출하였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혼이 깃든 장대언덕에 자리잡은 장대체육관에서 태권도부의 우렁찬 합성이 종고산에 메아리치고 남해 바다에 파도로 일렁이며 멀리 오대양에 퍼져 나갈 때 우리 여수고등학교 태권도부는 희망찬 내일을 맞게 될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68호 30페이지에 게재된 사진과 이름이 틀리게 인쇄 되어 바로 잡습니다. (전남협회)



박창웅 전무



방진록 총무이사



이정남 감사



생활예절교육으로 인격도야를

홍보실

최근 핵가족화 함으로써 한 가정 한 자녀를 두는 가정이 많아짐으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지나친 애정의 표현들이 자녀들을 온실속의 식물처럼 연약하고 의타심이 많은 자녀들로 만들고 있으며, 물질적인 행복에 대한 추구하고 경쟁심리를 가르치는 것이 현대 가정교육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청년여성교육원」 진민자(陣敏子) 원장은 지적했다.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슴치 않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육체적 향락과 물질적 풍요만을 쫓는 청소년들에게 세속적인 행복추구만을 가르치고 정신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가정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은 물질의 가치보다는 삶의 본질인 도리(道理)를 깨우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8~15세는 소학(小學)을 가르쳐 행동규범을 먼저 익히게 하였고, 16세 부터는 도리를 깨우치는 내용이 담겨진 대학(大學)을 가르쳐 정신 훈련에 힘써왔다고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현대 가정교육은 도리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며, 지식습득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몸가짐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예절 교육으로 인격을 수양하도록 가정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청년여성교육원에서는 전통생활 예절교육의 기본이 되었던 구사구용(九思九容)의 개념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예의범절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1. 행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감정을 가라앉히고 매사에 여유있게 행동한다).
2. 극기하는 마음으로 양보한다(극기는 스스로 나태해 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며, 사양함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 자세로 양보한다).
3.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얘기만 한다(사람은

말을 통해 인품을 남에게 드러내므로 대화의 내용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고 결정권을 상대에게 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4. 사람을 대할 때 거리개념에 유의한다(사람을 대할 때는 처음 만났을 때의 정중함을 지속시키며 자주 만나면서(지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5. 행동은 상황에 맞아야 한다(아랫사람 앞에서는 어른답게,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한다).

6. 모든 예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낸다(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맞는 인사법을 익혀 반드시 인사한다).

7. 행동의 선(線)을 살려 반듯하게 한다(물건을 놓거나 걸음을 걸을 때도 분명하고 곧게 한다).

8. 행동의 크기에 음양을 살린다(음양(陰陽)이란 삶의 본질인 남녀(男女), 좌우(左右), 진퇴(進退) 등 대비되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성은 약간 크게 여성은 약간 작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9. 옷차림은 단정하게 한다(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품위있는 차림을 하도록 한다).

우리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 위의 아홉가지의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도록 교육시키므로써 나날이 각박해 지는 세상속에서 나와 너를 갈라놓지 않으며, 남을 짓누르고 해쳐야 내가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적어도 나만이라도 소중히 여기기만 해도 남들이 불행해 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냉기가 감돌지는 않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예시예종의 무도정신이 바로 설 것이며,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확고히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독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에 채수웅 사범 선임

재독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1989년 2월 25일 14시 독일 북호스 추어리터부어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유환 회장 후임에 채수웅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개편을 하였다.

재독협회에는 대사배, 지역별 총영사배, 2세들을 위한 태권도 대회, 국제오픈독일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여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하여, 본회에서 발간되는 계간 태권도지를 재독사범들께 구독도록 분배하여 조국의 소식을 알리는 등 본회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현재 독일(서백림)에는 83명의 한국사범이 진출해 있으며 그중 52명이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금번 총회에는 44명이 참석하는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4월 10일 본 회를 방문한 송천수(재독협회 전무이사) 사범은 총회보고 및 전지훈련단 파견을 준비하기 위해 4월 4일

내한하여 소식을 전하고 11일에 출국하였다.

채수웅회장은 1971년도에 독일(서백림)에와 20여년간 태권도의 외길을 걸어온 사범으로 독일에서는 최초로 태권도 비데오를 제작하여 흥미로우면서도 실재의 태권도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현재 500여명의 종합체육관에 9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실력자라고 송사범은 전했다.

재독대한태권도협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7대 신임임원 명단



회 장 채수웅
(백림 채도장관장)



수석부회장
백길건
(에센 백호도장관장)



전무이사 송천수
(헤스올덴돌프, 사업가)

감사 김태현. 나진오

부회장 박길도(폴크링겐 박도장관장)

기획이사 차용길(오바하우젠 차도장관장)

교육이사 김우선(레버쿠젠 김도장관장)

경기이사 이강현(프랑크푸르트 이도장관장)

기술이사 강석선(백림 배도장 사범)

상벌이사 정한규(민덴 정도장관장)

홍보이사 정병구(백림 정도장관장)

마카오경찰청장외 10명과 국기원 방문 이동석사범



지난 5월 25일~29일 마카오의 Antonio Dias 경찰청장의 10명이 서울시 태권도협회장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기원방문은 물론 한국의 산업시설 등도 견학했다. 이들중 특경대원 4명은 국기원에서 특별심사를 보고 대회중이었던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관람하며 태권도경기의 진수를 맛보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고교생들과 친선경기를 통해서 안토니오 디오스 경찰청장은 마카오 팀들이 고교생들에게 밀리자 마카오의 전 특경대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서 유단자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구 50만에 태권도인구 1만여명을 보유한 마카오의 태권도는 5대 인기종목으로 태권도 기념우표까지 나올 정도라고 이동석사범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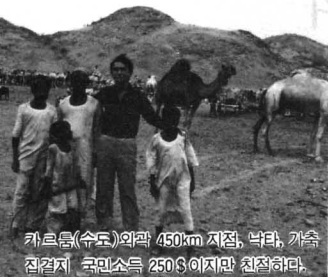
태권도 불모지인 마카오에 단신으로 나가 경찰청 정식 공무원과 특경대 무술사범으로 자리를 잡은 이사범은 마카오에 자리잡은 태권도를 후배에게 넘겨주어도 될 만큼 안정되었다며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 10억이 넘는 광활한 중국땅에 태권도의 함성이 울릴 날을 기대해 본다.*

아프리카 「수단」 강병권 사범

수단은 우리나라 면적에 11배나 되는 넓은 땅에 인구 4000만에 국민소득 250\$, 기후는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해당되는데 평균기온이 35℃이

고, 3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로 평균기온은 40~45℃를 오르내리며 1년에 1~2회 약간의 비가 오는 건조한 나라이다. 그러나 88년도에는 40년만

에 500mm²의 호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을 냈고 모래돌풍병인 문진, 전염병, 메뚜기떼 급습 등 고난이 겹치고 있다 한다.



카르툼(수도)외곽 450km 지점, 낙타, 가축
점결지 국민소득 250\$이지만 친절하다.

1978년에 태권도를 시작하였던 이곳에 1981년도에 정부파견 태권도사범 3명이 외교사원에서 태권도를 보급시켰으나 기후 등 여건이 어려워 인원이 줄어 89년 현재 강사범 혼자 수단태권도를 통괄 지도하고 있다.

수단에는 84년도에 인가된 민간클럽 카르툼협회를 비롯한 9개의 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30여개의 클럽을 중심으로 약 2천명 정도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주민들의 성품은 온유하고 친절하며 특히 태권도 사범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며 순종적이라고 한다.

수단에는 북한에서 격술사범이 파견되었으나 84년도에 철수를 했고 조만간 북한의 격술사범과 가라데사범들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태권도사범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회 운영부에 근무하다가

88년 2월에 출국한 강사범은 89년 5월 업무차 일시 귀국하였는데 「GNP 250\$의 나라에서 태권도 지도하기에 여려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복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수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하러 왔다고...

태권도를 신앙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행하기 어려운 개척사범에게 격려와 갈채를 보낸다.

협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도복 및 태권도용구 등을 보내주실 태권도 관계자 또는 동호인 및 각종기관 단체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우리의 태권도를 가리치는 강병권사범에게도 뜨거운 격려가 되리라 생각하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주소입니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내 외무부 문서담당관실
주 수단대사관 정파사범 강병권 앞



카르툼 '아일라' 클럽의 도장 개관식



카르툼 외곽 500km에 위치한 '일카르툼'의 변민가 클럽

— 태권도가족 내한 —

인도네시아 “수집토 로하르조”씨

작년 6월 여름방학을 이용 태권도수련을 위해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던 인도네시아의 실업가 수집토씨가 이번엔 부인 카하야나(KAH-YANA)와 자녀들 및 인도네시아 스포츠기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장녀 주리아(JULIA) 고교 2년 태권도 초단, 장남 헨리(HENRY) 중학3년 2단, 차남 리자(REZA) 2단, 등은 전 국가대표선수인 장명삼 사범에게 사사를 받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정과사범으로 수집토씨를 태권도와 맺게 해준 허영(국제심판 7단) 사범이 말했다.

이들은 6월 12일~7월 7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이들의 방문목적은 아들과 딸의 태권도수련을 제일 목적으로, 둘째는 국기원, 태권도협회 등을 자세하게 취재하고 태권도 원로들을 찾아서 태권도역사, 정신, 수련방법 및 원로태권도인 프로필 취재를 하기 위해서다. 스포츠전문기자 알피안씨(ALFIAN)와 수집토씨는 태권도 취재에 열을 쏟고 있다. 한국의 태권도인사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수집토씨 가족(부인, 장남, 장녀, 차남)

귀국해서 인도네시아에 「국기원」같은 중앙도장을 짓겠다며 사업가로서 한국을 관찰(?)하며 사업구상도 하러 왔다고 허영 사범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프리주니어대회(8세~14세)를 3회에 걸쳐 수집토씨 단독 후원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4회부터는 월드프리주니어대회를 열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했다.

태권도를 통해서 자립심이 생기고 의지가 강해진 아들을 보면서 다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도 태권도를 통해 씩씩하고 강인하게 성장하도록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수집토씨는 언급했다.

아들을 강인하게 키워서 10년후쯤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기업인이 되려면 승리와 패배의 맛을 고루 맛보아야 하며 패배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정신력은 태권도 정신에 있다고 강조한다.

승용차에 태권도 마크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태권도를 좋아하는 수집토씨는 수백개의 점으로 구성된 인구 1억7천5백만명의 인도네시아에 태권도의 함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 보급하겠다고 수집토씨의 말에 태권도인으로 감사한 마음에 머리 숙여졌다. *

열사의 나라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사범 내한

사우디 무슬림교의 “라마단 (금식)기간”(4월 7일~5월 10일)을 이용하여 휴가를 얻은 3명의 사범(전문법, 한순욱, 이정규)이 내한하였다.

1980년 사우디에 나가 알타라지 담남교민회 학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전문법사범은, 수련생들은 한국어린이들로 산업역군(건설업체 종사원) 자녀, 개인사업가 자녀, 스포츠지도자 자녀 등으로, 태권도를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두 씩씩하게 성장

하고 있다고 전하며 리아드와 젓다에 한인학교가 있어 사우디에 모두 3개의 학교가 있다고 한다.

1983년 사우디로 파견되어 주베일 페알로프 클럽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한순욱은 1일 4시간 근무하며 태권도부 약 60명을 수련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에 파견된 사범은 정부의 준공무원 신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한다.

1981년 사우디에 파견된 이

정규 사범은 사우디 담담성 치안국태권도 지도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새벽 6~8시까지 특수경찰을 6개월씩 지도해 졸업시키는 임무가 주된 일이라고 한다.

사우디는 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석유의 최대생산국으로 G.C.C.(석유 6개연합국 :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의 중추역할을 하는 석유의 보고이며 우리나라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칠레 조남수 사범

칠레에 간지 4년이 되어가는 조남수 사범이 ‘시범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된 일과 현지에 있는 후배 정범수 사범과 교제, 현지 올림픽위원회 전임코치로 옮기게 된 소식을 전해왔다.

칠레서는 처음맞는 전 세계 챔피언이라 반응이 좋았으며 군정(軍政)에서 민정(民政)으로 이양되는 과도기체제지만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고한 조남수 사범과 정범수 사범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칠

레에 태권도를 보급, 태극장을 심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하며 건투를 빈다.



괌 (GUAM) N.O.C. 부위원장

—지동주 사범 대한—



지난 6월 14일 투자유치사절단 14명이 방한하였다.

사절단원중에 괌 NOC 부위원장으로 있는 지동주사범이 동행하여 국기원을 방문하여 괌의 소식을 전했다.

관광의 나라 괌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90%가 일본인들이며,

괌의 경제에 90%가 대일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괌 경제의 최대의 현안이라고 전했다.

한국, 홍콩등이 괌에 투자유치도록 하여 괌의 출입을 「노비자」로 하겠다고 1985년 괌 NOC 부위원장에 피선된 지사범은 괌 NOC가 IOC 회원국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87년 12월에 IOC 회원국이 되었다.

'88 서울올림픽에는 선수 16명, 임원 4명, 기타 6명등 26명이 참가했고, 지사범은 통일로의 성화 봉송주자로 참석했었다.

괌에서 건축업, 투자개발, 여행사, 호텔등 경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수한 괌사람들끼리 설립한 은행에 이사로 참여할 만큼 괌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이다.

괌 시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해군 공군에게도 태권도 수련을 시키는 지사범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섰으므로 태권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태권도 사범이 타국에서 NOC 부위원장이 된 것은 최초의 일이며 우리모두의 자랑이다. *

일본 원정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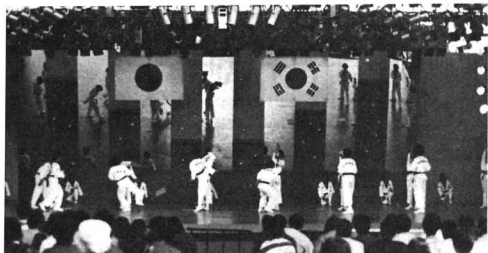
—어린이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한국어린이대표 태권도 시범단(미동국교)은 4월 29~5월 6일(8일간)까지 일본동경에서 국제 스포츠페어 '89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일본체육협회, 일본올림픽위원회, 富士 TV, 경제신문, 일본방송 등이 후원하여, 세계각국의 유명스포츠회사, 올림픽 금메달수상자, 세계

의 인기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주최측이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게 된 것은 '88 올림픽 개막식 공개행사 태권도 시범



경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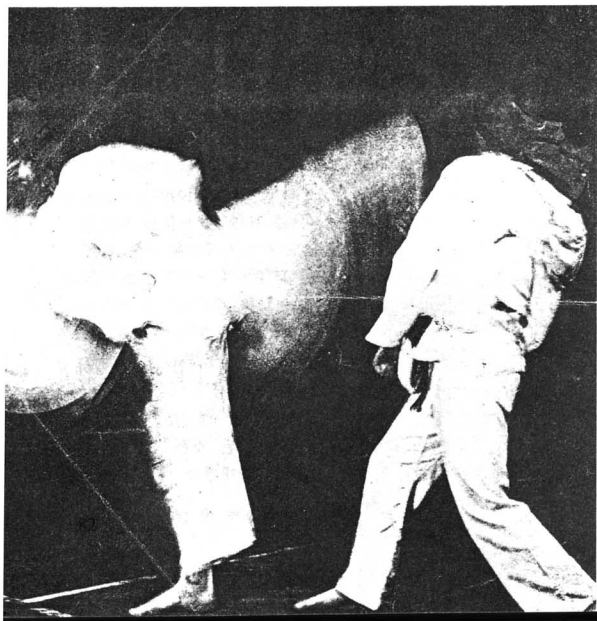
이번 일본원정 태권도시범은

세계속에 태권도를 다시 한번 알리는 좋은 기회였고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

과 기개를 일본인에게 보여준 행사였다.*

폴란드 (Poland) 語 關 태권도교본 발간

— 오스트리아 주재 이경명 사범 —



세계속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펼치는 태권도가 영어, 독일, 서반아어, 불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된 태권도 교재가 발간되어 세계속에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즈음 3월말 폴란드語로 태권도 교본이 새로이 발간되었다.

초판 5만부를 인쇄하였는데 4만부가 판매되어 재판을 찍고 있다고 오스트리아의 빈(AUSTRIA, WIEN)에 있는 이경명 사범이 소식을 전해 왔다. 112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각 나라말로 번역되어 세계인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며 배우는 태권도가 될 날을 기대해 본다.*

핀급, 국가대표로 선발된 철산여중의 김지향선수



김지향 선수

여가국가대표 선발전 핀급 부문에서 중학생이 여자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태권도계의 주목을 끌었다.

42Kg 150.6Cm의 작은 신장에 다부져 보이는 김지향(철산여중·3년) 선수는 '88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화진(영신여고·3년) 선수를 추격기인 돌려차기로 맞서서 2:0 판정승을 거두었다.

서면국민학교 4학년때 태권

도부에 들어가서 취미로 운동을 하게 된 것이 계기. 6학년때 학때 광명시 소재 소하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당시 사범이던 지금의 코치 이재원(29)씨의 눈에 띄어 철산여중 1학년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김지향선수의 장점은 왼발차고 이어 오른발차기와 뒤차기이며 단점은 상대가 붙아붙이면 뒤로 빠지는 것이 흠이라

고 이재원코치는 언급하면서 「단점을 좀더 보완하고 스피드와 체력에 주력해서 훈련을 한다면 기대되는 유망한 선수」라고 말했다.

중고연맹과 협회장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김지향선수는 경기시 느낌과 대표선수 선발 소감을 묻자 「기쁘구요. 맨 처음엔 떨렸어요. 그런데 코치선생님이 겁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1회전이 끝나고 마음이 가라앉아 그 다음부터는 떨리지 않아 시합을 잘 할 수 있었어요」라고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김지향 선수는 학교에 체육관시설이 없어 학교 옥상에서 새벽훈련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수업후에는 체육관에 나가 열심히 수련을 했다고 한다.

일부 태권도관계자들은 장신인 외국선수들과의 대전에 대비, 단신의 우리대표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어줄지 우려를 표시하면서 체력강화와 기량(사이드스)에 힘을 쏟을 것을 재삼 강조했다.*

“국가대표 페더급 2위를 차지한 박경숙선수의 코치는 아버지 박찬각씨”

페더급의 제주서귀 중앙여중 3년 박경숙선수와 박찬각코치(아버지 52세)를 여자국가대표 선발전이 한창 진행중이던 국기원에서 만났다.

제주도에서 출전한 유일한 팀으로 선수와 코치이전에 부너지간이기도 했다. 준결승까지 진출, 페더급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둔 박코치와 박선수는 언뜻보기에 부녀사이라기 보다는 선생님과 제자사이 같았다.

국민학교 6학년때 육상선수로 뛰다가 시합중부상과 기록 부진으로 중단.

동생이 태권도를 하는 것을 보고 활기찬 행동과 동작에 이끌려 배우게 됐다고 전하며 아버지 박찬각씨는 처음에는 싸이클을 시키고 싶었으나, 연습할 장소와 싸이클부가 있는 학교가 없어서 시키질 못했더니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는 없어요. 코치선생님도 없는 까닭에 제가 부득이 딸의 코치겸 세컨드를 보게 됐습니다」하고 겸손하게 밝히며, 「중앙여중에서 태권도를 하는 학생이 애 혼자라서 ‘태권도부 신설’을 학교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하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더군요, 집에도 찾아가 설득도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라고 말하며 섭섭함



박경숙 선수와 아버지 박찬각씨

을 표시했다.

시합에 대비한 훈련 과정을 질문하자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서귀포바다앞 해발 300m 위에 위치한 삼해공원에서 7~8초 이내에 50개의 계단을 뛰는 연습과 3Km 달리기 연습으로 훈련을 했어요」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박경숙선수의 전적을 보면 '87, '88년도 중고연맹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플라이급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88, '89 중고연맹회장기 대회에서는 라이트급 3위, 웰터급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1남1녀의 장녀인 박선수는 집에서 하는 식품가게에서 일도 돕는 효녀이기도 하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학교성적은 7~8위권. 그러나 중 1·2학년때 5위권내에 들던 성적에

비해 많이 떨어져 오는 7월 칼스루헤에서 열리는 제3회 월드게임 태권도대회에 갔다와서는 밀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야무지게 다짐하기도.

박경숙선수를 지도하는 서귀포 소재 덕인체육관 이덕부관장은 「경숙이는 집안일도 거들 어주고 체육관 수련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며, 체육관에서는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모범 학생이라며 학교공부도 잘하는 건실한 학생입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찬각 코치는 집안에서는 가정교육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며 「문성여고에서 스카웃 제안이 왔는데 딸을 홀로 서울에 보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털어놓으며 아버지로서의 정을 내보이기도 해...★

'89 전국 여자 선수권대회 핀급 우승한 유수진 선수



오산여중고의 유수진 선수

핀급의 우승자로 점찍어 놓았던 원선진 선수를 판정으로 제압하고 핀급의 여왕으로 탄생한 유수진 선수를 경기장에서 만났다.

유선수는 국교 3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하여 6학년 때부터 쉬고 중학 1학년에 입학하여 다시 1년간 수련을 하다가 쉬고 고교진학 후 다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경희체육관

오상운사범의 사사를 받고 있다.

오 사범은 경희대를 졸업하고 국군태권도부에서 선수생활을 한 태권도인으로 유선수를 국교 때부터 지도한 유선수의 스승이다. 「유선수는 성격이 온순하고 수줍음을 잘 타서 운동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패기가 좀 부족하나 6년간 다듬은 기본기가 완전에 가까워 경기 경험만 좀 쌓으면 훌륭한 선수

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선진 선수처럼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이길 수 있었음은 원선수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같은 수원에 사는 원선진 선수가 수련하는 도장에 나가서 연습게임을 가졌는데 첫 번 경기에서는 샌드백 노릇을 했고, 2번 째는 그런대로 건디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유선수는 말하며 승인을 「원선수는 차고 빠지며 받아차는 것이 특기라 한 스텝 더 밟으며 공격함이 유효했고 원선수보다 순발력, 스피드면에서 제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수줍어 말했다.

경기인 출신사범의 원선수의 기량과와의 예리한 판단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영원한 승자가 없음을 유선수, 원선수는 깨닫고, 지키고, 재기하는 훌륭한 선수들이길 기대해 본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전북협회에서는 회장이 바뀔때 따라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새 집행부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북협회 임원



이상철 회장



유병용 부회장



문창군 부회장



이건수 부회장



임동진 부회장



장한철 부회장겸
전무이사



이병화 경기이사



박영진 총무이사



백남구 감 사



이재우 감 사

광주직할시 태권도 협회

제3회 국민학교대항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 개최

오월의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며 예순일곱 돌 어린이 날을 기념하고 자라나는 태권도 꿈나무 교육에 토매이 되고자 제3회 국민학교 대항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광주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오전 9시부터 전년도 우승팀인 광주상무국민학교 선수단을 비롯하여 백운, 서산, 중앙, 중흥, 양동 등 12개팀과 개인 132명, 총 223명이 참가하여 명실공히 '89년도 태권도 최고의 왕이 되고자 높은 기량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본 협회를 이끌어 가는 김주훈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광주직할시 의사회 회장인 김두원 의학박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의 힘찬 기합소리와 응원가로 경기는 시작돼 무르익어 갔다.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심판원 기록 카드를 제작, 관중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출전선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진번호판을 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은 물론 선수 파악과 자기 소속팀 선수들의 출전준비에도 도움을 주었다.



김형호 · 김명희 부녀

봤었다.

국민학교 2학년때 부터 아버지로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고등학교때 까지 선수생활을 했다는 김명희 사범은 아버지께 엄하고 철저하게 배워서인지 지금도 ‘관장님’소리가 더 친숙하다고 한다. 도장을 이어받을 무렵, 여자의 직업으로써 회의를 갖었으나 한번 해 보겠다는 다짐으로 태권도 지도자가 된 지금은 태권도를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로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부녀기간에 같은 길을 걸어서 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김형호관장은 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데는 다른 운동보다는 태권도를 추천하겠다고, 가족운동으로 태권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성인부가 활기를 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체육관의 운영자인 관장이 직접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교육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김형호 관장과 김명희 사범의 건강한 모습이 태권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부부(夫婦) 나란히 심판원 교육에—

개봉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주 양일해 부부가 나란히 심판교육강습회에 참가했다.

고등학교때 태권도를 인연으로 처음 만난 이들은 꿈꿨던 성격의 부군 이남주 사범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털털한 부인 양일해 사범은 서로 운동을 좋아하고 같은 태권도인이라는 공통점때문에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1남1녀의 자녀들도 소질이 있다면 태권도인으로 키워 보겠다는 양일해 사범은 여자로서의 어려운 점은 없다며 부군과 함께 운동하므로써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편 이남주 사범은 부인과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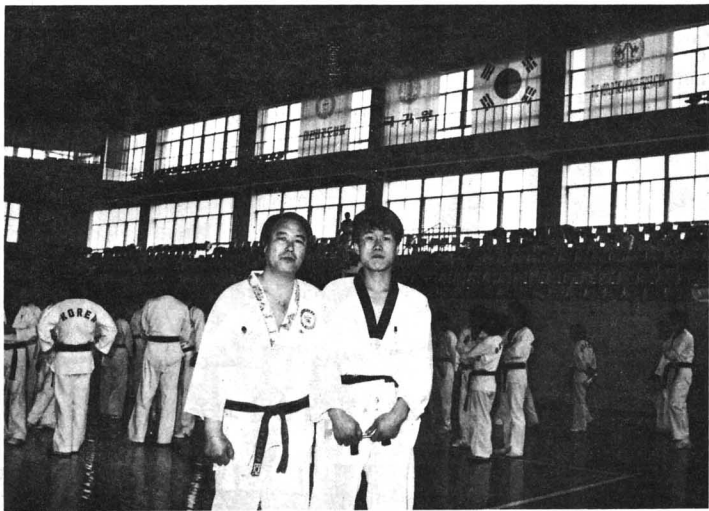
이남주 · 양일해 부부

니 공사의 구분이 잘 안된다고 불평이 아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였지만 실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서로 협조가 쉽고 여러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특히 대인관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은근히 사랑을 했다.

언젠가 경기 구경을 갔다가

심판원의 공평하지 못한 판정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심판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습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경기장안에서 더 많은 부부 심판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부자(父子)가 나란히 심판교육에-



문익근 · 문석주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심판교육에 같이 참가한 경기도 파주군 태권도 협회장 문익근 관장과 문석주 사범을 만났다. 자녀들은 물론 부인도 2단의 실력을 갖춘 태권가족의 가장인 문익근 관장은 「오래전부터 심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새로 규정된 경기규칙, 심판관정내용 등을 정확히 알고 지도에 임하기 위해 교육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아들 문사범은 국민학교 2학년때 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각종 지방대회에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하는 등, 태권도 수련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근래에는 아버지 품에서 떠나 새로 체육관 개관을 추진하느라 몹시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중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강습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한편 늦어서 창피한것 보다는 오히려 장성한 아들과 심판

교육을 받는 것이 새삼스레 뿌듯한 기분이든 문익근 관장은 가족이 같은 운동을 하므로써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호흡이 잘 맞아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등의 이유로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며, 특히 태권도가 가족운동으로 바람직해 적극 추천을 하고 싶다고 그것은 태권도가 특별한 기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태권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어린이 전화방송」개설한

강원규 어린이 체육관 관장



전화로 상담을 하는 강원규 관장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 벤티의 안녕아저 씨입니다!

이 전화는 온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온세상 다 이야기” 전화방송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난 다음에는 알아 맞추기로 나갑니다.

정답 적어 보낸 어린이는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으며 즐거운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 벤티의 안녕아저씨입니다! 이 전화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동요, 동시 음악감

상을 할 수 있으며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오늘 들려 드릴 동요는 윤극영 선생님의 「반달」입니다. 이곡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나 음악이 흘러 나오는 이 전화는 전국의 어린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린이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한 “어린이 전화방송”이며 날로 이용객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수십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린이들만의 귀엣말로 비밀을 전하듯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어린이 전화방송”은 지난 해 5월 어린이를 위하여 후원회의 도움과 자비를 들여 “한국전기통신공사”협조로 비공식 개통,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였는데 그동안 추정된 청취인원은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국민학교, 중학생은 물론, 부모, 관계자 등 220만명이 되는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였다.

이는 그 동안 제한된 어린이 문화 공간의 여백을 메워 주지 못한 사회적 단면이라 말할 수 있다.

우편번호(133-100)만 적으면 우편물이 성동구 옥수동 관내의 한국어린이 벗회의 우편물이 되며 어린이들로부터 하루에 수십 통의 편지가 쌓이고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통후 1년 동안 3만여통의 우편물이 쌓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대신하고 있다.

얼마 전 사무실 전화를 어린이에게 공개해 하루에도 100여통이 넘는 어린이 상담,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일반적 사무를 볼 수 없어 새로 전화를 놓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이에게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어린이전화방송”은 현재 다섯개의 고유번호가 있는데 국번은 공통으로 151이며 선택번호중 5123번은 어린이소식, 정보, 안내, 책소개, 날씨, 행사안내 등이 그날그날 소개되며 부모를 위한 어린이 안내도 소개된다.

그리고 5522는 어린이동요, 동시, 명곡감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신청곡을 받아 들려



전국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인형극 동화를 들려주며 여행을 (담당자수지에서)

주기도 하며, 자신이 지은 동시도 낭송할 수 있으며 그 날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는 “생일 축하곡”도 들려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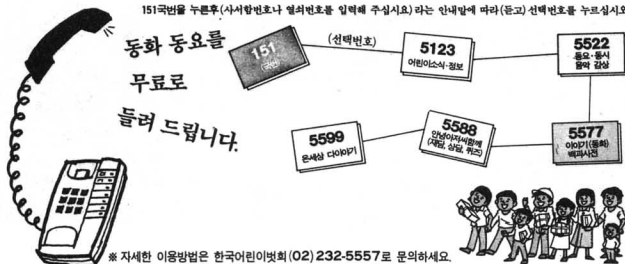
5577은 국내의 창작이야기와 전래 동화 그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수집, 들려주며 가끔 어린이가 지은 동화도 편집하여 들려주고 있으며, 5599는 세계의 명작 동화나 위인전을 들을 수 있다. 또한 5588은 어린이와 재담, 대담형식으로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안녕아저씨”라는 이 프로는 그 날의 모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방송을 진행하며 채지있는 이야기기를 꾸며서 보내는데 어린이의 환경 분위기를 맞추어 주고 있어 어린이 사회적 교육은 물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모두가 컴퓨터 방식으로 151국번을 누른후(전자식전화기) 기다리면 곧바로 <사서함번호나 열쇠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통화중일 때는 끊고 다시 151번을 해야한다>라는 안내말이 나오면 이 때, 안내말을 들으면서 선택번호(5123, 5522, 5577, 5588, 5599)를 누르면 위와 같은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밖에 서비스 기능으로 사용 중 방금들은 부분을 다시듣고 싶을때 4번을 누르면 5초전 부분부터 다시 나오며, 5번을 누르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며 다시 5번을 누르면 해제된다.

6번을 누르면 5초후에 나갈 이야기부터 시작되며 8번을 누르면 1분단위로 쪼여진 방송을 재생하여 들으며, 그외에 151을 누르고 0번을 누르면 이용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다.

151국번을 누른후(사서함번호나 열쇠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말에 따라(듣고) 선택번호를 누르십시오.



이 “어린이전화방송”의 장점이라 하면 하루 종일 통화가 가능한데 원하는 시간에 전자식 전화 MFC(공중전화 포함)가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 휴일 제한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단, 다이알전화나 기계식 국번 전화는 공무원 근무 시간에 한하여 151을 한 다음 교환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717-0151>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64회선을 자동 연결, 수십 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일 평균 1만여명이상이 청취하며 편집 조정에 따라 2만명 이상의 인원도 청취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기존 방송국의 FM방송 청취인원보다 더 많은 청취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유치원,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 오후 1시 이후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는 통화가 급증. 64회선 동시 통화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소화시키지 못해 전화가 되지 않는 다며 항의전화가 상당히 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형편이며 “더 많은 어린이에게 들려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방송봉사자 황백화(23)씨는 말한다.

몇시간 쯤 이용하려고 전화옆에 붙어있어도 통화가 안돼 신경질을 내기도 한 전선영(논현국고 6) 어린이 등은 이제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에 듣는다고 이용요령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밖에 다이얼 전화를 쓰는 어린이는 부모에게 투정하여 전자식 전화로 교환하거나 스피커 전화기로 바꾸어 친구, 가족과 함께 듣기도 하는 어린이도 상당수가 생기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

이 전화방송은 어른들의 전화 사용억제로 인하여 비밀리 사용하는 어린이가 전체 이용 어린이 중 반이상으로 부모 몰래 사용한다는 설문도 나와, 어른들의 올바른 어린이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엄기원(아동문학가, 아동문화연구소장)씨는 말했다.

이용은 무료지만 사용자 부담으로 걸기때문에 전화요금에 갑자기 곱절이상 나와 깜짝 놀라 전화국에 항의를 하기도 한 윤동진, 범진형제 어머니인 최은섭(구로 6동 현대아파트)씨는 “알고 난 다음에는 어린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전화요금에 날로 많이 나오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는 동화, 이야기, 노래 등을 즐기는지 함께 일을 돕고 싶다”고 편지로서 알려 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 수가 부모 몰래 이용하고 있으며, 모르는 친구에게 알려줄 때는 떡보기를 얻어먹고 가르쳐주는 어린이도 있다.

이용 대상은 일반 어린이 뿐만 아니라 장애자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그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전화방송을 하고 있는 ‘안녕아저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이 상당 수가 있는데 그들을 달래려고 만나고 싶어하는 어린이에게는 찾아오는 꿈길(?)의 어린이나라를 가르쳐주며 달래고 있다”고 하면서 강원규씨는 보이지 않는 어린이의 벗이 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더욱 잘 알게 된것 같으며 희망의 나래를 키워주며 마음속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며, 실제로 만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싶지만 어린이에게 차별없는 벗이 되고 싶어 참



국토종단때 한라산에서

고 있다며 대신 낮과 한밤 중에도 직통전화(232-5557)로 만나서 그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편지친구를 하면서 수십 통의 편지를 교환한 어린이가 많은데 그중 명랑하며 우등생이기도 한 윤문선(구일국고 6년)어린이는 자신의 사진, 가족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오다가 얼마전 아빠를 잃은 슬픈 소식도 전해 와 예쁜 종이학을 접어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5123에 “아빠의 얼굴”동요를 들려주며 종이공작을 접어 보내기 편지시합을 하면서 지금 띄보기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5월은 개통 1주년맞이 “알아맞추기 대잔치”를 한달동안 열어 수많은 어린이가 참여해서 여의도 63빌딩, 대생기업, 한국색채, 재능산수, 아동문화연구소 등의 협찬을 받아 컴퓨터, 동화책 등 푸짐한 선물을 500명에게 안겨 주기도 했다.

이렇게 어린이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전화방송”은 좀 더 어린이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확장과 어린이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현실적으로 닥쳐왔으며 앞으로 시외통화 등 특혜가 따라야 하겠고 현재는 지방도시 등에도 확산을 계획하고 “컴퓨터 전달식”방송계획도 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중학생 전화사서함”도 신설, 시험방송중에 있다.

이용자 분포는 60%이상이 서울의 강남지역과 아파트 어린이며 집을 비우고 있는 메마른 듯한 도심 가정에 어린이 문화를 가장 많이 대신하고 있다.



상당편지들

가까운 인천 지역 등 시내어린이는 물론 멀리 부산이나 섬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어린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3~10분 단위로 편집교환시켜 보내고 있으며 그밖에 상담, 녹음 전화도 준비하여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와 벗이 되어 말동무가 되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어린이에게 없어서는 안될 24시간 문화공간으로 정착돼 기존 TV, 라디오, 신문에서 못다한 이색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사로잡는 “작은방송국”이 생긴 것이다.

이제는 뜻있는 분들의 참여로 운영요원이 있어서 점차 알차게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원규씨는 주머니에 우편엽서, 편지지와 색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하루에도 10여통이 넘게 어린이의 편지답장을 하며 선물을 대신하여 색종이를 접어 함께 보내고 있으며 더욱 늘어난 편지의 답장을 못하여 인쇄물을 이용 “동화편지”와 함께 수 많은 어린이에게 오늘도 진정한 벗이 되어 그 뜻을 전하고 있다. ✽

「전국 태권도 코치 상조회」 결성

—상호간에 협동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공명정대한 승부에 최선을 다하자—



주 신 규

전국 태권도코치상조회 회장

전국 태권도지도교사 및 코치들이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태권도경기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태권도 코치 상조회를 1989년 4월 11일(화요일) 서울강서구 노스탈자호텔에서 성대한 창립총회를 갖고 결성하였다. 그간에 많은 코치선생님들의 각별한 노력의 결실로 코치선생님들의 조그마한 바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올바른 태권도 후진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일선지도자들에게 또한 조그마한 위안이 될 모임이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경기장에서는 승리라는 목표속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이지만 경기가 끝나면 태권도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

는 사제, 선후배, 동료관계로 이어져 있는 한 식구들이다.

모든 교사, 코치들은 서로가 애경사가 생겼을 때 슬픔은 위로하고 기쁨은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요망하였으며 또한 친목모임을 통하여 풍부하고 심도높은 토론을 통하여 태권도 경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팀간에 기술교환을 하여 서로의 실력배양에 힘써서 태권도 경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여러 지도자들간에 상호유대감을 깊게 하여 따뜻한 우정과 신의를 같이하고, 태권도 경기발전에 대한 길을 공동노력으로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며, 올바르고 밝은 제자들을 육성하는데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여 믿음과 사랑속에서 화기에אה한 바탕으로 품격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경기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화목은 집단구성원 개개인이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지도자들도 바른 몸가짐과 바른 예절, 서로가 서로를 이해

하고 위하는 마음속에서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정진할 때 제자들이 현장에서 코치선생님들의 유대관계를 보고 배워서 앞날의 태권도 지도자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회 회원은 선임임원과 위촉임원, 정회원으로 구성을 한 바, 선임임원은 회원 모두가 창립총회시 그간에 많은 공적을 세운 선배코치순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상조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단, 현 태권도 코치직은 수행하고 있는 분으로 선임을 했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으로 선임하고 위촉임원으로 지도위원과 운영위원을 위촉하였다.

지도위원은 그간 태권도 감독 코치직을 수행하였고 또한 현재도 지도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지도자들로서 40세 이상인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하였다. 운영위원은 15인으로 각 시도의 대표로서 각 1인씩을 위촉하였다. 현재는 제주, 전남, 충북에서 참가하지 못해서 우선 서울에서 3명을 보충위촉하였으나 차기 경기기 친

목모임에서 참가되는데로 꼭 3개 시도에도 운영위원에 참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총 임원진은 지도위원 32명, 임원 8명, 운영위원 15명, 정회원 62명, 모두 115명의 전국, 중, 고, 대, 일반, 군 으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는 국민학교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한다.

중 고 대 일반 군 팀은 서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경기기회가 많지만 국교부는 함께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태권도 코치상조회모임을 통해 모든 지도자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우선 본회 사업으로는 1. 회원에 대한 상조사업 2. 회원의 친목 증진을 위한 친목모임 3. 서로간의 경기기술평화를 위한 친선게임 등에 주력을 둘 것이며 본격적인 상조사업은 기금이 소정의 목표액이 확보된 후 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면 어려운 선수들에게 장학금지급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전국태권도 코치 상조회 임원 및 회원명단

회 장 : 주신규(서울 체육고)
부 회 장 : 이재승(대전 체육고)
김영민(영신 여고)
윤종욱(경북 영천고)
이백운(서울 송실고)
이철주(서울 동성중)
감 사 : 이용환(인천 광성고)
장용규(경남 체육고)
총 무 : 김세혁(서울 동성고)
운영위원 : 김영국(경남 체육고)
정 찬(경기도경기대)
윤오남(광주 조선대)

김영희(지하철 공사)
양기모(인천 체육고)
이홍규(부산 체육고)
전광수(전북 체육고)
박계희(강원사대부고)
이준명(대구경상광고)
이진표(서울 성동고)
이재봉(서울 송곡고)
신일섭(충남 예산고)
신기철(경북 봉양중)
류화국(대전 대성고)
지도위원 : 노상석(동부교육구청 장학사)

이배명(서울시경 기동대)
김경지(경희 대학교)
정찬모(단국 대학교)
최인범(경기 대학교)
정만순(경주 대학교)
이규석(유도 대학교)
최영택(경희 대학교)
김우규(동아 대학교)
유종환(상명여자대학교)
이승국(한국체육대학교)
배영상(계명대학교)
장진홍(경상 대학교)



정락희(한국체육대학)
박창덕(서울 체육고)
김인수(서울 동성고)
윤치영(인천 체육고)
박현종(전남 체육고)
이종중(대구 오성고)
김영진(한성고 서무과장)
남규식(한성고)
강선장(풍성고)
황영갑(국군 체육 부대)
김영수(인천문성여상고)
윤태곤(서울 용곡중)
박종식(서울 동성중)
임순길(서울 경수중)
노영동(서울 선덕중)
주상일(서울 정목 국교)
김종덕(성신여자대학교)
이완옥(계명대학교)
김종관(현대자동차)

정회원

안용규(대한유도대학)
윤동섭(서울덕원중)
오재영(경기도 고양중교)
전정우(경희대학교)
장유환(부산 동명공고)

송동식(충남 천안여고)
문석희(경남 기장중)
유수원(리라 공교)
김영관(단국대부속고)
윤창욱(한성고)
박운서(인천 서인고)
배종안(부산 송도상고)
권혁만(경기도 상원여중)
이재성(경기도 정명고)
하용성(한국체육대학)
홍준철(부평 기술고)
황태진(경남 함양중)
이재원(경기도 철산여중)
박창용(부산 체육고)
박영수(리라 공교)
최광근(송곡고)
하석광(위례상고)
정국현(지하철공사)
이근석(남해상고)
장원근(월계중)
김진도(한영중)
최수룡(월계중)
박수복(인천체육전문대)
김상근(경성대학교)
정재균(강원관동대학)
시인규(경북 체육고)
여주현(성남송림고)

김재호(부산송도상고)
이종호(인덕공고)
문원재(한국체육대학)
이경배(풍성고)
장명삼(광영고)
윤한돈(인천체육고)
임신자(상명여대)
이인재(성신여대)
이창남(시온고)
김준태(보영여고)
손지희(배성여상고)
최 천(방화중)
장태영(경북 포항수상고)
임윤택(관악고)
안희정(고양여중교)
김현성(성동고)
심원정(부산 영남일중)
문상훈(현대자동차)
장 권(서울당곡중)
문종국(경북 김천중)
박필순(대한유도대학)
이용준(은광여고)
고영철(대한유도대학)
박영석(목포대학)
김병삼(현대정공)

일선부대의 태권도



김 인 관
육군제7673부대 사범·상사

군에서 태권도는 교육훈련의 필수과목으로 체력단련에 임하고 있다.

사회에서 태권도를 할 기회가 없었거나 또는 여건이 안되어 배우지 못했던 장병들이 군에 입대한 후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모두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

각 부대의 사범들이 승급심사를 실시하고 급을 부여한 후 승단심사에 임하게 되는데 국방부에서 임명한 태권도 승단심사관이 년 2회 각 군을 순회하며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각급 부대별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부대는 포상을 하고 있다.

나는 일선 부대의 사범으로

서 태권도가 장병들의 체력단련은 물론이고 심신수양으로 군인정신이 투철해지며 부대의 단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또 태권도는 상관에 대한 복종심을 배양하고 예의범절이 으뜸인 무도정신 속에서 전투력 증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 곳 육군 제7673부대는 조윤현 부대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되어 언제든지 어떤 임무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능히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대전 장병의 90% 이상이 유단자라는 사실에서도 능히 짐작된다 하겠다.

우리 부대에서는 88년 2월 6일에 태권도 여성모임회인 태권남자화와 자매결연 및 시범교류를 맺고 부대의 창설 기념일 및 체육대회와 어린이날 행사 때 태권남자 회원들이 당부대 태권도 선수들과 함께 시범을 보여 줌으로써 부대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고 부대 내 유단자들로 시범단을 조직하여 상급부대 및 인접 부대에서 특별 행사가 있을 때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민간인

이 부대를 방문하여 민, 군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고 특히 당 부대에 재일동포들이 방문하였을 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으며 민간인들의 행사인 용인 군민 체육대회 때는 용인군수의 요청으로 당 부대 태권도 시범단이 체육대회 개막 전 행사의 주역으로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얼어 있는 땅 위에서 부대전 장병들에게 태권도 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제7673부대는 태권도 우수 부대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는 부대내의 체육관을 개축할 의지를 담고 부대장님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는 일선 부대의 사범으로서 부대의 전투력을 위하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촌보의 휴식도 없이 출선수범하는 자세와 무도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각오이다.

이렇듯 태권인들이 각 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완수해갈 때 우리 국기 태권도는 지구촌 전체의 운동으로 확산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 *

“태권낭자회” 동우회

서 춘 희

태권낭자회 편집부장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는 크고 강하다」란 슬로우건을 아래 '86년 8월에 결성. 태권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 「운보원」(청각장애자)과 자매결연을 맺어 태권도 보급도... 훌륭한 개인기보다 완벽한 팀워크를 위하여 매진할 터.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는 크고 강하다」란 슬로우건을 내걸고 86년 8월에 22명의 몇명되지 않는 여성태권인들이 태권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 발족한 모임이다. 태권낭자회(회장·장정남)는 처음엔 공인 3단 이상의 고단자(?)들 이상만 모여 이루어진 배타적인 모임이었으나 작년 제3회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초단이상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폭을 넓힘으로써 회원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회원수는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회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미혼여성들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여 「태권낭자회」라 칭하였으나 차츰 기혼여성도 가입하고 등록됨으로써 모임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태권낭자회」 「태권마담회」 두 이름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해 폭소를 터트린적도 있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호신술내지
치한퇴치법 강습을 전개할 예정이며 「태권남자회」 회장배
여자 태권도경기를 개최토록 힘을
축적하고 있다.**

다. 또한 모임속에 「팀워크」를 자랑하는 「노태우회」(“노”처녀 “태”권도 “우”동우회 모임이란 뜻)에는 좋은 규수감이 많이 (?) 있으니 연락주시길...

이렇듯 결혼여성들이 늘어나는 데 따라 안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각처에서 모여 든다.

자주 만나고 싶어도 회원들이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 흩어져 있으므로 성의없는 월 1회 참석도 힘들어, 지방회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경비, 시간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20명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에는 년 1회 원정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여야 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지방이 부산팀으로 조만간에 태권남자회가 부산지역에 모임 계획이다. 정기월례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5시-6시까지 1시간은 훈련부장의 구령에 맞추어 폼세, 겨루기, 호신술, 격파시범 등 태권도실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한다. 6시-6시30분까지 30분은 생일파티(한달통계) 및

레크레이션, 신입회원 신고식(?)을 겸하게 된다.

6시30분-7시에는 정기월례회 회의시간을 마련하여 진지한 토론을 갖는다.

그 이후시간은 저녁식사시간으로 운동하고 수다떨었으니 밥맛은 어떤 메뉴라도 오케이라고.

그 다음은 지방팀 숙소배정 등등...

「태권남자」회에서는 1987년 3월 4일부터 「태권남자」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목련호, 장미호, 국화호로 호칭되는 회보는 벌써 창간 2주년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16쪽의 지면에는 회원, 비회원들의 투고형식으로 꾸며지고 있다.

그동안은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때문에 외무행사를 전혀 구상실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폭을 넓히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근교 자매부대를 방문해 평소 다듬었던 시범실력을 매년 2회정도 선보이는 등 얼마전에는 「운보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청각장애자들에게 태권도를 보급시키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양노원, 고아

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그늘진 그들을 위해 진솔한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울 예정이고, 여력이 생기면 「목련장학회」를 만들어 태권도 여자선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호신술내지 치한퇴치법 강습을 전개할 예정이며, 「태권남자회」회장배 여자 태권도경기를 개최토록 힘을 축적하고 있다. 체육관 운영방법 세미나 및 사범, 교사 양성교육과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남성태권인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만 더욱 심화, 발전될 것이므로 지면을 통해 당부드린다.

훌륭한 개인기보다 완벽한 팀워크를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태권남자」문의전화는

307-8407, 305-5398

오후 1시 이후에는 언제나 상담하며 공인 초단 만18세이상 예의바른 여성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발전을 위한 제언



정 세 구 박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교수
태권도부 지도교수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인 '태권도'의 독자들은 태권도 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 그 발전을 하나같이 바랄 것이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독자들은 직접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을 갖고 있고 따라서 태권도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모든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머리를 박박 깎았던 중학생시절부터 반백이 된 오늘날까지 태권도를 수련해 왔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대학시절을 거쳐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였고 졸업후에는 모교대학도장에서 6~7년간 사범 생활을 하였다. 1965년에는 한국우수선수선발전의 고기부(高技部, 3단이상만 출전)에 출전하여 한 체급에서 1위를 가져본 경력도 있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학비를 벌기 위하여 도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현재는 모교 태권도부의 지도교수 일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필자의 인생 역정에 태권도가 깊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누구에 못지 않는 관심과 열정으로 태권도

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자리를 평소에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온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혹시 필자의 글 중에 우리나라 태권도계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엉뚱한 말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의도나 편견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계로부터 멀리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스포츠 태권도와 무도(武道) 태권도의 이원화(二元化)

최근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공격기술은 눈에 띄이게 발전하였다. 각종 대회 시합이나 평소에 대학 도장에서 수련모습을 보면 몇 가지 발기술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스피드도 향상되었다. 따라서 옛날식 태권도

를 구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개발된 태권도 기술과 겨루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이다(물론 필자가 늙었고 최근 수련을 자주 못해서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태련을 하다 보면 발공격 기술은 향상된 반면에 주먹이나 수도의 공격기술과 방어의 기술은 별로 향상되지 않은 것 같다. 즉 시합식이 버릇이 되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정권공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는 원칙에 의하면 태권도는 몸의 어떤 부분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리나 발로는 상대방이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하고 접근을 하였을 때는 팔이나 주먹, 팔굽 등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상대방이 접근되어 있을 때도 발로만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결함은 모든 급수가 집중되어 있는 얼굴을 내어 놓고 태련을 하는 것이다. 물론 시합에서는 주먹으로 상단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시합식이 버릇이 되면 상단방어의 기술은 전혀 향상되지 못하고 따라서 실전에서는 급소노출의 약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발 공격이 빠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으면서 상대방의 인종이나 눈에 정권이나 수도로써 치명타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약점은 방어도 하나의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대방의 주먹이나 발이 공격 해 들어올 때 그것을 힘껏 받아쳐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의욕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만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지적한 것은 간단한 예이지만 이제까지 시합식의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런것이 버릇이 될 경우에는 태권도의 위력에 많은 손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 경영을 할 때에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권투를 비롯한 외국의 격투기 수련자들과 겨루기를 하다가 태권도 시합 약속대로 얼굴을 내 놓고 공격하다 치명타를 맞고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결국 무도나 격투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약속이나 규칙보다는 힘의 대결에서 이기는 자가 무조건적 승리자일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스포츠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를 이원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다. 예전에 우리 세대가 50년대, 60년대에 태권도를 수련할 때는 도장에 국민학교 학생은 물론 중학생도 거의 없었고 거의가 성인이었다. 그리고 태권도는 어떤점에서는 신비와 경의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태권도는 일격 필살의 비기(秘技)를 가진 것으로 누구나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유치원 학생들조차 유단자(품띠라고 부르지만)가 되어 태권도가 아이들의 재롱 놀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에 걸린다.

필자는 물론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현대 사회의 변화추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인구의 급증, 도시화 현상속에서 태권도가 언제까지 옛날식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한다고 할 때 스포츠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의 분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리고 주로 다리와 발만 사용하여 점수를 따는 태권도는 널리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올림픽 종목에도 넣어서 국위 선양을 위하여 사

용하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도 태권도를 발전시켜 머리나 몸에 호구(護具)를 활용치 않고 수련을 하면서 어떤 기술 특히 주먹, 수도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급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격투 기술을 개발하여야겠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우리 한국만의 전통적인 비기(秘技)로써 비밀리에 개발하여 외국에는 보급하지 말고 국내에서 그것도 주로 군(軍) 연구기관이나 체육대학 등에서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또 국제화 사회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도장을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기술을 전부 외국에 보급해 주고 더구나 우리나라보다 체력적으로 월등한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 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외국에 스포츠태권도는 보급하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무도(武道) 태권도 또 달리 말하면 호국(護國) 태권도는 비밀리에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국민사이에서만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도태권도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무예만을 전

승·발전시킨다는 좁은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통 무예를 전부 연구하고 조사하여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적 조건에 잘 맞는 가장 무서운 기술만을 종합하여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국민무도로써의 대중화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본토를 자주 방문하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우리 눈에 띄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중국인들이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 모여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쿡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최근 텔레비전의 약 광고에서도 볼 수 있음). 그것은 어떤 쿡후의 선수들만이 도장에서 하는 수련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유스러운 생활의 일부로써 수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볼 때 마다 필자는 우리나라 태권도수련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국민사이에 보급될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의 임병장교수는 “올림픽이후 태권도의 발전방향”이라는 글(‘태권도’ 제65호, 1988. 6. 여름호 게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사회체육발전의 일환으로 국민스포츠로 정착되어, 국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공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

는 모두의 스포츠가 될 것을 바란바 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중 보급의 길을 여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주로 다루는 사회과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중·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민윤리과의 국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집필에 참여해 왔다. 또 현재는 1990년 1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국민윤리’교과서 개발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서울대학교에서 개발중임). 이와 같이 오랫동안 청소년 정신교육에 관여하면서도 교실내에서 실시하는 지식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인간의 덕성(德性)교육이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왔다. 지적 교육에다 탐과 인내로 엮여지는 심신단련이 추가될 때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전에 문교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위원회 이념교육관계관 연찬회’가 충남 온양의 충무교육원에서 개최되어(1989. 5. 2~5. 4) 문교부의 이념교육 담당관,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이념교육담당 장학관, 국민정신교육연구회 지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이념적 혼란기 극복을 위한 이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이념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끝으로, 이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학교와 남자중·고등학교에 정신교육센터 겸 무도장(武道場)을 설치하여 한 주일에 3회 정도는 태권도나 유도 중 한 종목을 수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넓은 의미의 인격 도야를 위한 인간교육과 현행 이념교육의 취약 부분인 실천화의 국면이 많이 보완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만약 독자중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읽고 싶으신 경우에는 각·시도교육위원회에 문의하셔도 좋고 필자에게 대학으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부쳐드릴 수 있음).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무도과목(武道科目)이 필수로 되어 전 남학생이 일주일에 2~3시간 태권도 혹은 유도 중 한과목(혹은 2종목을 합쳐도 좋음)을 필수로 수련하고 그 지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양성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맡기므로써 태권도 대중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길지 않은 기간동안에 씨름이 많이 보급되었고 씨름의 스타가 탄생하여 이름과 부(富)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

권도도 씨름처럼 보급되어 시합은 모든 국민이 열성적으로 참관함은 물론 태권도 스타가 축구, 농구, 씨름 등의 스타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태권도의 대회는 마치 국민축제와 같은 열기로 일어나 거국적인 행사로 정착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국민 무도보급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며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남자는 국민학교 졸업때까지는 초단, 중학교 졸업때까지 2단,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3단을 필수로 딸것을 공식적으로 교육과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태권도인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태권도가 하나의 국민 무도로 단계적으로 정착될 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고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정신교육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많은 비도덕적, 「아노미」적 행동성향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한국 남성이 무도의 고단자로서의 인격이 인정되어,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한국인의 품위가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지도자 양성의 본격화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의 설립·운영

앞에서 필자 나름으로 생각하는 여러가지 태권도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일은 결국은 태권도인이 주동이 되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수한 태권도 인재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 인재는 물론 태권도의 기술이 우수하여야 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그외의 다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추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또 태권도를 전 세계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필자가 제안한 바 우리나라만의 비밀기예인 무도태권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전문가 양성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체육대학, 유도대학, 그리고 그외의 대학의 태권도 학과에서 태권도 전문인 양성에 전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접근법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대학 태권도부의 지도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각 대학의 태권도부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중에서 원하는 자를 태권도 인재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나의 제안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직속기관으로 '대한태권도 대학원'을 개설하여 각 대학 출신 태권도 유단자 중에서(물론 학부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 포함해서) 특별히 태권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장학금을 주어 유치하여 2년간의 연구를 거쳐 '태권도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기에 대한 연구 및 수련에도 전념하지만 특히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역사적·사상적 연구, 우리의 비기(秘技)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집중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태권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부터, 그것을 전공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출신자들이 태권도에 대한 열성 및 학문적 관심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것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반드시 태권도와 관련되는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태권도를 지원하는 것도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이끌어 온 태권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태권도발전에 혁혁한 공훈을 세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세계의 태권도로 어느 정

도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태권도가 아니라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하는 태권도인 것이다. 지금 같이 급변하는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의 흐름속에서 미래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태권도는 우리의 후배 태권도인에게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앞에서 필자가 제안한 바와 같은 '태권도 대학원'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디에 내세워도 당당하고 자신있는 태권도인재 양성에 지금부터라도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몸으로만 하는 태권도가 아니라 머리와 능력으로 하는 태권도의 모습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역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하나의 방안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자문기구로써 가칭 '한국태권도 발전 연구위원회'를 개설하고 학창시절에 태권도 수련에 열정을 바쳤던 사람들에서 현재 사회 지도층에 있는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그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년에 2~3회

정도 대한태권도협회의 집행부와 동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현상은 현재 전국 각 대학의 태권도부에 동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각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졸업한 후에도 동문회를 중심으로 선후배가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동문회지도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협회에서 각 대학 태권도부에 태권도부 출신 저명 인사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그들은 즐겁게 협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國技)이며 세계에 자랑 할 만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태권도를 잘 보전하고 발전시켜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태권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권도의 명성과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잡음과 불협화음을 일소하고 오직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대의(大義)만을 위해서 대동 단결하고 헌신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규인

본회 홍보실장

참 주인정신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대전환기를 가져온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사회체육공단이 발족되었고, 체육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여론이 체육인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게 될지는 미지수나 전국 3,000여개의 태권도장에 30여만명의 수련생을 보유한 우리 태권도인으로서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다.

계간 태권도책 68호 「태권도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재강조한다.

태권도를 아끼고 있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회 임원의 인사가 대폭적으로 단행되었다.

88년말과 89년초에는 민주화의 열풍속에, 태권도계에도 바람이 불어 사범들의 욕구가 표출되기도 했다.

지금의 발전된 태권도가 있기까지 김운용 회장을 정점으로 각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임원들의 수평적 자리바뀔 등은, 태권도계에 새로운 활기를 진작시키려는 김회장의 사려깊은 결단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시도협회 전무들은, 전무이사 친목회의를 발족시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각 지방 일선지도자들의 목소리를 공동되게 듣고 느낄 수 있는 발전적인 모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태권도 코치들은 “전국코치상조회”를 발기하여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는 친목모임으로 성장하였다. 바라건데 경기가 끝난 후 모임을 갖고, 경기발전을 위해 토론도 하고 경기제반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협회임원들에게 건의를 하는 등, 의견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어서 민주적인 풍토가 자리하도록 협의하는 바람직한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본 회의 회장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원로 태권도인 몇 분이 주인입니까? 각 시도 협회 전무이사가 주인입니까? 물론 그들도 주인입니다만 진짜 주인은 태권도를 아끼고 도복입고 땀흘리는 여러 사범님들이 주인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구령소리에 땀흘려 수련하는 많은 수련생들이 주인입니다. 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여러분의 공복인 조직의 대표이며 기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태권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는 심부름꾼이 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정진하여야 하겠다.

본 회에서는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명랑한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장의 말썽의 소지를 늘 제거하는 심판원위촉을 본회의의 전무이사, 사무국장, 기술심의회의장, 지도위원, 심판위원장 등 5명이 합의하에, 심판위원을 엄선하여서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의 의지하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코치, 심판, 선수(혹은 부형)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되는 일이므로 협조를 당부드린다.

또한, 협회에서는 권위주의를 불식시키고 사범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시각에서 방향을 정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주력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로써, 거듭태어난다는 마음과 자세로

일하는 새로운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길…….

사람이 바뀌었다고 모든게 하루아침에 새로 위지지는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늦지 않게 한 걸음 한걸음 정진해 나아가도록 태권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함도 아울러 간절드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권도인을 위한, 태권도인에 의한, 태권도협회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협회, 국기원(지도자연수원), 세계연맹 등도 전문화된 영역만을 고집한다거나 협력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니라 「태권도」라는 대전제를 놓고 조직, 기구, 구성원 모두가 양보하고 협력하여서 태권도에 관해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적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모두 태권도발전의 원동력을 자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실행에 옮길 때 태권도 내일의 발전은 기약될 것이다.

참 지도자란?

지도자(指導者)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서 일한다. 보스(Boss)는 안보이는데서 일한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이끈다. 보스는 사람들을 몰아 세운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앞에 선다. 보스는 사람들을 앞에 세운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앞으로 이끈다. 보스는 사람들을 제자리에서 돌린다.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늘 등뒤를 돌아본다. 행여나 자기가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나하고 살핀다.

보스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걷는다. 그리고 이따금 돌레를 살핀다. 행여나 사람들이 따로 놀고 있지나 않나 하고, 또는 행여나 사람들이 자기를 건너뛰고 있지 않나하는 걱정에서……

지도자는 부하를 추켜세운다. 보스는 부하를 누른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뒤를 따른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래야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스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만 한다. 그저 자기되만 따르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길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지도자는 아는 길도 물으며 간다. 보스는 모르는 길도 묻지 않는다.

지도자는 늘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늘 「나」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가자」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부하들을 지도한다. 보스는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린다. 지도자는 권위를 등 뒤에 감추고 다닌다. 보스는 권위를 앞세워 가며 다닌다. 「지도자는 권위를 아낀다. 보스는 권위를 즐긴다.」라고 조선일보 만물상(萬物相)에서는 갈파하며, 전환기에 접어든 정부나 각 정당 각 계층의 우두머리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 보다도 지도자와 두목의 갈랫길에서 선택을 요구 받게하고 있다. 윗자리에 있으면 그 항배가 아리송할 때도 있지만 말없이 다중(多衆)은 그것을 훤히 보고 있다. 두목에게는 이해집단이 따르지만, 지도자에게는 이해를 초월한 다중이 따른다고 당리당락을 앞세워 이해집단화하여 말없는 국민을 볼모로 이해를 초월한 듯한 말잔치를 꼬집었다.

우리 태권도계에도 민주화 물결에 동참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중앙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협회의 공복들도 스스로가 다중(多衆)인 사범님들 앞에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스로 군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무도 스포츠의 특성이 있음으로 일상불란한 상명하달이 필요한 사회라고 권위를 앞세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한, 다중인 사범님들의 휘하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또 다른 다중인 수련생들에게 사범님 스스로 보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도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 봅시다.

나는 보스인가? 지도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판의 역할과 영향

박 현 섭

심판분과 위원장

심판원은 경기 규칙의 집행자이며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운영해 가는 최일선의 경기 운영 책임자이기에 심판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승리」라는 상호 공유 불가능한 목표를 선수 각 자가 강한 승리 욕구에 의해서 추구되어진다. 이러한 때에 미리 정해진 객관적인 규칙에 의하여 공정한 중재자가 규칙을 집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를 공정 하고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곧 심판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므로 심판원과 경기 규칙의 관계는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이며, 또는 안과 밖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심판의 조건으로서는 정신적 능력을 들 수 있다.

태권도 심판의 조건으로는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판단력, 정신의 집중력과 주의력 등의 심판원의 자질로써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 밖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냉철한 결단력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신적 능력들을 태권도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태권도 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태권도인으로서 강한 정의감과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인격적 자세는 말할것도 없고 아마추어 경기인으로서 순수한 스포츠적 열정과 경기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임감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태권도 경기속에서 심판원은 경기 운영자 또는 규칙 집행자란 일차적 임무 이외에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적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심판원이 된다면, 선수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은 심판원 각 자가 자신의 태권도 수련과 관련지어 평소애 많은 훈련을 하여야 하며,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심판은 주심과 부심,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경기시 같은 공격이라도 위치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판정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심판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므로 판정의 기준 상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본다. 즉 그것이 심판 각 자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야구시합때 어느 심판은 어느 각도까지는 볼로 인정하거나 스트라이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관중들은 저 심판이 잘못 본다는 비판보다는 저 정도면 저 심판은 볼로 인정하더라는 쪽으로 그 심판의

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태권도는 공격의 강도에 있어서 심판의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르게 나타날 소지가 더 많다고 본다. 심판들이 소신을 가지고 판정을 정당하게 행사 한다면 약간의 편차는 심판의 견해라고 본다. 경기중 득점 발생시 그때그때 득점을 주므로 매회전이 끝나고 주심에게 채점표를 건네줄때 싸인만을 하고 건네주어서 판정이 인정적이라는 소리를 불식시키고 각 심판원의 소신과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자신이 우수한 심판원이 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지도자적 자질과 태권도 수련인으로서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인격적 수양에 힘쓰는 심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경기에서 심판원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원은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승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득점의 여부는 오직 심판원 개 개인의 주관적 판단아래 결정하여야 한다. 태권도 경기에서 득점이란 경기에서 발휘된 기술과 태권도 기술의 이상성이 합치되는 것을 가려내어 주는 것이다. 어떠한 수준의 기술을 득점으로 평가 해 줄것인가는 구체적인 경기 상황속에서 경기자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타격 동작이 득점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심판원의 결정권아래 맡겨져 있다.

심판원이 득점을 판단해 나가는 기준이 태권도 경기의 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심판원은 항상 태권도경기의 이상적 기술상을 확립하고 그때그때 경기의 기술적인 추세를 잘 파악하여 이상성과 합리성을 균형속에서 보편성있고 타당성있는 득점의 기준을 스스로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심판원의 중요한 역할은 반칙 조항의 적용과 이를 통한 경기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다. 태권도 경기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위험한 기술 행위의 금지 조항보다, 가치로운 기술의 발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저급한 기술 행위의 억제 조항, 비 도의적인 기술행위를 막고, 태권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행동 규범을 정한 품위 조항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칙 행위의 적발과 선언이 경기자의 승패 결정에 결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심판원이 반칙 행위를 다스리는 기준과 방법은 승패 결정이나 신체적 안전의 도모와 같은 현실적 의미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태권도 경기의 형태와 내용을 장기적으로 유도해 간다는 이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기의 기술적 추세에 부응하여 그때그때 선수들이 행하는 기술 행위의 질을 평가해 주고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나 저급한 기술 동작으로 승리를 도모하고자 할 때는 벌점으로 이를 규제해 나가는 것은 심판원이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독특한 역할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태권도 경기의 심판원으로서 태권도 경기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태권도 경기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타락되거나, 태권도 기술발전이 왜곡될 위험이 크다.

3) 태권도 경기의 심판원이 갖는 독특한 역할로는 경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아마추어 경기는 경기자들만의 경기여야 할 것이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논지안에서 관중이란 의미는 경기 참여자 또는 그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만 그 존재가 인정된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관

중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관중과 동호인, 경기인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관중의 시각에서 태권도 경기는 선수와 심판원 등 경기장의 테두리에 있는 모든 물적 인적 구성 요소들이 모두 하나로 되어 경기가 보여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선수들의 활기차고 당당한 경기모습 및 심판원의 경기에 몰두한 모습과 명쾌한 판정이 어우러져 하나의 태권도경기의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판원도 경기 참여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경기에 전념하고 명쾌한 판정, 기민한 몸놀림, 경기흐름의 활발한 유도 등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심판원, 경기자, 그리고 관중을 경기장의 삼위일체로 본다면, 심판원은 경기의 성립에 있어 필요 불가결의 존재이지만 경기자와 같은 두드러진 주역이 아니며 관중처럼 자유로운 간접자도 아니다. 이것이 일차적이고도 최종적인 조건으로 심판원의 신뢰성을 높게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자이든 코치든 관중이든 심판원을 믿고 심판 판정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심판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

심판원에 대한 불신은 경기속에서 마찰과 항의를 유발시키거나 최소한 경기가 유쾌해지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시킨다. 심판원이 경기자, 코치, 관중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심판원의 자질 또는 조건을 골고루 충족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자신있는 태도, 언제 어디서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양심에 의해 심판을 해 왔다는 당당한 정신이 저절로 몸밖으로 배어나와 외적인 신뢰감을 풍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기와 경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심판원으로서 신뢰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심판원은 태권도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태권도의 정신에 위배된 일시적 일탈 행동들을 순화 유도 하여 태권도가 추구하는 이상의 길로 모든 태권도 선수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

심판원은 또한 1점을 먼저 득점한 선수가 간혹 자신의 점수만을 의식한 탓에 소극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유도하여 가슴을 붙히고 미는 행위, 꺼안는 행위, 라인 밖으로 나가는 행위 등으로 경기 흐름의 맥을 끊어놓는 방법을 쓰는데 대해 심판원은 이러한 규칙에 위배된 행위에 경고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선수들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게 유도하여 경기를 보다 발전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심판분과위원회에서는 기술심의회의장단과 위원장단과 협의하여 태권도경기시 득점에 대한 순위를 적용하여 심판위원장으로서 보다 공정한 심판을 보도록 하며, 심판의 권위를 확립시키도록 득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정한 심판을 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득점의 순위는,

- 1 순위 : 녹 다운 시킨 선수
- 2 순위 : 얼굴을 발로 회전해서 차는 기술(고난도에 의한 득점)
- 3 순위 : 얼굴을 보편적인 기술로 득점
- 4 순위 : 몸통을 특이한 기술로 득점
- 5 순위 : 몸통을 보편적으로 공격
- 6 순위 : 몸통을 주먹으로 공격
- 7 순위 : 득점 부위가 아니더라도 공격을 당해 넘어져서 무릎 이상이 바닥에 닿았을 때

단, 동점일 경우 1-1 우세기준은 어느곳을 공격하였느냐에 따라서 우세를 결정한다.

(경고 사항의 보완책)

- 1) 카트발 공격하는 행위
- 2) 선수가 겨드랑이 안으로 끼는 행위
- 3) 12m 경기장 밖으로 피해 나가는 행위
- 4) 코치가 경기 도중이나 회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항의하는 행위는 다음 회전 시작 들어갈 때 경고를 주고 시작한다는 사항이 강화되었음으로 일선 지도자 코치들은 숙지하고 태권도 경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기를 바라며 깨끗한 경기장, 바른 판정으로 태권도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태권도를 사회체육으로



박 부 철
(국기원 기획분과위원장)

태권도의 경우 특별한 용구가 필요없고 시간과 기후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동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전국 각지에 태권도장이 있어 태권도의 사회체육의 가능성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는 무엇보다도 무도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무도는 수련을 통하여 승부나 경쟁에 초탈하고 자아발전을 위한 심신을 연마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생들은 수련을 통하여 기본동작과 품새를 습득해 나가고 겨루기로써 공격과 방어를 연결하는 등 신체단련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완성의 심신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의미를 갖고 있다.

태권도는 인체의 모든 에너지를 총집중하는 전신운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가 고루 운동이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성인들에게는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심리적인 정신집중과 매사에 자신감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심어 주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청량제 구실을 해줄 뿐 더러 각종 스트레스 해소방안도 되기 때문에 성인에게 최적의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성장발달에 필요한 운동량을 공급해 줄은 물론, 신체 각 부분의 기능발달과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작용함은 물론 강인하고 용기 있는 성품으로 변모시켜 어떤 일에도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길러준다.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각종 태권도대회와 더불어 세계 태권도연맹이 창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태권도 발전에 막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태

권도 중주국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대전제하에 태권도인의 힘을 총 집결해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권도는 타경기종목이 100년이 상 걸려 이룩한 세계화를 단 18년 만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뿌리 내려 올림픽 시범경기 채택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처럼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태권도의 기술 향상과 태권도 보급에 기폭제 역할을 하여 각 학교에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을 육성하는 등, 학교체육에서도 태권도 활성화를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일선도장이 어린이 태권도 교육의 장으로써 단단히 기반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88년 현재 전국에 3000개의 태권도장이 있고 약 300만명의 태권도회원이 있다고 추산할 때 전 인구의 1할 가까이 태권도를 수련했거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한 해에 연간 10만명 정도가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심하고 있는 데 이들 가운데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전체 태권도인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나 기타 단체 등의 태권도부 일원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대회

에 출전하고 있으며 우수한 선수들은 특기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해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 외에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어 대학생의 경우 태권도 수련생은 현저히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는 이들이 태권도 관계기관이나 사범으로 있지 않는 한 거의 태권도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성인 태권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프로야구나 씨름, 축구, 복싱, 농구, 배구 등도 소수의 선수들만이 참가할 뿐 대다수 국민은 경기관람자라 할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소수정예의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인의 대축제인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특히 엘리트 선수육성에 체육정책이 치우쳐 온 것처럼 태권도에 있어서도 그 예외는 아닌 것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체육계 관계인사들이나 식자층은

올림픽을 계기로 소수정예의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체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발달시켜 온 국민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올림픽도 일부 소수 선수들의 올림픽이 아니라 온 국민이 적극 참가하여 이들 중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경기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을 위한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 때에 올림픽의 막대한 체육시설이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면 사회체육은 빠르게 확산되리라 본다.

특히 태권도의 경우 특별한 용구가 필요없고 시간과 기구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운동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전국 각지에 태권도장이 있어 태권도의 사회체육의 가능성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이기 때문에 스포츠로써 뿐만이 아닌 전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널리 보급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나 선수들만이 아닌 전 국민에게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갖는 무도정신을 널리 알리고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닦을 수 있는 도장이 될 수 있도록 태권도 지도자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본다.

일선 도장에서 어린이 수련

생들의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조기회 등을 운영해 성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도장의 시설면에까지 성인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기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생각해 보면 많은 방

법이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는 전 국민이 태권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경기력이 우수한 사람이 태권도 시험에 출전해 경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성인태권도의 생활화를!



성 현 제
태권도 5단, 한의학박사
성현제한의원 원장
전, 경희대 한의과대
임상교수 역임

‘태권도’

내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늘 뽀뽀함으로 다가오던 태권도라는 단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먹한 용어로 변해가고 있는 기분이다.

왜 그럴까?

나와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간에도 나는 늘 「태권도인」으로 불리워졌고 지금도 우연히 옛날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 때 태권도하던 사람으로 기억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나는 현재 나 자신이 태권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태권도인이었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새에 잊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나의 생활환경에서 태권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이는 태권도장의 간판에서, TV스포츠 뉴스시간에 잠깐 스치는 태권도경기에서 나는 오래전 학창시절에 땀 흘리며 대련(겨루기)을 하고 발차기와 형(품새)을 익히고 힘찬 구령을 넣으면서 뺨도 차고 단련봉을 두드리던 일들이 엇그제 했던 일처럼 떠올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태권도를 수련할 만한 도장

이 있다면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터무니없는 공상에 불과할 뿐 현실의 여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지금 이 나이에 라는 속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나 일선도장의 여건 등이 성인들을 받아들이 만큼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나이 먹은 사람이 아무도장이나 나가서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태권도 수련 및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에 나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욕망만 있을 뿐 발길은 오히려 골프를 치러 나가게 된다.

태권도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성인 도장이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은 성인들만을 위한 도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나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도장을 하나 개설하여 나처럼 학창시절에 태권도를 수련한 후 여건이 맞지 않아 계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는 휴식시간이나 공휴일에 언제든지 아무 부담없이 나와서 운동할 수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이라는 공통점은 국경을 넘고, 이성을 초월하여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합을 넣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운동도 태권도만큼 일체감을 주는 운동은 없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육체적인 움직임 못지 않게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것이 태권도의 장점이다.

있도록 도장을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태권도인들끼리의 여러가지 장점을 살려 태권도의 발전을 꾀하고 각각의 건강 증진 및 상호협조, 유대강화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이라는 공통점은 국경을 넘고, 이성을 초월하여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합을 넣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운동도 태권도만큼 일체감을 주는 운동은 없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육체적인 움직임 못지 않게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 하는 것이 태권도의 장점이다.

협회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저변확대 등이 가장 큰 일이겠지만 나처럼 타

업종에 종사하면서 태권도를 취미로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인 태권도 저변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준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본다.

일선 도장은 유치부나 국교부의 도장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학교나 일반도장에서는 대부분 선수육성을 위해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미로써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가볍게 태권도를 수련할 곳을 마련하는 것은 성인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태권도가 생활화되어 꼭 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아침운동시간이나 약수터, 공원 등에 사람들이 모이면 태권도 기본자세와 발차기 하는 모습이 구경소리와 함께 퍼져나갈 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추국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60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최 점 현

육군 중위 (205특공여단)

인류 역사의 출발과 함께 지구상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종족보존의 본능과 원시인들의 시대적 생활수단으로써 갖가지 형태의 무술이 생기게 되었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무술의 형태나 기능이 생활을 위한 단순한 것에서 군사적 목적이나 전통 민속, 무예 등으로 복잡 다양하게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 역시 예로부터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져 왔었고, 시대적 변화와 이러한 무술의 흐름속에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입등 수많은 세월을 고통과 슬픔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때마다 무예를 갈고 닦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겨레의 혼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본인 역시 오래전부터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 왔었다.

태권도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종주국으로써의 태권도 이론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이 시대적 사명에 따라 여러 스승님들의 노력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여러 관련 서적을 탐독, 발췌하고 역사적 자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태권도 이론 정립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이와같이 태권도의 질적, 양적변화와 더불어 종전의 태권도지도차원에서 태권도 교육으로, 태권도 기술지도에서 인간교육중심으로 까지 태권도 교육의 초점이 변화됨에 따라 태권

도 교육내실화의 차원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지도자 교육에 본인도 동참하게 되었다.

다양한 체육이론에서부터 태권도 이론, 그리고 실기 및 교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강사님들의 열띤강의와 특히, 연수원에서 매일 교육시간전에 실시하는 명상의 시간들, 비교적 엄한규율속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10일간의 교육을 통해 나에게는 태권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의 함양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인간으로서의 신념의 힘과 지도자로서의 명예심을 갖추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태권도인으로서 남녀 또는 연령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60기교육생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오직 배운다는 마음 자세로 서로의 질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목적의식을 다시한번 새로이 하며 현실의 모든 교육이 인간형성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식 전달에만 전념하는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나 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여 인간본성의 교육이 되도록 지도자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다짐한 것은 60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생들이 낳은 최대의 열매라고 생각된다.

이번 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통해 본인을 비롯한 여러 교육생들은 태권도를 단순한 기술지도가 아닌 기술지도를 통한 이상적 인간형성에 목적을 둔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태권도 본래의 ‘의미’ 추구해야”



전 윤 숙

국기원연구분과위원

연일 봄기운을 느낀다.

하늘을 쳐다보면 푸른빛이 땅에 잠든 모든 것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탁트인 공간을 지나노라면 멀리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우리집 꼬마도 겨우내 밖에 나가자는 소리가 없더니 요즘엔 나가고 싶어 피를 피운다.

예를 들어 창밖으로 책을 떨어뜨린다든지, 계단에서만 놀겠다든지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며 자연이 우리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한다. 지난 겨울엔 운동을 너무 많했다는 생각이 든다. 온 육신이 찌뽕뽕하게 사지를 가능한 쪽 쪽 뻗는 운동을 하고 싶고 심장이 쿵쿵 울리도록 뛰고 싶어진다.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학교 졸업후 이내 운동을 소홀히 했다. 그건 나의 게으른 탓도 있었지만 나를 에워싼 환경이 그에 못지 않게 큰 장벽이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체육은 사회 체육 방향으로 흘러 운동을 통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평생 운동」이라는 “모토”아래 시도되고 있다.

미국 LA의 경우 1천 2백만 인구의 96.3%가 어떤 형태로든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그중 42%

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88. 12. 30일자)

이는 본받을만한 일이고 부럽기조차하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신입생시절 태권도부에 들어가 대부분의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 속에서 기압을 넣으며 운동하던 시절이 그렇게 소중한 수가 없다. 그때부터 여러 운동종목 중에서도 태권도는 가장 내 마음에 들었고 신체 적성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느꼈다.

태권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고 단순한 호기심들을 표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태권도가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절도있는 유연한 품세나 민첩하고 강한 힘이 작용하는 대련(겨루기)속에서 탄력있는 유연성 또한 느낀다.

유연성이란 여성에게는 특히나 아름다움을 얼마나 더해주는 것인지를 나이를 먹을수록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젊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태권도에 또 한가지 매력을 느끼는 것은 기압이다. 운다는 것이 자기 정화에 좋다고 한다. 생활 속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각자의 적성에 맞게 푼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도 무수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기압'은 자기 정화의 한 표현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쉬울 것 같지만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느낀다. 목소리가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쑥스러움조차 느껴진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성 태권도인들의 모임이 있어 매우 좋다. 이 모임을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감사한다. 그중에는 도장을 경영하는 분들도 여러명 있다. 수련생의 수가 가장 경제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는 가정이 가장 즉 남편에 의해 경영되는 것보다는 여성이 부업으로 도장을 경영하는 것이 순수해 보여 좋다.

스승 한 분의 말이 내 가슴에 늘 남는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비겁한 곳에서 용감할 수 있고 순수한 자기 주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나의 주변에서 보는 여성태권도 관장들의 마음은 밝고 유쾌하다. 우리들 중에는 선수출신도 있고 나처럼 취미로 한 사람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 순수 아마추어라는 점이다.

요즈음 남녀국제경기가 많아져서 태권도가 국제무대에 서면서 널리 알려져 스포츠의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지만 경기위주의 태권도가 된다고 하여 태권도 본래의 의미와 추구하는 바가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뒤편에서 태권도가 좋아서 수련하는 우리들은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라는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는 매우 동적이나 그 이면은 정적인 덕을 추구하는 것이 태권도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될 일이며 균형있는 태권도의 수련이야말로 『평생 운동』이라고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태권도수련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태권가족



> 이향원





귀찮은 노~움

글·그림 오인숙



굴뚝 옆에서 훌쩍 훌쩍 울던 막딸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귀찮은 노~움일까?’

막딸이네 집에는 두 언니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딸을 낳은 엄마, 아빠는 막딸이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게 되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도 또 딸을 낳자 화가난 아빠는 세째 딸의 이름을 막딸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딸이가 조금만 미운 짓을 해도 ‘귀찮은 노~움’하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막딸이는 예쁜 여자아이인 자기를보고 아빠가 왜 ‘노~움’하는지 그게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막딸이는 하루에도 열두번 쯤은 ‘귀찮은 노~움’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막딸이는 굴뚝 옆에서 울기 바로 전에 방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다가 둘째 언니 턱을 걷어 차 버렸습니다.

아빠는 막딸이의 엉덩이를 호되게 때리며 또 ‘귀찮은 노~움’이라고 했습니다.

막딸이는 ‘귀찮은 노~움’에 대하여 눈을 깜박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귀찮은 노~움일까?’

‘귀찮은 노~움을 누가 만들었을까?’

한참 생각하던 막딸이는 문득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하던 생각을 해냈습니다.

막딸이는 굴뚝 옆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귀찮은 노~움을 왜 만드셨는지 물어 보아야겠다고 결심을 대단히 했습니다.

막딸이는 엉덩이에 묻은 흙을 두 손으로 타다닥 털어 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슬레처럼 뒷짐을 짊고 하나님을 찾아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막딸이는 풀섶을 헤치다가 필쩍 뛰는 개구리에게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앞으로 나가던 막딸이는 그만 커다란 돌부리에 걸려 코방아를 찧었습니다.

막딸이는 펄쩍 주저 앉은채 돌을 노려 보며 아빠처럼 큰 소리로 ‘귀찮은 노~옴’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은 알뜰게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막딸이는 약이 올라 볼을 찔룩거렸습니다.

그 때 어떤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아저씨는 돌을 얼른 수레에 실었습니다.

“내가 찾던 돌이 여기에 있었군. 이 돌이라면 집 지을 주춧돌로는 안성마춤인걸.”

커다란 돌은 덜컹 덜컹 손수레에 실려 가면서 막딸이를 보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나는 귀찮은 노~옴이 아니야. 집을 지을 기둥을 괴는데는 내가 꼭 필요하단다. 나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쑤이야. 귀찮은 노~옴은 커녕 쓸모있는 거란 말이야 허허허.”

막딸이는 엉덩이를 툭툭 뺄고 일어 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딸이는 옥수수 밭을 지나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쉬고 있는 막딸이의 발 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막딸이는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진 채 바시락 소리가 나는 곳을 말끄러미 바라 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두더지 한 마리가 넓적한 발바닥으로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무얼 하는거야? 옥수수 뿌리가 다 망가지잖아. 이 귀찮은 노~옴아.”

막딸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뽀족한 주둥이로 열심히 땅을 파던 두더지가 깜짝 놀라서 바늘구멍만한 작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우 막딸이를 알아 본 두더지는 투덜거렸습니다.

“깜짝 놀랐네, 안경 한 쪽 알을 잃어 버렸단 말이야.”



두더지는 다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뿌리가 뿌지직 뿌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 그만 옥수수 뿌리가 다치잖아. 이 귀찮은 노~움아.”

막말이가 지르는 소리에 두더지는 못마땅한듯 뽀족한 주둥이를 쳐들고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나 보고 귀찮은 노움이라고? 이래봐도 나는 땅파기 선수야. 어디 그 뿐인 줄 알아. 내 몸의 이 털 좀 보라구. 비단 같이 부드러운 이 털이 털옷감으로 비싼 값에 팔린단말이야. 감히 나를 보고 귀찮은 노~움이라고 하다니.”

두더지는 암갈색 등을 흔들어 보이더니 굴을 파고 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첫, 하나님은 못 만나고 이상한 것들만 만나네.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막말이는 앞으로 앞으로 걸어 가다가 커다란 연못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연못물을 들여다 보던 막딸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 연못 위에 하늘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막딸이는 연못을 들여다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느냐구요?”

연못물에 비친 하늘이 대답이 없자 막딸이는 한 발 한 발 연못 안으로 들어가다 ‘아야’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머리 한 마리가 막딸이의 종아리에 붙어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이 이 귀찮은 노~움.”

막딸이는 거머리를 팽겨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머리는 저 만큼 나가 떨어졌습니다.

막딸이는 연못에서 나와서 피가 나는 종아리를 치마로 닦으며 거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귀찮은 노~움.”

거머리도 막딸이를 노려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보고 귀찮다고?”

“그래 너 같은 거머리는 없어져야 해. 귀찮은 노~움이란 말이야.”

거머리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내 침으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약을 만드는 걸 너 같은 꼬마가 알게 뭐야. 피가 엉기는 걸 막는 약을 내 침으로 만든단 말이야.”

“잘난 척 하지마.”

막딸이는 획 돌아 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어 가던 막딸이는 커다란 느릅나무 밑에 털썩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아휴 숨 차.”

느릅나무 잎새가 또옥 막딸이의 머리위로 날아 내렸습니다.

막딸이는 느릅 나무를 쳐다 보았습니다.

느릅나무 사이로 파란 하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ی 땅에 있을리가 없지. 높은 곳에 있을꺼야.”

막딸이는 사내 아이 처럼 느릅 나무위로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노란 띠를 배에 두른 송곳벌이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 와서 막딸이의 주의를 빙빙 돌렸습니다.

“아이구 귀찮아. 귀찮은 놈이 정말 나타났군.”

막딸이는 벌에 쏘일까봐 고개를 움츠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송곳벌이 날카로운 침을 막딸이에게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뭐야 날 보고 귀찮은 놈이라고? 달디단 꿀을 누가 만드는지 알아? 내가 만든단말이야. 너야 말로 귀찮은 놈이야. 어서 내려가지 못하겠어.”

막딸이는 할 수 없이 느릿 나무에서 쭉쭉 미끄러져 내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귀찮은 노움이 아니란 말이야.”

막딸이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어 버리고
썩썩거리며 오든 길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노을이 지더니 곧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막딸이는 다시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막딸아 막딸아.”

집에서 엄마가 행주 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막딸이는 얼른 굴뚝 뒤에 숨었습니다.

“막딸아 막딸아 애가 어디로 갔나?.”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자 두 언니도 뛰어 나와 막딸이를 찾아 나
섰습니다.

“막딸아 막딸아.”

아빠도 허둥 지둥 막딸이를 찾아 동네를 헤매었습니다.

“칫, 귀찮은 노~옴은 왜 찾아.”

막딸이는 공연히 눈물이 나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훌쩍 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들이 활짝 열어 놓고 간 대문 문짝이 막딸이를 불
렀습니다.

“막딸아 어서 들어 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귀찮은 게
없는거야.”

“그건 나도 알아.”

막딸이는 문짝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엄마가 차려 놓은 따끈한 저녁 밥상이 차려진 채 그대로 놓여 있
었습니다.

아빠 손가락에도 엄마 손가락에도 언니들 손가락에도 밥풀이 묻
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막딸이가 걱정이 되어서 저녁밥도 먹지 않고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막딸이는 제 손가락을 들고 맛있게 밥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로 쓰러져 톱툰 잠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 왔을 때 귀찮은 노~옴은 하나님을 만나는지 잠결
에 방긋 웃었습니다.



오 인 숙

필자약력

- 저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사랑을
키우는 아이들」
- 국정 교과서
집필위원
- 현재 제3TV어린이
드라마 「우리동산」
집필중



별들의 이야기

김 경 일

서울시협회 경기분과 위원장
자양체육관 관장

반짝이는 눈동자
저, 하늘을 보아요
별들은 무슨이야기 할까요 ?

아빠별 엄마별 아기별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사람들은 무슨이야기 할까 ?
궁금해 내려다 보며
아빠별은 꺾꺾꺾꺾
엄마별은 꺾꺾꺾꺾
아기별은 반짝반짝
하지요 .

뛰다가 돌아보니



글 · 김건중
그림 · 이향원

비단결처럼 곱고 화사하던 봄자락이 여름을 끌어들이고 그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참으로 계절의 탈바꿈은 소리없이 빠르기만 했다.

체육관이라는 곳이 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운 것 같고 여름에는 숨이 막히도록 무진장 덥다고 느끼는 곳인데, 여름의 문턱도 아닌 삼복에야 덥지 않을 턱이 없었다. 이런 때는 소나기라도 한 줄금 쏟아지면 가슴이라도 시원하련만, 소서를 앞두고 장마 김새가 비치면서 서너 차례 후두둑 비를 뿌리더니만 가뭄이 들려는지 햇살만 뜨겁게 쏟아지니 가슴 속부터 갈증이 치밀어 오르기만 했다.

며칠 후면 벌어질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전에 출전하게 될 두철이는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뒹뒹이 되어 물

에서 건져낸 사람처럼 도복이 흠뻑 젖어 온몸에 착 달라붙었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란듯이 계속 허공을 가르는 발질을 하고 있었다. 말이 쉬워 발질이지 허공에 대고 차대는 발길질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것도 빠른 발차기로, 보다 빠른 공격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차는 것이고 보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선수가 정상의 고지를 향해 달리는데 그만한 고통쯤이야 감수해야 한다고 쉽게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이 형극의 길처럼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철이가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견디며 연습에 몰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꿈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두철이의 마음은 그까짓

고통은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썩든 국가대표 선수의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 꿈의 실현만을 애오라지 그리며 태권도 수련에 전념한 두철이었다.

두철이가 태권도에 입문한 것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 봄이었다. 불이라곤 했지만 아직도 꽃샘바람이 옷깃으로 스미면 시원기운이 온몸으로 파고들어 오스스 떨리는 이른 봄. 두철이는 생선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손에 끌려 천하체육관에 입관하게 되었다.

그날, 입관수속을 마친 뒤 생선이 담긴 커다란 합지박을 머리에 얹으며 두철이 어머니는 도사범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선상님, 야가 머리는 어두워도 끈심은 있시유. 선상님한테 마끼레니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을테니 일류선수만 만들어 줘유. 야 아버지 유언이었시유.」

「유언요?」

「야 아버지두 태권도 교관이었는데 월남서 편지 할때마다 태권도 전수를 만든다고 했시유. 그런데 야가 돌잔치도 하기 전에 전사했시유…」

말끝을 흐리는 두철이 어머니의 모습은 체념 다음에 오는 새로운 각오가 깃들여져 있었다. 도사범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철이의 환경을 대충 짐작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녀의 바램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다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두철이는 별 말썽없이 꾸준히 태권도를 계속했다. 그런 가운데 전국대회 규모에서 서너차례 입상하는 전적도 쌓아올렸고, 특히나 지난 달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 선발 1차전에서의 우승은 두철이로 하여금 커다란 꿈을 실현하는데 한발 성큼 다가서게끔 만든 것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지금 두철이는 죽을 힘을 다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임마, 네 약점을 보완해!」

도사범이 두철이의 연습하는 모습을 몰그림히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두철이의 약점은 공격의 연결에 있었다. 게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간에 공격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발력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 순발력이 부족하다면 승패에 관계없이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찌보면 시험 겨루기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두철이가 그런 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설령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체질적으로 뼈대가 굵고 공격적인 유럽이나 서구 선수들에게 지금 두철이가 하고 있는 경기내용으로는 그들을 제패하기가 힘들다고 도사범은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랜 태권도 지도자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기도 했다.

잔인하도록 두철이를 훈련시키는 도사범의 마음도 안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커다란 영광을 위해 일단은 모든걸 접어두고 강행하고 있었다.

「공격 후 중심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그 중심을 그냥 착지상태에서 잡으려 하지 말고 공격동작으로 연결시키면서 잡으란 말야.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도사범의 주문은 실로 어려운 주문이 아닐 수 없었다.

입을 앙다물은 두철이가 도사범의 요구대로 발차기를 할 때마다 도복자락에서 피육피육하는 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뒤돌아차고 다시 반대로 얼굴을 갈려차고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순간 다시 발을 내려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말처럼 쉽게 되질 않았다. 서너차례 공격 후면 으레 중심이 흔들려 불안정한 착지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안돼 임마! 다시해봐」

도사범의 호령은 준엄했다.

「사범님, 좀 쉬었다 하겠어요.」

식뻔하게 달아오는 얼굴과 이마에 흐르는 비지땀을 손바닥으로 훔치대며 두철이가 거친 호흡으로 말하자

「뭐야? 지금 그런 순간에도 공격이 가능해야 돼. 계속해!」



「...네에」

두철이는 쇠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발을 추스리더니 다시 허공을 향해 연속동작의 발차기를 시도했다. 금세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치밀었지만 두철이는 여념없이 응시문 채 도사범의 주문대로 동작을 반복했다. 이렇게 얼마간 계속하자 두철이의 몸은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을 도사범은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 삼십분간 쉬어」

도사범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철이는 썩은 고목이 쓰러지듯 풀썩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임마! 호흡을 크게하다가 서서히 줄이면서 안정되면 누워」

도사범이 두철이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거, 애 죽이겠어...」
어느새 별난영감이 사무실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다가 물쭉 빼내는 말이었다.

「언제 오셨어요?」

「좀 됐지...」

「두철이가 애호로워 못보겠어. 하기사 그 짬은 해야겠지...」

별난영감이 군시렁거리듯 혼자말로 우물거렸다.

「시험이 며칠 난났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쓸어내며 도사범이 말했다.

「아니, 지난 번에 국가대표 뽑는다고 시험한 건 뭐야?」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주국이다보니 선발전을 여러 차례 갖어요. 일차, 이차 선발전을 갖은 다음 현 국가대표선수까지 포함된 삼차 선발전이 최종 선발전이거든요...」

「그렇구면, 그나저나 아뵤는 신통해, 거 좀 아



든다. 실력은 했는데 두철이가 국가대표가 될 후보라니 말하. 완전 뭐 이겨야 하는데...

별난영감의 말 속에 두철이의 모든 입장과 환경과 인간 됨됨이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정대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벌어지는 마지막 경기 날이 돌아왔다.

시합장으로 향하는 도사범, 두철이, 별난영감, 고운이, 모두 그 표정들이 한결같이 아침 햇살 처럼 밝고 싱그러웠다.

대진표를 보니 두철이의 상대선수는 지난 88 서울올림픽 때 국가대표로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였다. 대진표를 보던 두철이는 주눅이 들었는지 눈을 슴뻛이며 침묵에 잠겼다.

「임마! 겁먹지 마. 너보다 못하니까 맘놓고 밀어부쳐」

도사범이 두철이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톹치며 가볍게 말했다. 그러나 그말은 두철이의 사

기를 높이기 위한 말임을 두철이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사범의 말이고보니 용기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드디어 게임 순서가 돌아왔다.

경기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검지손가락이 하늘로 오르며 1회전이 시작되었다. 예상했던대로 두철이를 완전 제압하기 위해, 상대선수는 노련미있게 두철이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두철이는 그 유도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하게 게임을 운영했다. 몇번 발을 주고 받았지만 기술은 엇비슷하여 우월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없이 긴장된 자세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것은 상대선수만 못했다.

(저러면 안되는데...)

코치석에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지켜보던 도사범이 허끝을 찌는데 1회전 게임이 종료되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두철이가, 코치석으로 다가왔다.

「임마! 너 뭇 때문에 긴장을 해? 저 선수 기술은 뻔하잖아. 그걸 조심하고 공격유도에 걸리지마.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해 그러다가 찬스가 오면, 알았지」

물론 입가심을 시키고 혈맥대는 가쁜 숨을 풀어주며 도사범은 나중히 작전을 지시했다.

1분의 짧은 휴식시간이 끝나며 2회전에 돌입했다. 1회전 때보다는 확실히 달랐다. 상대선수는 적극적인 공격자세로 나왔고 두철이는 긴장을 풀고 여유있게 맞서고 있었다. 2회전이 시작되고 30여초가 지났을 때였다. 상대선수의 거칠게 들어오는 발을 피하며 두철이의 원발이 받아차듯이 뺨다말고 멈추더니 켠싸게 오른발이 상대선수의 얼굴을 향해 날라갔다.

「바사아—」

기압소리와 함께 상대선수의 얼굴에 두철이의 발이 정확히 꽂히는 순간, 상대선수는 나뭇그라졌다. 우뢰같은 박소리가 터지며 주심의 카운터 소리가 들려왔다.

「... 여섯. 일곱. 여덟...」

게임은 두철이의 케오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수고했다」

두칠이의 등을 툭툭치며 도사범은 활짝 웃었다. 참으로 두칠이에게는 힘겨운 상대였는데 이겼다는 것이 도사범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확실한 득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져 뜻하지 않은 케오승으로 이긴 것이 한가닥 칙칙한 불안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두칠이 차암 자랄했다. 장하다 장해.」

별년영감은 연신 입가에 웃음을 베어몰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온몸을 출렁거렸고, 고운이는 생갈대며 콜라병을 두칠이에게 건네주면서 재잘대고 있었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니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이내 그들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문제는 2시간 후에 있을 마지막 대전이었다. 상대선수는 2차전에서 선발된 선수인데 그 선수 역시 두칠이처럼 무명선수인지라 그 기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흡사, 깊이를 모르는 강을 헤엄치는 식이기 때문에 도사범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두칠아, 이번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일회전은 탐색전으로 나가다가 제대로 기술파악이 되면 거세게 밀어부쳐. 단 성급한 것은 금물이야. 무명선수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기술이 있는 지도 모르니까 깔보면 안돼.」

「알겠어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라는 거야. 그 정정당당함은 경우에 따라 승리보다도 값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도사범의 음성은 나직하고 부드러운데 천근은 뒹직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가벼운 식사를 마친 뒤 대진표를 보니 게임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행은 자리를 털고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관전하면서 도사범은 두칠이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곁들이면서 다음 있을 게임을 위한 작전을 지도했다.

「바로 저거야. 저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거야.」

「.....」

묵묵히 도사범의 설명을 듣고 있는 두칠이를

향해 별년영감이 거들고 나섰다.

「인석아, 사범님 말 잘 듣고 이겨야 돼. 그래야 이 헬애비도 신바람이 나지.」

「두칠인 이길 거예요.」

고운이가 두칠이 옆으로 다가앉으며 출랑댔다.

경기장에서는 양편 모두 득점없이 싱겁게 2회전을 마무리짓고 있었다. 청코너 선수는 속도나 게임운영을 볼 때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음에도 끝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홍코너 선수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겁하게 요리조리 피하는 선수답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다. 물론 게임운영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홍코너 선수의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

「저건 안되는데... 두칠아, 아냐...」

도사범은 두칠이에게 홍코너 선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려다 말끝을 흐려버렸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오랜 경륜이나 체험에서 지도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문제지 명확한 설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그 게임이 끝나고 얼마 안돼 두칠이의 순서가 돌아왔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경기장으로 나가는 두칠이의 모습은 상당히 당당해 보였다. 허나 그 당당함 속에는 조그만 불안과 초조가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점점 확대되어 스멀스멀 두칠이의 머릿 속으로 차오르고 있음을 도사범은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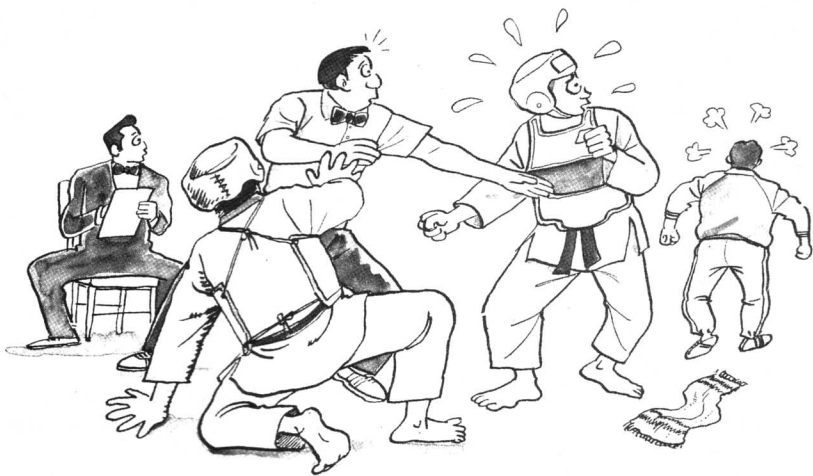
1회전이 시작 되었다.

서너 차례 공격이 오가며 양선수는 공격에 자신이 붙는지 점차 과감한 공격이 시도 되기 시작했다.

「파악!」

스태를 바꾸며 둘러찬 발이 두칠이의 몸통에 명중했다. 득점을 빼앗긴 두칠이는 당황하며 상대선수에게 따라 붙듯이 파고 들었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도사범은 안타까웠다.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며 평소애 꾸준히 쌓아올린 자신의 기량을 하나씩 펼치며 득점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두칠이는 조금씩 서둘러 게임운영을 점점



어렵게 이끌고 있었다. 이미 승부에만 집착되어 이리뛰고 저리뛰는 무질서한 동작을 벌리고 있거나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여 오히려 역습당하기 알맞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었다.

「바보같은 녀석…」

도사범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기량으로 보아 두칠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도 오히려 상대선수에게 휘말리고 있으니 도사범 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하지만 실로 분통이 터진 것은 그점이 아니었다. 까짓, 게임 운영이야 경험이 적다보니 그렇다손치더라도 순득하기만 하던 두칠이의 눈빛에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다는 의미와는 상반된 거리에 있는 추잡하고 야비한 승부욕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도사범은 분노 이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점을 빼앗긴 채, 1회전을 마치고 코치석으로 들어오는 두칠이의 표정은 패기가 사라지고 흥

분에 잠겨 있었다.

「임파! 승부에 집착하지마. 지더라도 네 페이스를 찾아. …비겁하게 그 따위 공격으로 하면 안돼. 알았지?」

도사범은 부그르르 끓어 오르는 부아를 식히며 나중히 타일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드러운 충고가 아닌 엄중한 경고였다.

짧은 휴식시간이 끝나고 2회전이 시작 되었다. 상대선수는 뒤돌아차기의 명수였다. 다행이도 날카로운 그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두칠이는 당황하여 주춤하거나 아니면 바짝 달라붙어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두칠이는 수세에 몰리는 지 엉뚱한 공격을 시도하거나 가끔씩 중심의 눈치를 보며 고의로 상대방을 어깨로 밀거나 부딪치고 있었다. 그런데 2회전 중반쯤해서였다. 상대선수의 뒤돌아차기를 두칠이가 되받아 찬 것이 상대선수의 목덜미에 강하게 꽂히며

득점으로 연결되었다.

「갈러!」

주심의 갈러선언으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겨루기 자세를 취한 상대선수는 목덜미에 통증이 오는지 선제 공격을 피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샤아—」

두칠이가 돌려차기를 하기 위해 발을 드는 순간, 이미 공격이 들어와 있던 상대선수의 오른쪽 발목이 두칠이의 무릎에 부딪히며 상대선수는 약간 절뚝거렸다. 두칠이는 기회다 싶어 과감한 공격자세로 나가는데 2회전이 종료 되었다.

「두칠아, 상대는 발목이 나간게 분명하니까 오른발을 쓰지 못할거야. 그러니까 비겁한 행위를 하면 안돼.」

도사범의 말은 다친선수에게 비겁하게 승부에 집착해 다친부위를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예, 알았어요.」

마지막 회전인 3회전이 시작되자마자 두칠이의 공격은 활기를 뿜었다. 예상대로 상대선수는 원발로 견제와 공격을 하는 안타까운 게임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대선수의 원발이 두칠이의 가슴팍을 때리며 득점을 하니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당황한 두칠이는 갑자기 흥분되어 상대선수의 다친 발목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며 접근하고 있었다. 상대선수는 현재 상황으로는 1점 앞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아니면 다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선지는 모르지만 방어위주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두칠이는 점점 초조해지며 상대선수의 발목만을 노리며 거칠은 공격을 퍼부었다. 그 거친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는지 경계선 밖으로 밀리는 상대선수에게 주심은 라인밖 경고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칠이가 0.5점을 뒤흔치고 있었으나 점수를 만회할 시간은 충분했다.

(저 녀석이 저러면 안되는데, 비겁하게 저 따위로 게임을 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도사범이 혀끝을 차는

순간, 두칠이의 몸통공격이 1점을 득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여초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면 두칠이의 승리가 확실한 것이었다. 리그전으로 펼친 최종선발전은 5게임의 경기를 치루게 되는데 이틀째 경기인 마지막 게임이니 이 게임에서 이기면 두칠이는 꿈에도 그리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었다.

두칠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에 젖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사범은 우울한 표정이 되며 갈등에 빠지고 있었다.

그 갈등. 그것은 도사범에게 있어 커다란 결단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될 정도의 태권도인이려면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칠이는 승리라는 화려한 영광을 위해 인간상실이 오지 않았는가. ...저건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기술 기량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참자! 아니다! 저 녀석을 큰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사범생활 20여년동안 줄곧 뛰기만 했지 뒤돌아 볼 여유가 없었던 자신을 탓하며, 도사범은 머리를 도리질치더니 들고 있던 수건을 게임을 뛰고 있는 경기장 안으로 힘있게 던져 기권을 표시했다.

「아니?!」

경기장 안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지며 도사범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두칠이는 상대선수 쪽에서 기권을 표시한 것으로 착각하고 펄쩍 뛰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코치석을 돌아보니 이미 도사범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

두칠이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주심은 상대선수의 손을 높이 들며 판정을 내리고 있었다.

「어엇! 사, 사범님임.」

두칠이는 주심의 오판이 아니고 상황이 뒤바뀐 것을 뒤늦게 알고는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그르 돌고 있는 두칠이의 눈에 경기장 밖을 빠져 나가고 있는 도사범의 뒷모습이 커다란 태산처럼 확대되어 박혀오고 있었다. *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

김 영 선
연세대 강사

차 례

I. 머릿말

I. 머릿말

II. 태권도 정신의 의미

III. 태권도 정신론의 필요성

1. 태권도 공인 정신론 요청에 부응
2. 태권도 전반적 흐름을 창도하는 확고한 가치관 설정
3. 심도 높은 태권도 교육의 기초 근거 제공

IV. 태권도 정신론의 성립 조건

1. 의미성
2. 내재성
3. 독자성
4. 이론성

V. 태권도 정신론 정립 방안

1. 연구자의 철학적 전문성 배양
2. 개인에서 공동 과제로
3. 태권도 사범 의식 실태 조사
4. 담당 전문 부서 설치 운영

VI. 맺는말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아니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를 품은 듯 하다. 태권도에서 정신은 폭력적 타락과 물질지향적 성향으로 빚어지는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 교육과 경기 현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사상·행동의 근거로써 정신은 누누이 강조되고 제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정신은 무엇인지, 왜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론적 수준은 확립되지 못하고 각양각색의 논지 부실한 개인적 주장들이 분분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태권도 전체 차원의 공인 정신론 수립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태권도 정신의 의미

태권도 정신(精神, Taekwondo spirit)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개념 파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이란 말 뜻에 대해서는 복잡다단

한 철학적·심리학적 개념이 부여되어 있지만 태권도 영역에서는 일반개념이 적용되는 것 같다.

철학적 의미에서 정신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로 규정되지만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신이란 생각이나 감정 따위의 작용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마음을 가지는 방향(예, 봉사의 정신),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예, 화랑도의 정신) 등으로 풀이된다.²⁾ 이러한 풀이에 비추어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의 근본 의의나 목적" 또는 "태권도 수련(행위)에 내포된 근원적이며서 이상적인 인간 의식"이라 개념지을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은 흔히 태권도 철학이라고 말해 지지만 양 자는 동일하지 않다. 태권도 철학이란 태권도 본질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철학은 "태권도를 대상으로 하여 철학적 방법과 견해를 적용하는 일"로써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철학의 범주에 속한다.³⁾

태권도 영역에서 정신은 기술(技術)과 신체(身體)면에 상대하는 용어으로써 태권도 기술 수련을 수행케하는 근원적 의지로 작용한다. 아울러 태권도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 실천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태권도 정신을 문제삼아 논리정연하고 합당한 이론을 산출하는 작업이 곧 태권도 정신론인 것이다.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철학의 범주에 속하며,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심과제이다.

III. 태권도 정신론의 필요성

태권도 정신론 정립을 위한 모색에 앞서 "태권도 정신론은 왜 정립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태권도 정신론을 정립하려고 하는가?"라는 근본 물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삼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태권도 공인 정신론 요청에 부응

어떤 무술이건간에 그 행위의 근저에 있는 사상적 근원과 문화적(文化的)배경을 갖추려 한다. 그럼으로써 유구한 전통과 체계적 틀을 지닌 무술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술행위의 바람직한 지표와 이념을 표방할 수 있어 수련자에게 사상을 불어넣고 사회에 대한 존재가치 증대를 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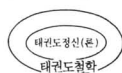
태권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론 확립을 도모해 왔다. 더우기 중국, 일본의 여타 무술과 경쟁적위치에 있는 태권도는 한국 대표적 무술로써 역사성과 명증(明證)한 사상적 기반 확립과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기관 정비, 경기활성화 및 세계화(올림픽 종목화), 기술체계 재구성 등의 현실적 당면과제에 밀려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공인교본 게재와 지도자 및 심판교육용 관련지식의 필요에 따라 정신론이 제기되는 듯하다.

1) 존재(存在, being)란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의 불가능한 것이고 단지 그 용법만이 기술될 뿐이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존재의 총체로써 우주 혹은 자연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것과 생성·소멸·변화의 짜임새를 연구했다. 신(神), 자연, 물질, 정신, 자아, 현상과 본질 등이 존재에 관한 문제이며 형이상학과 같은 뜻으로도 쓰이는 존재론(ontology)에서 취급한다(황세연, 「철학입문」, 16~17면, 필자의 글 「태권도 철학 I」 제간 태권도 67호, 103면 참조바람).

2) 신기철외, 「새 우리말 큰사전」, 2957면.

3) 태권도 철학과 태권도 정신과의 관계를 다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태권도정신(론)은 태권도 철학이 핵심과 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구각색의 개별적 관점의 견해만이 존재할 뿐, 태권도 공식 수준의 통일된 정신론이 미비된 실정이다. 그나마 제시된 정신론을 태권도와 동떨어진 한국사상의 피상적 서술이나 규범적·계몽적 덕목의 나열로 일관하고 있어 공감성을 얻질 못하고 있다.

정신론에 대한 혼선은 국기원 차원에서조차 드러난다. 태권도의 정신철학이란 제목으로 국기원 공인교본(87년 발간)에 명시된 내용과 지도자·국제심판교육에 시행되는 정신론은 그 시각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⁴⁾ 통일적 지식 체계를 수립해야 할 국기원조차 자신있게 내 세울 수 있는 정신론을 못갖추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어떠한 주장이라도 가능한 개인적 견해에서 벗어나 태권도 공식차원의 정신론은 마땅히 규명되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2. 태권도 전반적 흐름을 창도(創導)하는 확고한 가치관의 설정

태권도는 격투기술적 성격이 스포츠 경기 형식으로 변용되어 팔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우기 올림픽 경기에 채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고무적인 발전이 예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인 요소도 제기된다. 수련과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가치(건전한 자아상 형성, 자기 극복적 신념, 인격도야 등)보다는 점차 승리 제일주의,

의, 판정비리, 물질적 보상에 따른 상업적 사고방식, 기술의 도구화, 약물복용 및 육체의 혹사 등의 조짐이 고조되는 것이다.⁵⁾

또한 경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커질수록 승리는 생취되어야 하며 승리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이 팽배하는 것 같다. 결국 수련행위는 물의 획득을 위한 수단이 되고 수련자는 신체혹사를 불사한 승리제조기로 전락하는 양상에 젖어들 것이다.

스포츠 경기 추세의 부정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철학적 사고의 부재(不在)에서 기인되며, 정신론 확립으로 일단의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신론은 태권도의 궁극적 의미를 담은 설명체계이다. 수련자가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참답고 영속(永續)적인 내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오로지 기술획득과 경기 승리만을 지향하는 목표달성적 완고한 의지는 점차 의미있는 수련과정속에 융해될 수 있다. 또한 승리, 영광, 보상 등의 외적 가치는 수련의 궁극적 의미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수련자 개인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신론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자 존재의의이다. 아울러 개인사이의 관계로 구성된 태권도계에서는 내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자기 정화력을 배양함으로써 바람직한 풍토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 4) 이종우씨 「태권도정신」과 한승조씨 「태권도의 정신철학」이 그것이다. 「태권도정신」은 수련 목적 및 과정, 기술과 연관시켜 태권도적 의미나 내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후자는 한국사상사에 논거(論據)를 둔다. 태권도와 관련된 법한 화랑도, 무인정신, 동학사상 등이 태권도 정신형성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정신(론)은—태권도적 체험이나 역사에서 비롯된다 할지라도—일련의 설명체계인 바 논리적·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심신합일, 순수몰입, 장(場), 정인(正人), 지행합일, 충효, 호국, 평화정신 등 다의적(多義的)·추상적 용어는 그 의미와 근거 및 태권도적 용법등이 신중히 검토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종우, 「태권도 정신」, 국제 심판 강습교재, 23—27면. 한승조 「태권도의 정신철학」, 국기 태권도 교본, 37—42면 참조.

- 5) 서양 스포츠의 타락상에 대해 많은 스포츠철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본래 의미인 참여와 활동을 통한 내적 기쁨이나 인간성 고양 등을 상실한 상업적·투쟁적·폭력적·비도덕적 현상의 만연에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3. 심도높은 태권도 교육의 기초근거 제공

태권도 정신론은 도장과 체육관에서의 교재로써도 중요하다. 태권도 정신론은 수련자에게 태권도의 근본 가치를 인식시켜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교육의 기초가 된다. 태권도 지도자라면 누구나 태권도의 기술적·신체발달적 가치 못지 않은 정신적 의의를 표명한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에 내포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수련외적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의 근본적인 의미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한 설명을 하질 못한다. 기껏해야 지도자 개인의 생각과 신념수준에서 태권도 교육을 시행할 뿐이다. 이는 태권도 일선교육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논리정연한 정신론의 부재에서 기인되는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적 능력과 신체적 힘을 조정, 통제하는 정신적 측면을 상세히 이해하고 체득시키게 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교육이다. 지도자와 수련자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할 확고부동한 지식체계로써 태권도 정신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태권도 내면에 있는 알맹이 생각들을 밝히고 체현(體現)시켜가는 작업이 곧 태권도 정신론 정립작업이며 당면과제이다.

IV. 태권도 정신론의 성립조건

태권도 정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당연히 ‘어떻게’라는 방법과 내용설정이 거론된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지식체계로써, 타당성 있는 태권도 정신론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

어야 할 조건들이 있게 마련이다.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의 핵심을 내포할 뿐 아니라 수련자에게 참다운 의미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의미성, 내재성, 독자성, 이론성 등 네 가지 특성을 태권도 정신론 수립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다.⁶⁾

1. 의미성

—태권도 정신론은 수련자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태권도 정신론 확립에 고려해야 할 첫 조건은 의미성이다. 태권도 정신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수련자의 정신형성에 도움을 주는 의미를 함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정신이란 말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작용’으로써 바람직한 가치관이 부여되어 있다.”⁷⁾ 특히 태권도 영역에서는 격투 및 폭력 수단이기도 한 기술과 물리적 힘을 판단과 행동 지표로써 규정된 정신에 의해 올바르게 적용시키고자 한다. 또한 태권도 정신은 기술과 신체적 힘과 도덕적 행동간의 조화를 통해 자기완성을 견지하는 원천적인 의지력이다. 살아 활동하는 생활에서 수련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주체적 관점에서 삶을 영위케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와 수련자(인간)사이의 궁극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가,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획득해야 한다. 정신론은 과거 어느시점에 국한된 특수 상황이 아닌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태권도인에게 끈끈한 의미를 던져 주어야 한다.

정신론은 태권도 수련자에게 의지와 자각을

6) 태권도 정신론 수립을 위해 필히 참고해야 할 요건들로서 심재흥의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집문당. 서적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한국철학의 정체와 영역, 보편사적 의미, 접근방법 전반에 걸친 한국철학자들의 논문집이다. 특히 이명현 교수의 「한국철학의 전통과 과제」는 태권도 정신론 접근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7) 또는 고차원적인 심적(心的) 능력을 가르키기도 한다. 임석진, 「철학사전」, 331면

불어넣는 자기 극복적 신념을 제공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태권도계 풍토조성의 밑거름이 되며, 정신론이 존재해야 하는 내적인 필연성이다.

2. 내재성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행위 본질에 근거두어야 한다.—

내재성은 태권도 정신론이 태권도 본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 조건이며 앞에 제시된 의미성과 일맥 상통한다. 태권도 정신론 성립의 주요 조건으로써 내재성은 잘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흔히 태권도 정신이라고 하면 그저 수련자가 이행해야 할 규범적 태도로 국한시킨다. 태권도 생활과 관련된 바람직한 덕목(예를 들면 예의, 인내, 충·효, 정의, 평화 등)들이 태권도 정신의 내용으로 간주되는가 하면 동양고전이나 한국고유사상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어휘(예, 홍익인간, 화랑도, 세속오계 등)가 태권도 정신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어휘들은 태권도와 일말의 연관성이 있고 교육적 의의를 지닌 내용이지만 외부사상의 외형적 틀을 태권도에 씌우는 억지 춘향식의 시도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 영역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이나 이념의 대부분은 태권도적 내재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태권도 정신론이 될 수가 없다. 단지 태권도와 상관되는 사상 정도가 될 것이다.

내재성은 태권도 기술 연마의 목적과 수련 과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실체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 목소리여야 한다. 수련자와 자신의 태권도 행위간의 내밀한 교류로부터 나오는 것이 태권도 정신론의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독자성

—태권도 정신론은 다른 무술 사상과 구별되는 개성을 지녀야 한다.—

독자성은 정신론 수립에 있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독자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을 말하는 데, 고유성, 개별성, 특수성, 독창성,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런데 태권도 정신론의 성립조건으로서의 독자성은 태권도가 다른 무술과 비슷하다는 보편성(공통성)과 반드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성만 강조한 편협성에 빠져 ‘일반속의 개성’으로써 독자성이 아닌 엉뚱함으로 치달릴 오류를 초래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독자성만을 의식한 나머지 편협성에 빠져있는 것 같다. 태권도 또는 태권도 정신은 다른 무술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이 관점은 태권도가 중국, 일본, 무술과 어깨를 견주는 경쟁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일본 카라테⁸⁾와의 기술적 유사성(근대 태권도 성립과정에 있었던)을 극복하려는 의도에 근거하는 소박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태권도 정신론은 한국의 독특한 사상과 정신성을 반드시 함축해야 한다는 독자성의 과도한 추구성향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화랑도 정신, 단군사상, 동학사상, 한철학 등이 태권도 사상의 근원으로 모색되어 왔지만 의미성과 내재성을 갖추지 못해 태권도 정신론으로써의 타당성이 부인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자성과 함께 태권도가 무술이게 하는 보편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태권도 수련자는 한국인이면서도 인간이다. 게다가 일본인, 중국인, 아프리카 사람도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는 다른 무술과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격투기술의 한 형식이라는 보편성의 기반위에 나름대로

8) '카라테'라는 표기에 주목할 것. 철학자 김용옥의 지론에 의거한다. 김용옥,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와 “최영애—김용옥 일본어 표기법의 개괄적 설명”,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368—384면.

의 독특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독자성은 모색되어야 하며 정신론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착상이 가능하다. 즉, “태권도사 또는 한국사에서 근원될 수 있는 사상” “태권도인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독창적 사상” “외래(타 무술, 동양사상 등)사상과 관련이 있더라도 태권도인의 비판적이고 엄밀한 검토아래 재구성되고 체계화된 사상”이 독자성의 개념이 될 것이다.

4. 이론성

—태권도 정신론은 모호하고 단편적 신념이 아닌 논리 정연하고 짜임새 있는 이론 수준이어야 한다.—

태권도 정신론은 태권도 정신내용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잘 진술하는 이론 수준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교육에 이용되는 지식으로써 또 행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제 구실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이론이란 개개의 사실이나 인식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지침이 될 수 있는 상당히 고도의 보편성을 갖는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한다.⁹⁾ 어떤 문제에 관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견해가 이론이 되며 지식화 한다.

전실한 이론으로써 태권도 정신론이 성립하려면 실증성, 타당성, 명료성, 일관성 등의 세부 사항이 충실히 갖추어져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 추론에서 타당한 전제를 끌어내고 각 세부내용과 결론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논리전개에 사용된 중요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명료화하면서 논리적인 진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용구성은 확고한 뼈대속에 체계적으로 분류되

고 통일된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설명방식은 정신론의 자격에 미달된 한낱 주관적 확신에 불과하다. 이론성은 개인의 사고, 사상 수준을 능가하는 한층 발달되고 객관화된 것으로 태권도 정신론 수립에 필히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다.

V. 태권도 정신론 정립방안

공공의 명실상부한 정신론이 태동하려면 앞의 조건들을 감안한 접근 방식이 시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론연구가 성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절차가 요청된다.

1. 연구자 철학적 전문성 배양

태권도팀 코치 업무 수행에도 전문 지도 능력을 필요로 하듯이 태권도 정신론 탐구자에게도 일단의 능력이 필요하다. 보다 논리적이면서 합당한 이론수준을 요구하는 현실인만큼 전실한 정신론은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그러한 전문능력으로는 철학적 성찰, 합리적 사고와 논지 전개력, 냉철한 이성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철학적 성찰은 태권도 본질과 의미, 정신과의 관계등에 대해 깊이 체험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태권도에 대한 본질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 또한 태권도 정신이 편익 획득을 위한 일시적 처방으로써가 아니라 시시각각 흔들리는 삶속에 내밀히 파고들어 평생을 밝혀주는 등불로써 영속성을 갖추게 한다. 철학적 성찰은 연구자의 체험적 연구근거와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태권도 행위의 본질과 의미, 태권도 전체 호

9) 임석진, 「철학사전」, 297면.

이론(理論; theory)에 대한 오해 내지 편견이 태권도인 사이에도 많은 것 같다. 즉 “이론은 생각이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쓸모없고 그보다 실제(주로 기술적 능력을 말함)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 맥락은 이해될 수 있지만 자칫 이론을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무용지물로 받아들이는 풍조 또한 경계할 일이다. 이론은 실천 또는 체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며 실천에 대한 이해와 지침을 제공한다.

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파악될 수 있다.

합리적 사고와 논지 전개력 또한 전문연구가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이 취한 인식이나 주장의 원천적 근거와 객관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명료한 언어적 수단으로 논지를 진술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경험과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분석력과 통찰력, 사실과 이론의 관계 이해, 유용한 연구 접근법, 문제의 명확한 이해와 해결점 모색, 언어의 능숙한 표현 등이 세부적 능력이 될 것이다.

냉철한 이성적 태도는 다른 탐구자와의 대화와 토론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다. 원래 대화란 당사자간의 주관적 논지가 객관화·명료화되기 위한 방법이며 절차이다. 명확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논지가 개진되고 모순, 오류, 헛점에 비판이 가해지며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수반하는 진리탐구의 형식이 대화이다. 그런데 종종 이성적 태도의 결여로 대화가 본래 취지를 벗어난 소모적 논쟁이나 상호비방의 감정적 대립화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대화의 존재의의조차 위협하는 이러한 사례는 근본적으로 이성적 태도 미비(대화방법과 감정조절의 미숙함)에서 기인한다. 냉철한 이성적 태도는 감정적 반발과 억지성의 고집을 배격하고 대화를 성숙시켜 창조적 결실을 맺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2. 개인에서 공동과제로

공공의 권위있는 정신론이 태동하려면 공동의 모색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신론 정립이 불발로 끝나고 만 것도 개인적·단편적 시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발한 착상과 우연히 읽게 된 책속의 글귀, 아니면 자신의 종교·사상적 신념 등에서 사로잡힌 주장은 곧 한계에 봉착함은 자명한 일이다. 주관적 인식에 국한된, 자기만이 규정하고 자신의 경우에만 타당한 진리가 아닌 우리·모두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에게 타당할 때 비로소 참다운 정신론이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

느 누구도 혼자서 태권도 본질과 향방을 가름하는 지주와 전통을 세울 수 없다.

공동모색은 개별적으로 실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채택한다. 적합한 근거 토대위에 골격을 형성하고 엄중한 비판과 검토가 이행됨으로써 내용은 정련되어 간다.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딪히는 난점 해결에 지혜를 모을 수 있다. 또한 실증성을 확보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신론은 많은 태권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으로써 확립될 것이다.

공공의 원탁위에 올려 놓고 다듬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 태권도 상황에서의 정신론 역할
- 태권도 정신의 개념
- 다른 무술사상의 검토와 비교
- 정신론 제반 조건과 순위 평가
- 내용조직 및 서술 형식
- 시행 방침

3. 태권도 사범 의식 진단 조사

일선 교육과 경기를 관장하는 사범들의 의식과 견해를 조사하는 것도 정신론 정립의 유효한 절차가 될 것이다. 그들은 태권도 정신을 발휘하고 교육해야 할 주체적 행위자이다. 설령 태권도 정신론이 소수의 전문 연구자에 의해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입증하게 하는 실제 당사자는 사범들인 것이다.

그들의 견해에 대한 진단 조사는 정신론 정립에 참고해야 할 객관적 자료로써도 유용하다. 현장의 정신관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정립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은 사범들이 정신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 계기도 된다. 아울러 정신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차후 정립될 정신론 보급에도 용이할 것이다.

조사형식은 설문지 법이나 면담형식을 채택

할 수 있다. 알고자 하는 정신관 내용을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여 도장사범, 경기지도자, 기타 고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신론의 인식 실태, 오류, 지향점, 지도에 이행되는 실태, 적합한 근거 분석에 유용하다.

4. 담당 전문

정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실질적인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공식전문연구부서(소)의 설치나 연구과제설정 및 지원이 그것이다. 전문 연구소는 과제를 충실히 다룰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 관련학계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다각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권위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보증된 지식을 산출하여 공인 교본과 기관지를 통해 보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구비, 현장조사 수행, 연구참여자 교류, 철학토론회 주관 등이 주업무가 될 것이다.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태권도인에게 배포함

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잇점도 있다.

VI. 맺는말

태권도가 일류선수나 고고한 지도자만이 갖는 소유물이 아니듯이 태권도 정신 또한 개인의 생각에서 끝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굳건한 사상적 기반으로써 정신론이 정립되기 위해 적지않은 난점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려움은 자생적(自生的)철학의 탄생을 위해 겪어야 할 산고(産苦)로 인식되어야 하며 장시간에 걸쳐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속적 관심을 수반한 시간적 과정은 연구적과 철학적 풍토 조성 등의 내적 성숙함을 기할 수 있다. 사상없는 행위는 표류하는 난파선으로 비유됨을 잘 알고 있다,우리 태권도인은 자성적 몸부림을 통해 사상적 뿌리가 튼튼한 태권도 문화를 꽃피워야 할 것이다. *

태권도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조장원 · 성상철 · 김원중 · 이명철

서론

인간의 골조직은 콜라겐(collagen) 기질(matrix) 과 그에 침착되어 있는 결정성 무기질(crystalline mineral) 및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은 인체 최대의 무기질 저장소(reservoir)로써, 골의 무기질은 인체의 대사에 필수적인 mineral 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의 함량은 골의 강도(strength)나 유연성(resilienc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노년인구와 만성 소모성 질환자의 증가, 부신 피질 호르몬 등 각종 대사성 약제의 남용, 골절 등 장기 와병 환자의 증가 및 폐경기 이후의 여성의 건강관리 등으로 인해 골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골밀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란 골의 단위면적당의 무기질 함량으로 표시되며 이는 골의 강도 지표로써 골 조송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 및 골의 골절 위험도 판정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골밀도는 여러 인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성 변화 및 폐경기 이후의 estrogen 결핍, 장기간의 와병과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의 대사성 약제는 골밀도를 저하시키며 성장, 운동 및 hyperostasis를 유발하는 질환들은 골밀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운동 등 신체적인 활동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 저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바, Nilsson 등은 골밀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 하였으나 Dalen 등은 단기간의 운동에 의한 골밀도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였고, 최근 Marguilis 등은 피로골절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upper limit의 강도 높은 physical activity로 단기간에 골밀도의 증가가 유발됨을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Dual photon absorptiometry를 이용하여 태권도군과 대조군의 신체 각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전체 골밀도 및 각 신체 부위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천명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8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시내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16~19세 사이의 건강한 남자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하고 있는 군 30명과 그에 대한 대조군 30명으로 나누어 cross sectional study 형태로 시행되었다. 태권도군의 평균 연령은 17.2세, 대조군은 16.8세였다. 이 연구 대상들의 두부, 체간, 골반 및 양 상지와 하지의 골 밀도와 신체 전체의 골 밀도를 Norland사의 Dichromatic whole body mineral densitometry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광원 (radiation source)으로는 Gadolinium 153을 사용하였으며 scanning path는 7.5mm, calibration factor는 0.983이었다. 이 방법으로 얻어진 태권도군과 대조군의 골 밀도를 비교하고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Dual photon absorptiometry로 신체 각 부위의 골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두부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에서 1.668 ± 0.153 , 대조군에서는 1.544 ± 0.167 로 t-test 상 99.5%의 유의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005$) (table 1, fig. 1). 체간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이 0.378 ± 0.044 , 대조군이 0.353 ± 0.0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table 2, fig. 2). 골반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에서 1.648 ± 0.112 , 대조군에서 1.444 ± 0.215 로 99.5%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5$) (table 3, fig. 3).

상지의 경우 위상지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에서 1.184 ± 0.090 , 대조군에서는 1.056 ± 0.095 였으며 좌상지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이 1.178 ± 0.115 , 대조군이 1.066 ± 0.097 로 태권도군과 대조군 사이에 99.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5$) (table 4.5, fig. 4.5). 양측 상지간의 골 밀도는 두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에서는 우하지의 골 밀도가 태권도군에서 1.597 ± 0.118 , 대조군에서 1.425 ± 0.115 였으며, 좌하지의 골 밀도가 태권도군에서 1.597 ± 0.125 , 대조군에서 1.421 ± 0.113 으로 태권도군과 대조군간에 99.5% 유의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두 군에서 산재 양하지간의 골 밀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6.7., fig. 6.7).

신체 전체의 골 밀도는 태권도군이 0.932 ± 0.068 , 대조군이 0.846 ± 0.065 로 99.5%의 유의 수준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005$) (table 8, fig. 8).

고찰

근자에 들어 노년인구의 증가, 만성 소모성 질환 및 장기 외傷 환자의 증가 및 대사성 약제 남용과 폐경기 이후의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골대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골 밀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골 밀도는 골의 단위면적당 무기질 함량으로 g/cm^2 단위로 표시된다. 골의 무기질 함량은 골의 질량 및 골의 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이유로 골의 형성 및 골의 강도의 지표로 사용되어 골 소용증의 진단 및 그 치료의 평가 및 대사성 골질환에서의 골의 자연 골절의 위험도 판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기계적인 부하와 bone modelling의 관계는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Carter 등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기계적 부하 (mechanical loading)가 골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82년 Laynon 등은 골의 형성이 생리적인 범위내의 부하의 정도나 strain rate와 비례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stress와 그의 주기적인 반복으로 골의 형성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인간의 경우에서도 골형성의 지표인 골 밀도가 physical activity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바 Donaldson과 Krolner는 장기간의 외상 (bed rest)과 무중력 상태에서의 골 밀도 감소를 보고하였고, Dalen과 Nilsson 등은 운동선수나 장기간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의 골밀도 증가를 보고하였다.

육체적인 활동으로 유발되는 골밀도의 증가는 대상의 연령과 그 physical activity의 지속기간(duration)과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Dalen 등은 수 개월의 단기간에 physical training 으로는 정상 성인이나 골밀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골이 성숙하기 이전부터는 training 이나 장기간의 강도높은 physical activity 로 만이 골밀도의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Margulis 등은 신병 훈련소의 강도높은 훈련을 받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장판이 폐쇄된 젊은 성인에서도 단기간의 upper limit 의 강도높은 육체적 활동으로 골밀도의 증가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학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태권도의 시행이 체간을 제외한 신체 각 부위의 유의한 골밀도의 증가를 유발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성장기의 강도높은 physical activity가 골밀도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골밀도의 증가를 유발하는 운동의 종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육상, 발레, 신병훈련 및 장기간의 육체노동등에 대하여 single photon absorptiometry를 이용하여 국소의 골밀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신 각 부위의 골밀도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태권도는 전신에 고르게(ubiquitous) 골형성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태권도 수련은 전신의 골형성을 촉진시키며 지속적인 수련을 하면 노년기의 골밀도 저하(골 조종증)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1988년 2월부터 3월까지 건강한 남자 중학생 60명을 태권도를 수련하는 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dual photon absorptiometry로 골밀도를

계측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태권도 수련은 체간을 제외한 신체 각 부위, 즉 두부, 골반 및 사지의 골밀도의 유의한 증가를 일으킨다.
2. 장기간의 태권도 수련은 노년기의 골조종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덕용, 최인호, 이춘기, 강신영, 노상권 : 광자 흡수 계측법을 이용한 한국인의 정상군과 골절위험군의 골밀도 비교, 대한 정형외과학회지, 23권 : 945-953, 1988.
2. Carter, D.R. : The Relationship between in Vivo Strains and Cortical Bone Remodelling, CRC Crit. Rev. Biomed. Eng., 8 : 1-28, 1982.
3. Dalen, Nils and Olsson, K.E. : Bone Mineral Content and Physical activity. Acta. Orthop. Scandinavia, 45 : 170-174, 1980.
4. Donaldson, C.L. : Hulley, S.B. : Vogel, J.m. : Hattner, R.S. : Bayers, J.h. and McMillan, D.E. : Effect of Prolonged Bed Rest on Bone Mineral. Metabolism 19 : 1071-1084, 1970.
5. Krolner, Bjorn and Toft, Birte : Vertebral Bone Loss, An Unheeded Effect of Therapeutic bed Rest, Clin. Sci. 64 : 537-540, 1983.
6. Lanyon, L.E : Rubin, C.T. : O'Connor, J.A. : and Goodship, A.E. : The Stimulus for Mechanically Adaptive Bone Modelling. Osteoporosis, pp 135-147. New York, Wiley, 1982.
7. Margulies, J.Y. : Simkin, AiLeicher, I. : Bivas, A. : Steinberg, R. : Giralidi, M. : Stein, M. : Kashtan, H. : and Milgrom, C. : Effect of Intense Physical Activity on the Bone Mineral Content in the Lower Limb of Young Adults. : J. Bone and Joint Surg. 63-A : 1090-1093.
8. Nilsson, B.E. and Westlin, N.E : Bone Density in Athletes. Clin. Orthop. 77 : 179-182, 1971.
9. Nilsson, B.E. : Andersson, S.M. : Havorup, T. : and Westlin, N.E. : Ballet Dancing and Weight Lifting -Effects on BMC [abstract]. Am. J. Roentgenol., 131 : 541-542. 1978.

1989년도 이사회

'89 Executive Board Meeting of K.T.A

— 4월 11일 하얏트 호텔 코스모스룸 —



'89년도 이사회의 신임임원 상견례

지난 4월11일 12시 하얏트 호텔 2층 코스모스홀에서 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새집행부 구성에 따른 상견례 형식으로 개최돼 이사 상호간의 유대를건고이 하고 태권도 전반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새로 구성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회 장 김운용
I.O.C 집행위원



부 회장 홍종수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부 회장 김준철
청주대학교 총장



부 회장 김동식
경원대학교 총장



부 회장 김순배
태권도인



전무이사 강원식
태권도협회 상근 전무이사



이 사 박승복
샘표식품공업(주) 사장



이 사 유상열
(주)논노 부회장



이 사 김신정
두산전자(주) 부회장



이 사 황경노
한국금박공업(주) 사장



이 사 이상구
전 내외통신사 이사장



이 사 우종림
의료보험연합회 회장



이 사 김현우
제우교역(주) 대표이사



이 사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사장



이 사 이금홍
경인미술관 회장



이 사 송덕영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



이 사 조동원
한국경제신문전문이사



이 사 이방원
경향신문사 편집위원



이 사 이유생
화신기업(주) 대표이사



이 사 임정태
한국와이썬전자(주) 대표이사



김 사 이계광
대원유통 사장



김 사 인창근
청운회계법인

뉴스 초점

-Spotlight-



태권도학회에서는 5월23일 유도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 IOC 집행위원 초청세미나를 실시했다.
Dr. Un Young Kim, the president of 'WTF' lectured on the relationship of Taekwondo and International Sport Society in the special seminar hosted by Taekwondo department of Judo College.



아시아연맹에서는 사무실 현관식을 갖은 후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Asian Taekwondo Federation officials celebrated opening the new office.





유도대학생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운용총재
Dr. Un Young Kim interviewing with a student after the seminar.



미주한인체육회 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환담하는 김운용총재
Dr. Un Young Kim, talking with
U.S. and Korean sport leaders visiting Kukkiwon.



국기원을 방문한 이집트 내무성차관이 시범단의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Moustafa, A.M. IBRAHIM, Under Secretary of Interior
Affairs, Egypt astonished at Taekwondo demonstrations.



1989년도 여자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

5. 23~24, 국기원

'89 National Womens'
Team Selection Tournament
23~24 May, Kukk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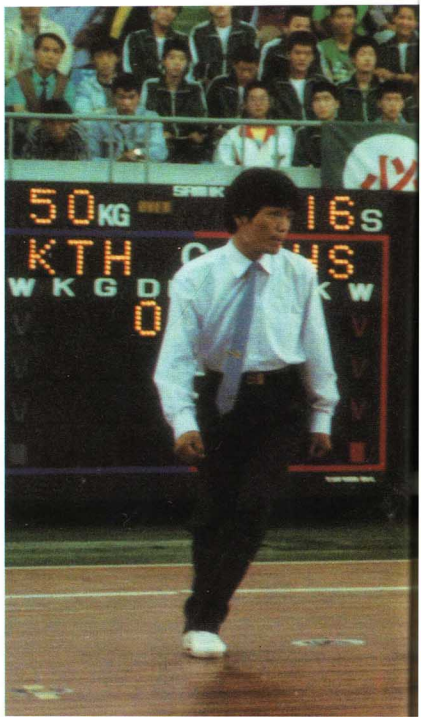
한판의 승패는 심판원의 손에 의해 판가를 나고...



국가대표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8명의 체급별 우승자.



우승자에게 시상하고 있는 김순배 부회장.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5. 9~11, Kukkiwon

The First Trial Matches of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9~11 May, Kukkiwon



홍종수 상근부회장이 우승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최종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한 우승자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해왔던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수들...

1989년도 전국종별선수권대회

3. 20~25, 국기원

'89 National by Division
Championships,
20~25 March, at Kukkiwon.



우승자에게 시상하는 엄운규 부회장(현 국기원 부원장).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선수들.



박현섭 심판분과위원장이 공명정대한 심판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등부 우승자들.



고등부 우승자들.



일반부 우승자들.

제16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타기 대회

4. 10~15, 88체육관

16th Korean Middle &
High School Federation
President Flag Champi-
onships, 10~15 April,
'88 Gymnasium.



개회식에 참가한 본회 홍종수부회장(좌), 이유생 중고연맹회장(중앙), 이기택 국회의원(우).



우승을 향한 여자(왼쪽), 남자(오른쪽)
선수들의 불꽃튀기는 접전.



남자고등부 단체 우승을 차지한 서울체고.





남자중등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한영중.



여자중등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철산여중.



우승을 향한 남자
선수들의 불꽃튀기는 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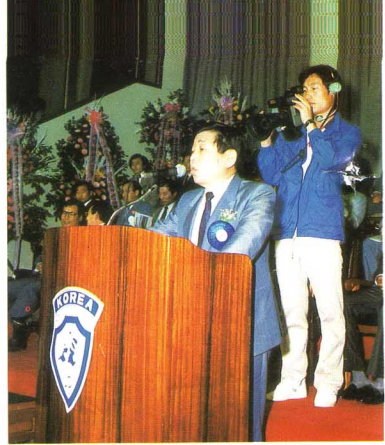


≡ 학교동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영신여고.

제10회 전국국민학교 태권왕 겨루기 대회

5. 14~15, 88체육관

10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of Elementary Schools.



격려사를 하고 있는 김운용총재.



환영사를 하고 있는 국교연맹의 임정대회장



대회사를 하고 있는 남산청년회의소 김운태 회장.



개막식에 참가한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어린이들.

영예의 입상자들.
국교연맹의 임정대회장이
남자단체 1위를 차지한 청주서원국민학교에 우승기를 수여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교연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의 순간.



본회의 강원식전무이사가 김운태 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 대회 우승으로 2연패를 차지한 청주서원국민학교.

1989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 대회

4. 25~26, 국기원

'89 National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25~26 April, at Kukkiwon.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각학교 코치들의
열띤 표정속에서 여자태권도 발전의
면모를 볼 수 있기도 했다.



아깝게 3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한 유망주들.



영광의 우승자들.

제16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4. 29~30, 국기원

16th National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s,
29~30 April, at Kukkiwon.



김동석 회장이 성신여대의 배은정 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결표한 뺨차기를 성공시키고
있는 순간.



남녀 계급별 우승자들이 대학연맹임원들과 함께 오늘의 영광을 기념사진에 담고 있다.

제 24 회 대통령기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The 24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at Kang Reung City June 27~30, 1989

6.27~30, 강릉상고 체육관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강원식 전무이사
본 대회는 MBC라디오로 생중계되면서 강원도 태권
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를 맞기도 했다.



김운웅회장을 대신하
여 대회사를 대독하는
홍중수부회장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성
섭 동해출장소장



환영사를 하고 있는 안
재현 강릉시장



나만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단체전으로 이루어져 경기에 김하는 선수들은 더
욱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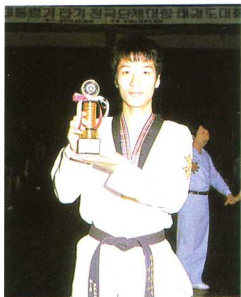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심판들의 판정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중평을 얻은 심판원들



대회를 주관한 강원도협회 김원동

고등부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동성고의 국잔호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동성고등학교 선수들은 김인수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고등부단체 1위는 동성고, 2위는 강원사대부고, 3위는 대전체고, 감투상은 성동고, 장려상은 점령고가 차지했다.



경기를 마친후 상대선수를 승패에 관계없이 격려해주는 코치의 모습은 태권도정신의 근본이며 선수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코치본연의 임무이다. 서울체고 주신규코치가 상대선수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다.



고등부 제급별 우승자들

대학부



대학부 단체우승은 동아대학, 2 위는 경희대, 3 위는한체대. 감투상은 조선대, 장려상은 관동대가 차지했다.



밴텀급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동아대학교의 심우현 선수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동아대 선수들이 김우규 감독을 행가래하여 기뻐하고 있다.



심판의 임무는 공명정대한 경기운영에 있다. 땀-칠이의 별명을 가진 김성철 심판원의 판정은「깁」이라는 칭호가 붙을만큼 원리원칙 적용에「깁없는 심판원」으로 몇 회의 대회에서 불리우고 있다.



대학부 체급별 우승자들

일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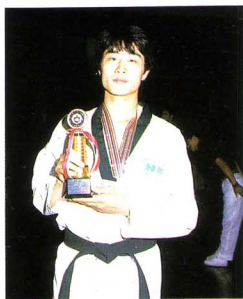
체급별 우승자들.



현대자동차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며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우승은 현대자동차. 2위는 지하철공사. 3위는 삼천포체육관. 감투상은 국군체육부대. 장려상은 현대정공이 각각 차지했다.



밴텀급 우승을 차지한 현대자동차의 유명식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단체 2위에 입상한 지하철공사 선수단.

국가대표최종선발대회 5. 25~26, 국기원

Final Games of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25~26 May, at Kukkiwon.



MBC-TV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가대표 최종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다투온 기량을
펼쳐보이고 있다.
본 대회 체급별 1위자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